

시로 읽는 성보순례
수덕사 버선꽃
국보 제49호 수덕사대웅전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15일) · 주간

제 895 호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성불하려는 마음 굳으면
의심하지 말고 꼭 믿어라.
부처님의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화엄경 40권본 제2권」

韓日 순례문화 교류 세계평화 증진 선언

33차 한일불교교류대회서

한일 불교계가 양국 순례 문화 교류를 활성하기로 결의했다.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우호와 화합도 약속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시코쿠 젠쓰지(善通寺)에서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열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성지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요식, 환영만찬, 도쿠시마 다이니치지(大日寺)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6월 26일 열린 세계평화기원법요식 대회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는 만남의 의미를 넘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와 종단 간 교류,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층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대회사에서 "일한 양국이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우호친선의 유대를 깊게 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공생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고미네 야겐 일본 대정대학 교수가 '성지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뒤 참가대중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김재경 국회의원(국회 정각회원) 등 한일 불교계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가했다.

신중일 기자



도심 속 사찰 문화 강좌 열기가 뜨겁다. 6월 26일 조계사 불교대 통기타반 강좌 현장. 조계사는 현재 17개 강좌에 400 여명의 회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절집 문화강좌 인기 '이유 있네'

사찰분위기가 학습효과 높여…일반인도 시선집중

"요가나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비싸서…." "다도를 배울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문화강좌를 배우고 싶어 나섰지만 비용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마땅치 않아 망설였던 불자라면 근처 사찰을 찾아가 보자.

사찰이나 부속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요즘 인기다. 요가, 불화, 다도, 노래교실 꽃꽂이, 오카리나 배우기 등 개설된 강좌 종류도 수십종에 달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수강료도 시중보다 비교적 저렴해 특히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 강사진이나 강의 내용도 결코 유명백화점이나 일간지 문화센터보다 뒤지지 않는다.

문화강좌가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서울 종로 조계사다. 10여년째 운영중인 조계사 문화강좌는 현재 17개 강좌에 4백여 수강생이 듣고 있다. 처음 문을 열었을때는 국악기와 풍물 배우기 등 전통 강좌 중심으로 개설했지만 차츰 수강생이 늘면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강좌를 늘렸다. 현재 인기 강좌로는 요가(130명), 불화(1백명), 다도(1백명) 등에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조계사 교육조직국 박금문 주임은 "문화 강좌를 열며 일반 시민들에게 절을 개방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문화강좌를 들으러 왔다가 절과 친숙해져 신도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문화강좌 대부분이 불교교양대학의 부설강좌인데 반해 서울 회기동 연화사는 아예 문화센터란 간판을 걸고 차별화시켜 더욱 인기가 높다. 5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연화사 문화센터는 인근 지역에서도 원정을 오는 등 매학기 수강생들로 북적인다.

요가, 불화 등 강좌 다양
수강료 시중보다 저렴
사찰 봉사활동서 실력 발휘
포교로도 이어져 긍정적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은 "보통 절에 와서 법회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기 마련인데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사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며 "이런 이들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는 등 포교와 연결이 됐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한 스님은 "문화강좌의 성패는 실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진 섭외에 달려 있다"며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현재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가 뭔지 살펴서 다양한 강좌를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화사 문화센터에서 수료한 수강생들로 구성된 사르나트(라인댄스)봉사단은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아 매년 지역축제의 단골손님으로 초청되기도 한다.

봉은사 강민수 홍보팀장은 "강좌가 단계별 수준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강사도 섭외하고 수강생도 모집해야 문화강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금방 강좌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근 사찰과 연계해 그룹별로 함께 기획하고 홍보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카리나 배우기, 사찰음식 강좌 등을 열고 있는 은평구 진관사 총무 법혜 스님도 "사찰을 처음 찾은 수강생들은 불교를 이질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를 통해 불교를 접하다보니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교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화강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도 포교로도 이어지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창조론 · 교회 사역, 정권 업었나?

특정 종교, 사회 공공성 침해 연이어 '물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진화론 삭제와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공공도로 점유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은 공통점을 가진다. 두 가지 모두 특정 종교가 사회 공공영역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려는 창조론자들의 노력은 30여 년간 계속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일부나마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독실한 개신교인인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창조과학회는 대형교회들 외에도 개신교 영향권 대학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왔다. 한국 최고 과학수재들이 모여 있는 국립대학 KAIST 경우는 창조론을 비롯한 개신교의 입김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KAIST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창조과학관에 대한 공간을 제공해 빈축을 샀다. 주대준 KAIST 현 부총장의 경우 청와대 경호처장 재직 시절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한 인물이다.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역시 정교유착이 이뤄지지 않고는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사례다. 실제 대법원은 2008년 '특정 종교시설의 경우 그 사회 · 경제 · 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이므로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애초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허가된 것이다.

외부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사랑의 교회 측은 이를 종교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과학론, KAIST에도 침투
사랑의 교회, 서울시에 '몽니'
반대 측 '반기독교 세력' 규정
시민 의식 성숙이 해결 열쇠

사랑의 교회 감사청구 준비위원회 황일근 대표(서초구의원)는 "제보에 따르면 사랑의 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세력을 '반기독교 집단'으로 간주하고 종교간 갈등으로 종교간 갈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지침을 세웠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교회가 종교 갈등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랑의 교회 문제는 어디까지 특정 종교가 특혜를 받아 사회 공공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 진화론 삭제와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를 제외하고도 현 정권 안에서 특정 종교의 공공성 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이후 4년 간 1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8건이 개신교의 종교차별로 최종 결론이 났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이 자체 조사해 발간한 〈대한민국 종교차별사례집〉에서도 현 정권의 종교편향을 사례를 총 144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조계종 종평위는 사례집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기독교의 정교일치 움직임 정점에 달한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한국 개신교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의 정교일치 성향을 고려할 때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특정종교의 전횡은 스스로에게 족쇄로 작용한다"며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시민과 종교 신자들의 의식이 성숙돼야 정교유착과 사회 공공성 위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이 '이뭣고?'는 이뭣고?" 고요해야 할 산중의 언어 '이뭣고'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바로 내려왔다. 6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은 타악퍼포먼스 '이뭣고' 공연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7월 1일까지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스님이 감독을 하고 사찰의 사물(四物)을 악기로 사용한 공연이다. 이날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포교원 교역직 스님들, 종무원이 공연을 관람했다. 관람을 마친 지원 스님은 "다양한 포교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공연이 신선한 문화포교의 장을 열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사찰조경연구소 공동 캠페인

'렌즈 속 현장-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은 귀의처이자 수행처입니다. 그래서 가람 곳곳에는 향기가 피어납니다. 또한 절은 불교문화와 한국전통미의 산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량을 도량답게 가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사찰조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카메라 속에 비친 '렌즈 속 현장-도량을 도량답게 가꿉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렌즈 속에는 예쁜 모습도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도 모두 담길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채택된 사진과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02)2004-8251, wanihollo@hyunbul.com

895호 INDEX

종단 2
조계종교육원 청규제정 좌담회

종합 3
개신교, 종자연 흠집내기
2012 여름 템플스테이
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무산

시방세계 5
도심속 사찰 문화강좌 열기



학술 · 문화재 9
간화선 국제 학술대회

새 연재 14면
'부처님 10대제자에게 배운다' 첫 회
사리불존자

불상은 왜 금색일까?
탑의 층수는 왜 홀수일까?
부처님의 수염은 왜 파란색일까?
관세음보살은 여성일까 남성일까?
도대체 절에는 왜 담도 없는 문이 있는 걸까?
동지에 왜 절에서는 달력을 나눠줄까?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진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상 · 하)
글 자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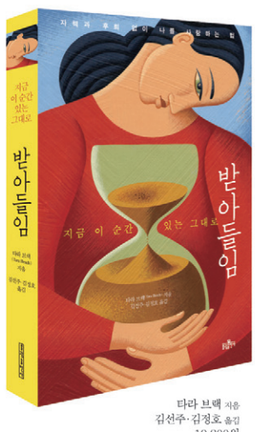


상하 각 320쪽, 312쪽 | 올컬리
가격 각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틱낫한, 혜민 스님이 추천한 심리치유의 바이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 · 김정호 옮김
19,800원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심리학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한국어판!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 독자 서평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9호 수덕사대웅전



수덕사 버선꽃

최 문 자

꽃 안에 절이 있다
가던 길 멈추고
사랑을 물을 수 있다는 버선꽃이 있다기에
덕숭낭자가 되어 수덕사로 갔다
뽀얀 흰 버선 한 짝 신고
수덕도령 만나러 갔다
언제나
사냥터 먼 발치서 바라보던 수덕도령에게 잡혀
벗겨진 버선 한 짝
평생을
버선 한 짝 신고 살았을 덕숭낭자
평생을
버선 한 짝 쥐고 살았을 수덕도령
잔불 끄지 못하고 몇 번이나 지은 절 불태울 때
반짝이는 별이 물었다
버선 한 짝의 사랑을 물었다
수덕사 대웅전 축대 위를 오르며
층계 중간 쯤 서서 보았다
노랗게 버린 버선꽃
버선 한 짝씩 나눠 가진
다 타버린 사랑의 자리
그 꽃이 있던 그 자리가 수덕사냐고
오랜 뒤
덕숭낭자가 되어
수덕사에게 물었다
평생 한쪽 발이 시렸을
사랑을 물었다
아직도 한쪽 맨발로 노랗게 서 있는
꽃 안의 절에게 물었다
한 슬픔이 갸우뚱 내민 얼굴 버선꽃과
하루종일 놀았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최문자 시인은… 서울 출생. 198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울음소리 작아지다〉,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등.

"현대적 청규보다 '수행자' 의식 앞서야"

조계종교육원, 종단 청규제정 위한 좌담회 개최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 중 하나인 현대적 청규 제정을 위한 첫 논의가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6일 '종단 청규 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현대적 청규의 방향성과 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청규 제정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제언했다.

스님은 먼저 현대사회는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현 스님은 "개인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집단 개인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규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청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규 제정의 범위로는 사회적인 부분과 의식주, 개인을 꼽았다. 특히 개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려 개인의 성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수행자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계몽의 요청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집단 전체가 상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 종교 특수성 아울러야
스님들 제정 취지에는 공감
세부 항목 정해 율장 비교
계율교육 · 자자 등 의견 제시

발제 이후 이어진 좌담에서는 현대적 청규 제정에 대한 율사 스님들의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스님들은 율장에 대한 위치를 강조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적멸 스님은 "부처님 계율은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승가가 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사회에서 부적합한 것은 개선해야 하지만 율장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가의 의식 개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스님들이 계는 받지만 지키는 않는다. 모든 것이 개인의 의식 문제"라며 "아무리 청규를 제정하더라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교수 아사리 벽공 스님도 "승가 내 '자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청규 제정을 놓고 난상토론을 펼친 이날 좌담회는 종법으로서의 청규를 입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를 논의할 중앙종회 조직이 없어 구성 전까지 종헌개정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청규 제정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6일 종단청규제정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현대적 청규의 방향성과 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2013년 장학승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6월 22일 '제7차 장학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기 2557(2013)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에 특징은 종단 연구불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에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장학위원회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 △한국 근현대 불교사 등 9개 전문 분야에 걸쳐 종단 장학승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현재 국내외 교육 · 연구기관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학인 스님들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종헌종법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013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접수는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심사 후 12월 중 선발을 확정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진각논문대상 논문 7편 선정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이 제14회 진각논문대상 불교일반(5편), 밀교일반(1편), 진각종교학(1편) 등 3개 분야에서 총 7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된 논문계획서와 연구자는 불교일반분야에서 △재가자의 아라한 성취와 재가생활유지 가능성에 대한 고찰-Pali문헌을 중심으로(서현희 서울불교대학원대 강사), 욕망의 주체에 의한 '심상(心像, samjna)'의 언어화(안환기 불교학연구회 편집간사) 등이다.

논문계획서 당선자들은 향후 4개월 간 논문 완성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논문 발표회를 갖고 최우수편을 가리게 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바로 잡습니다〉

제 894호 16면 '나의서원 나의신행'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기사에서 중간 제목 1988년 대원불교법사회 창립을 **대한불교법사회 창립**으로 바로잡습니다.

대선 잠룡들 '佛心잡기' 시작

손학규 · 정세균 민주통합당 고문, 자승 스님 예방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6월 28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선 주자 중 첫 예방이다.

손 상임고문은 "어제 출마를 선언하고 종단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려고 왔다"며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손 고문은 절집에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스님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27일에는 출마 후보 중 한 명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정 상임고문은 "용성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도문스님은 "이 나라,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8일 예방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량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 · 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 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족자〉


법성게 38×145㎝

해인도 10.5×17.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개신교계 '종자연' 흠집내기 눈살

한기총, "대통령 면담 추진 하겠다"… 개신교 언론 등 과민반응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대해 개신교계의 공격이 거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은 종자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일보 등 개신교 언론들은 종자연의 '개신교 때리기'가 불교를 등에 업고 이뤄진 것이라고 연일 보도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종자연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체결하면서부터. 종자연의 연구사업은 국가, 종교단체, 기업, 학교에 발생하는 종교차별 실태와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는 불교계 인사가 주축돼 설립한 불교단체인 종자연은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교단체가 왜 개신교를 사찰하냐"는 논리다. 최근에는 대광고 강의석 군 사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종교투표소 설치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는 등 특정 종교의 이익단체로 매도하는 수준이다.

현 상황에 대해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는 "최근 연구소 활동이 외부에 많이 소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연구 용역까지 수주하다 보

'종교차별 개선 연구' 용역에 반발
불교단체 주장 vs 범종교 NGO

니 개신교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출발은 종교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불교 모임에서 출발했지만, 대광고 강의석 사태가 확산되면서 기독교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NGO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강의석 사태를 통해 종자연 회원으로 합류한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은 개신교의 종자연에 대한 비판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니라는 항변도 이어졌다.

종자연, 국내 유일 종교인권단체
참여 기독인 "종교 공공성 기여"

류 전 교목은 "종자연은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학자연)'과 결합하면서 범종교시민단체로 변화했다. 당시에는 연구소 회원 비율이 개신교 신자가 더 높았다"며 "이런 사실이 있는 데도 국민일보 등 개신교 언론이 가까운 이해당사자인 나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자연의 문제 제기가 개신교에 몰리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교리가 일반 사회의 공공성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신교계가 비판하고 있는 종자연의 법적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 정의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사안은 전혀 없다. 대광고 사태를 통해서는 학내 종교자유를 이끌어 냈고, 공직자 종교차별특별법 입법청원으로 국가 기간 공무원들의 '종교 중립'이 명문화됐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불모지였던 '종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진보 신학자인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종자연은 종교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에 처음 전파한 단체"라고 평가하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을 위한 비판은 한국 종교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리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삭도 사업 기준 부합 결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위원회는 6월 26일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원 산청 함양 양양의 상부정류장 사업 계획은 특별보호구역과 겹친다는 결론이 구례 남원 양양은 삭도 정상부 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났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는 "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특별보호 구역 등의 기준이 바뀔 가능 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삭도 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종교계 대표들 과세 납부 '긍정적'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6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 종교계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인들은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승속 떠나 자기 반성이 중요"

야단법석 6번째 자리, '재가 승가에 희망을 말하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26일 서울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법당에서 '재가, 출가에게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6차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이날 야단법석에서는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불자들이 다수 참석해 젊은 불자들의 시각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최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불자들과 대화하고 활동을 장려하기보다 재등록 사업을 강요하는 포교원과 전법단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종단이 신도들의 우위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버리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회향 직후 도법 스님은 "성철, 법정 스님을 존경하지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하고 이는 부처님도 마찬가지다"라며 "참다운 존경을 위해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6월 26일 서울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법당에서 열린 '재가, 출가에게 희망을 말하다' 야단법석에서 재가자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여름, 초록빛 산사로 가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2 여름 템플스테이' 진행

여름이다. 타는 듯한 염천(炎天) 아래의 사람들은 쉴 곳을 찾아 떠난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석이조의 휴가를 꿈꾼다면 산사만한 곳이 없다. 올해에도 여름 산사는 초록빛 향기를 머금고 지친 현대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사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테마형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레저, 이제는 사찰서 즐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레저를 접목한 템플스테이다. 강원도 강릉 현덕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휴가 시즌을 맞아 '요트 체험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경포대, 정동진 일대의 코스를 따라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현덕사의 템플스테이는 요트 위에서 하는 선상 명상이 결들어져 시원한 바다바람에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남해바다의 섬들이 내다보이는 진해 대광사 역시 6월부터 10월까지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한다. 산에서는 여름밤 별빛달빛 꿈길 걷기, 바다에서는 바나나 보트, 요트 체험 등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푸른 바다와 산을 벗삼아 지치고 힘든 한여름의 무더위를 달랠 수 있다.

비만이시나요? 산사로 오세요

평소 체중 관리에 고민이 많다면 올 여름에는 산사에서의 휴가를 적극 추천한다. '살 빼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는 스트레스와 비만 해소를 위한 '산사의 건강비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3박4일간 육지장사의 특화된 단식 프로그램에 따라 쑥뜸 온구, 해독 선식, 풍욕, 추나수기교정 등을 체험하고 나면 한결 가벼운 몸을 만들 수 있다.

강원 인제 백담사에서는 '마음의 비만'을 치유할 수 있다. 백담사는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참나를 찾아가는 건강 템플스테이'를 7월 6일부터 8일까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코스로 운영한다.

지친 내 마음, 명상으로 '休~'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재충전을 원한다면 명상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강원 양양 낙산사에서는 7월 14일부터 15일,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차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 집중 명상 프로그램로 구성된 '길에서 길을 묻다'를, 경기 화성의 용주사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명상 여행 프로젝트로 준비한 '명상을 품은 나'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서울 조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음악회와 영화 상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2012년 여름밤, 구미호를 쫓다'를 진행하고,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는 임동창 피아니스트 등을 초청해 '내비둬 콘서트'가 열린다.

2012년 여름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2012 여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기간	연락처
강원 강릉	현덕사	요트 체험 템플스테이	요트 체험, 선상 명상 등	6월~10월 (상시 운영)	033-661-5878
경남 진해	대광사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별빛달빛 꿈길 걷기, 바나나 보트, 요트 체험 등	6월~10월 (상시 운영)	055-545-9595
경기 양주	육지장사	산사의 건강비전 템플스테이	쑥뜸 온구, 해독 선식, 풍욕, 추나수기교정 등	7월 19일~22일 7월 26일~29일 8월 2일~5일 8월 9일~12일	031-871-0101
강원 인제	백담사	참나를 찾아가는 건강 템플스테이	108배, 사찰음식 만들기, 대청봉 봉정암 참배 등	7월 6일~7월 8일 8월 10일~8월 12일	033-462-5565
		참나를 찾아가는 숲 명상	좌선, 행선, 예불, 108배 등	7월 22일~8월 7일	
강원 양양	낙산사	길에서 길을 묻다	차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좌선 등	7월 14일~7월 15일 8월 11일~8월 12일	033-672-2417
서울	조계사	2012년 여름밤, 구미호를 쫓다	작음 음악회, 영화 상영, 철야 참선 등	6월 16일~8월 25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새벽 4시)	02-732-2183
전북 김제	금산사	일감스님의 내비둬 콘서트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님 외 게스트 초청 콘서트	7월 28일~7월 29일 8월 4일~8월 5일 8월 11일~8월 12일 8월 18일~8월 19일	063-542-0048



일 주 문



불국사 제1회 청소년 여름수련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7월 25~27일 불국사 일대에서 중학생 대상 제1회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연다. (054)746-9913



동화사 여름수련회 '달마야 놀자'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7월 21~22일 동화사 경내에서 여름수련회 '달마야 놀자'를 개최한다. (053)982-0223



통도사 삼소굴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 스님은 7월 16일 경봉선사 열반 30주기 추모다례회를 맞이해 9월 23일까지 특별전 삼소굴을 개최한다.



제10회 봉선사 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7월 28일 봉선사 연꽃밭 특설무대에서 제10회 봉선사 연꽃축제를 마련한다. (031)527-1957



흥천사, 100만배 정진기도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일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관음전 복원과 관세음보살 조성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100만배 정진 기도를 시작했다.



조계사 화엄성중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7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 111일 화엄성중기도'를 봉행한다.



'즉문즉설' 사회문제 편 열어

법륜 스님이 7월 9일 오후 7시 서울 대문화관 조국 교수와 박경철 원장과 함께 '새로운 100년, 즉문즉설 사회문제편'을 연다.



비교종교학 일요특강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24일 2층 큰법당에서 오강남 캐나다 리지아나대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일요특강을 했다.



제따와나 선원 템플스테이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은 20~30대 젊은이를 위한 '마음명상왕초보 템플스테이'를 7월 20~22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진행한다. (02)595-5115



제3회 Young Buddhist Camp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8월 3~6일 백담사 만해마을, 신흥사, 낙산사 등 강원도 일대에서 제3회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교육 불사가 한국불교의 희망"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

지난 5월 광주에서는 한국불교의 선·교·율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강좌가 진행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불교 강좌를 개설했다.

증심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다. 늘 기도하는 신도들로 붐비는 이곳에 연광 스님은 "시민들을 위한 불교 강좌를 개설해 불교교육 활성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교육이 한국불교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가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듯, 사찰에서도 불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40년 간 설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 이셨을 겁니다."

스님은 이런 발원으로 지난 5월부터 대중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이어 사찰신도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개설을 마련했다. 증심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불교교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증심사에서는 연과 스님이 진행하는 기초교리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1달 여 사이 약 100여 명이 강좌를 신청해 수강 중이다. 특히 기존 신도보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광주지역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불교강좌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그만큼 불교 교리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절실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강연은 고루하지 않다. 스님은 불교 기본교리를 담고 있는 〈아함경〉에 대해 주로 강연한다. 스님은 〈아함경〉의 내용을 불자들의 고민에 빗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자용어를 최소화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다.

스님은 "한국사회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 자녀교육, 그리고 노화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아함경〉내용을 풀어낸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광주 대표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12회에 걸쳐 대중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문학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기복적인 요소가 많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 불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광주를 불국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제2대 회장에 각운 스님 선출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각운·사진)는 6월 28일 종로 두산위브 회의실에서 '제2대 각운 스님 회장선출 및 총재단 회장단 상견례'를 봉행했다.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각운 스님(무무암 회주)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 본연의 행이 아닌 행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로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중추 단체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는 2000년 4월 30일 법인등록 후 현재 186개 종단이 가입돼 있으며 6개 종단이 추가 가입 진행 중이다. 제2대 각운 스님 취임법회는 8월 7일 횡성 무무암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전달

건국대병원 불교법당, 수술치료비 1천만 원

건국대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법경)은 6월 26일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을 받은 중국 동포 리진저(3) 군에게 수술 치료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건국대병원 양정현 의료원장, 수술 집도의 서동만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진저 어린이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

한편, 22일 건국대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을 받은 리 군은 회복경과가 좋아 27일 퇴원해 중국 심양으로 돌아갔다. **신중일 기자**

한·독 교수들 탈핵 공동협력 나서

25일 독일 현지서…불교생명윤리協 법현 스님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이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과자연보호협회(분트)'와 '탈핵(탈원전)과 생태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대표단은 6월 25일 독일 뮌헨 뉨펜부르크성 내 슈바이스푸르트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분트 측과 만나 '독일과 한국의 시민단체들 사이의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공동협력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약정 체결식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와 법현 스님(전 태고종총무원부원장)이 동참했으며, 법현 스님은 협회 고문인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의 친서를 분트 측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 법현 스님이 독일 분트 측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원효 저술 찾기 학계의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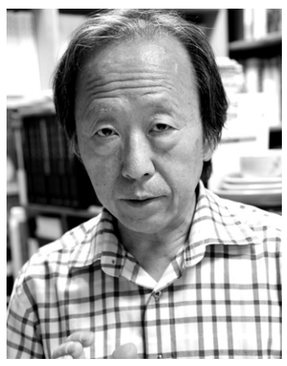
미공개 원효 저술 목록 16종 밝힌 김상현 교수

"신라 불교학은 중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사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 원효는 당대의 최고 석학으로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불교사학자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6월 16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열린 '신라사경 프로젝트 국제워크숍'에서 오타니 대학 등 일본 현지에 소장된 고대 불교 문헌류의 신라승 저술 목록들을 최근 정리한 결과 〈불성의장〉 등 원효가 남긴 미공개 저술 목록 16종을 새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상현 교수는 "실물은 전하지 않지만, 확인된 저술 목록만으로도 원효 스님이 다양한 유파의 경전과 여러 학문 등에 통달한 당대 최고 석학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일본에 전한 신라불교전적의 연구현황' 논문에는 10여 년간 일본 사찰·대학의 옛 전적 등을 판독해 밝혀낸 7~9세기 신라승들의 미공개 저술 목록 90종이 담겨있다.



김 교수는 "이번 90종을 포함하면, 7세기부터 200년간 신라승들의 불교학 저술은 440여종이나 된다"며 "당시 신라의 불교학 수준이 중국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님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과 별개로 일본 서지학적 보존 노력이 놀랍다"며 "한국 학계와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티베트 마을의 행복이 제 행복"

티베트 마을 자립운동 펴는 가연숙 씨

한국에서 방송영상학을 공부하던 한 여성이 티베트 망명정부 마을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가연숙 씨. 가 씨는 2009년 인도 다람살라에 삶의 둥지를 튼 이후 홈페이지 '가교'(www.gagyo.org)를 통해 인도 다람살라 마을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이번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는 달라이라마 최측근인 삼동린포체의 수행원 역할을 하기도.

가 씨가 처음부터 티베트 망명정부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방송영상학을 전공한 이후 불교영화 영상을 기획 하던 그녀는 2006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했다. 2009년 영상공부를 위해 찾은 남인도에서 그녀는 티베트 망명정부 차관보인 남편을 만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녀는 현재 인도 내의 52개 티베트 마을에 경제자립을 위한 공동체 설립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많은 티베트 청년들이 인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로 정처없이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티베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의 희망은 무엇일까? 남편과의 사이에는 얼마 전 아이까지 생겼다.

1년에 한번 찾는 한국에서 인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오늘도 희망어린 꿈을 꾼다. **노덕현 기자**

효사 육임활용서 CD프로그램 大大 할인 판매

– '발전적 결심'으로 한시(限時) 출고 합니다 –

"저의 '육임활용서'와 'CD프로그램'을 100으로 쓰시는 분, 1,000으로 쓰시는 분, 10,000으로 쓰시는 분이 있사온데 저는 10,000으로 쓰게 해드리고 싶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 육임활용 주요품목 ◆

• '효사비결' CD프로그램	120만원	정가 650만원(육임 당면사 일생사 / 띠별 성부 확정 / 종합)
• '군자수첩' CD프로그램	40만원	정가 103만원(육임부분 분개 장착)
• '고귀명수' 全 6권(휴대용·탁상용)	80만원	정가 350만원(육임운명판단법)
• '육임산책' 통권 / 全 6권(휴대용·통권)	50만원	정가 250만원(육임당면사 / 신수비결)
• '육임래정비법' 2011 증보판	15만원	정가 35만원 (왜 왔는가? 항목별 성부 단정)
• '육임풍수' 2011 증보판(통권·휴대용)	10만원	정가 25만원 (육친 / 좌향적시 / 묘지속 전경 / 후손 영고 등)

◆ 육임학습 주요품목◆

• 효사육임강론 上下	15만원	정가 45만원(육임종합학습서)
• 효사육임 1년 신수비결	8만원	정가 15만원(1년 월별 신수 / 가족 전체 길흉 등)



"최종품입니다. 더이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大大 할인기간

2012년 6월 25일 ~ 7월 6일 까지(12일간)

"구입하신 후 효과성을 위해 지방도 직접 방문,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 효사 –

육임나라주식회사 02)738-8680

wwww.taotemple.net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국 민 006001-04-236454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상담친견용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입니다.

사찰, 유쾌한 문화센터로 시선 끈다

도심 속 사찰 문화강좌 인기

조계사 – '불화반' 회원전 열며 호응 커
연화사 – 라인댄스로 경연대회 1위 차지
봉은사 – '사진교실' 인기강좌로 자리 매김

6월 26일 저녁 7시 기타를 맨 주부와 직장인들이 조계사 불교대학 2층으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혹자는 불교대학에 기타가 웬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조계사 교육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기타 교실은 조계사의 인기 강좌 중 하나다.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강사 이원욱 씨(퀸 실용음악학원 원장)의 지도에 따라 회원들은 반주법을 익힌다. 불협화음처럼 튕겨지는 기타줄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가 싶더니 30여분이 지나자 어느새 모두가 '그대 그리고 나'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합주가 무르익어 갈수록 모두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며 기타 선율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사찰이 문화 강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절은 이제 더 이상 간절한 입시기도나 엄숙한 수행 공간 혹은 딱딱한 교리 강좌를 듣는 곳이 아니다. 오카리나 라인댄스 사진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사찰이 취미 생활을 즐기는 여가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심 속 문화강좌로 시민들을 찾고 있는 사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계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조계사 문화강좌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10년째 운영중인 이 프로그램은 현재 17개 강좌 400 여명의 회원들로 성황을 이룬다. 초창기에는 ▷요가 ▷불화 ▷다도 등 전통강좌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디지털카메라 ▷슈가크레프트 ▷불교한문 ▷한국무용 ▷도자기 공예 ▷천연염색 ▷유식불교의 이해 ▷재미있는 한시 풀이 이야기 ▷통기타 교실 등이 더해지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요가 불화 다도 등은 각 반마다 회원 100 명을 넘어서며 성황을 이룬다. 이 중 불화반은 꾸준한 단계별 수업을 거쳐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은 강좌를 통해 절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연화사

대부분의 사찰이 불교대학에서 자체 운영되는 문화 강좌라면 서울 회기동 연화사는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들을 찾고 있다.

현재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는 ▷요가 ▷라인댄스 ▷모듬북 ▷어린이 요가 ▷포크아트 ▷규방공예 ▷천연비누만들기 ▷난타 ▷단소 ▷풍물 등 13개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200 여명의 수강생이 이곳을 찾고 있다. 특히 라인댄스 강좌는 봉사단을 조직해 지역 축제에 참가하는 등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제1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 라인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봉은사

사진 · 노래 · 다도 교실 등은 물론 수험생 건강 특강도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좌 대부분이 개강과 동시에 조기 마감돼 봉은사 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사진교실로 회원들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사진을 배우고 익히며 만족을 얻는다고한다. 이 강좌가 더 의미 있는 것은 교육 이수자들이 사찰 사진봉사자들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교양강좌가 곧 신행으로 이어지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찰 음식 강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관사

진관사는 현재 ▷오카리나(초등부 및 가족반) ▷사찰음식반 ▷풍물 ▷기타반 ▷다도 ▷역사 교육 강좌 등이 진행돼 사찰 방문이 낯선 이들을 친근하게 맞아 주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역사 교육 강좌는 청소년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 진관사 및 태극기의 역사 등을 얘기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수예 만들기, 불화 그리기 등의 신설 강좌를 계획중에 있다.


진관사 풍물


국제 선 센터 사찰요리 강좌


조계사 '불화반'



진관사 오카리나

이처럼 문화강좌는 사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기존 신도에게는 신행생활과 문화를 겸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강좌를 원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사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는 권영길 거사는 "평소에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 생겨 너무 즐겁다. 평소 절에서 교리강좌 등의 교육은 받아봤지만 이렇게 문화 강좌를 배우는 것은 처음이다. 절이 새롭게 느껴진다"며 소감을 밝힌다.

4년째 불화반 수강을 하고 있는 박혜민 씨는 "108배 하는 마음으로 불화 그리기에 임하고 있다. 작업 내내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사찰에서 불화 그리기를 배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전한다.

가볍게 문화강좌를 듣고 싶은 이라면 이제 사찰로 발길을 돌려보자. 그곳에는 당신의 오감을 충족시키며 마음을 밝혀줄 유쾌한 배움의 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 강좌가 있는 사찰

사 찰	강 좌 내 용	전화번호
조계사	요가 불화 다도 서예 단소 문인화 신명난민요 맥간공예 디지털카메라 슈가크레프트 불교한문 한국무용 도자기 공예 천연염색 유식불교의 이해 재미있는 한시풀이이야기 통기타교실	(02)720-1309
연화사 문화센터	요가 라인댄스 모듬북 어린이 요가 포크아트 규방공예 천연비누만들기 난타 단소 풍물 등	(02)962-6186
봉은사	사찰음식 수험생 건강 특강 사진교실 노래교실 다도	(02)3218-4800
진관사	오카리나(초등부 · 가족반) 사찰음식반 풍물 기타반 다도 역사 교육 강좌	(02)359-8410
길상사	서예 불화 다도 꽃꽂이	(02)3672-5945
능인선원	꽃꽂이 한국무용 영어회화 서예 단청 불화	(02)571-2988
전국비구니회관	규방공예 천연염색 민화 다도 비누화장품만들기 사찰음식 디지털카메라 서양화 범패소리명상 도자기 서예반	(02)3411-8103
국제선센터	아빠와함께만드는사찰요리 역사문화기행 사물놀이	(02)2650-2200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서각반 전각반 불교문화답사반 불교문화강좌반 전통손비누반 생활자수반	(055)382-1001
대구 불교대 보현사	다도반 한지 그림공예반	(053)431-5400
부산 홍법사	요가 까딱춤 가야금	(051)508-0345
부산 삼광사	한문학교 다도대학 서예교실	(051)808-7111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 주 횡용 용수암)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부 장 정무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무불.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신나는 여름 방학 사찰로 Go… 어린이 캠프 풍성

'비로자나…' …영어 담마 캠프
쌍계사 … 한문학당 교실
108배, 명상 등 다채로워

여름방학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부모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사찰과 단체에서는 방학을 맞아 영어캠프, 수련법회, 한문학교 등 다양한 체험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산사에서 자연과 맘껏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캠프. 자연 속에서 영어 수업이 함께 진행돼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비로자나국제선원이 매년 여름마다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8월 3~6일 '영어 담마캠프'를 연다. 'Being joyful' 즐거운 아이되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행사는 영어연극, 명상, 물놀이,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전국 사찰 및 단체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여름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청계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해남 대흥사는 8월 3~6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일상회화부터 불교영어단어, 외국대학의 토론방식, 문법, 네이티브들의 표현법들을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폴리나 리피나를 비롯해 뉴질랜드 유학생 및 원어민 교사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수준 높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자소학' '법구경' '명심보감' 등을 배울 수 있는 한문학당 교실도 마련돼 있다. 하동 쌍계사는 7월 26~31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학당 교실을 개최한다. 아이들이 한문에 흥미를 갖고 프로그램 참가 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문장해석법 등 다양한 한문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리산역사탐방, 걷기명상, 차명상 등 문화와 산사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전국 사찰 및 단체 여름방학 캠프 일정

사찰및기관	행 사	프로그램	대 상	일 시	참가비	연락처(접수)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담마캠프	영어연극, 명상, 물놀이, 보물찾기 등	초등학생	8월 3~6일	25만원	(02)6012-1731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연꽃어린이 청소년연합캠프	사찰음식체험, 법회, 인성개발프로그램 등	초등학생 및 중고생	7월 30일~8월 3일	5만원	(02)738-7860
용주사	내 마음 보물을 찾는 숲속명상	사찰예절 배우기, 레크리에이션, 용건릉 탐방 등	초등 4~6학년	7월 27~29일	8만원	(031)234-0040
보장사	어린이 캠프	예불, 산사체험, 참선, 찬불가 율동 등	초등학생	7월 28~29일	문의	(031)674-6172
홍법사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	물놀이, 캠핑 등	초등학생	7월 21~23일	5만5천원	(051)864-4589
범어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물놀이, 캠핑 등	초등학생	7월 23~25일 7월 26~28일 7월 29~31일	5만원	(051)508-3122~5
쌍계사	어린이 한문학당	한문교육, 지리산역사탐방, 쌍계사 탐방 등	초등 4~6학년	7월 26~31일	15만원	(055)883-1901
통도사	어린이 여름수련법회	통도사 탐방, 예불, 명상, 108배, 퀴즈대회, 물놀이 등	초등학생 중고등생	7월 30일~8월 1일 8월 4~6일	문의	(055)384-7085
은해사	은빛여행 여름수련회	여름 캠프	초등학생 및 중고생	7월 20~22일 7월 23~25일	5만원	(054)335-3318~9
화엄사	청소년 여름캠프	놀이 한마당, 숲길 걷기, 대형 사불 만들기	중고생	7월 26~28일	8만원	(061)782-7600
대흥사	영어 템플스테이	영어예불, 영어 사찰 안내, 영어 대회, 영어 토론 등	초등 4학년~고등생	8월 3~6일	10만원	(061)535-5775
미황사	미황사 한문학당	한문교육, 숲 체험, 별자리탐방, 탁본체험, 바다체험 등	초등 4~6학년	7월 22~29일 8월 1~8일	30만원	(061)533-3521
참좋은 우리절	어린이여름불교문화학교	생태마을답사, 사찰음식만들기, 티셔츠 만들기 등	초등학생	7월 27~30일	4만원	(063)236-6633

미황사도 7월 22~29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위한 한문수업을 진행한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직접 강의를 하며, 숲 체험, 땅 끝 바다체험, 달마산 산행 등 다양한 자연탐방 시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사찰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7월 30일~8월 3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연꽃어린이·청소년 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청소년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체험·문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산 홍법사, 범어사, 통도사, 화계사 등 사찰에서는 예불, 108배, 포행, 다도, 법문 등 사찰예절과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교리경시대회, '나란다 축제'로 확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8~9일 전국서 개최

일반부 신설… 가족 참여 유도
체험마당 통해 불교문화 전해
8월 10일까지 축제 원서 접수

청소년, 군장병들의 불교지식 함양을 위해 열리는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개편된다. 대회 명칭도 '나란다 축제'로 바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6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 확대·개편된 '제4회 나란다축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 등 3개 마당으로 꾸며진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기존 초등학생 대상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9월 8일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오전 11시 일반부, 오후 2시 30분 초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부는 팀별 퀴즈대회 형식으로 이뤄지며, 사찰 및 가족단위 등 3인 1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팀 구성원은 반드시 2세대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장학후원금 1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일반부 주요 교재는 〈부처님 생애〉와 〈문제풀이 불교 내비게이션〉이며, 초등부는 〈어린이 법요집〉, 〈우리들의 부처님〉 등이다.

중·고등학생와 군장병에 대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9월 8일과 9일 전국에 지정된 각 고사장에 열린다. 중·고등부는 중등부 40문항, 고등부 45문항이 출제되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출제 범위는 〈청소년 불교 입문〉과 〈문제풀이 불교 내비게인션〉을 주요교재로 불교 교리, 불교역사, 불교신행 등에서 출제된다.



지난해 열린 불교 교리 경시대회. 초등부문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있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군장병 부문은 9일 육·해·공군 전국 군법당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서술형 포함 총 45문항이 출제되며, 입상자에게는 장학금·포상휴가증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린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은 불교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설치될 예정이며. 참가 대중을 위한 전통 먹거리 마당도 마련된다.

초·중·고등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백만 원이 수여되며, 군장병 대상에게는 조계종총무원장상과 장학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일반부 대상자에게는 3백만 원의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제4회 나란다축제 참가 접수는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행 소식

불교상담개발원 특별강좌 개설

불교상담개발원이 'MBTI 성격유형과 수행 안내 및 상담' 전문가 과정 특강을 실시한다. 강연은 7월 6일~8월 10일 오후 3~5시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이경애 이경애심리상담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8만원. (02)737-7378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 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가 7월 7일~9월 15일 제26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강연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진행되며,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불교문화 등 불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수료 시,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선발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되며 조계종 교육원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연수교육 인증 과정이다. (02)722-2206

천수경으로 풀어보는 생활불교 교실

국제선센터는 생활 속 실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7월 11일~8월 29일 매주 수요일마다 '천수경으로 풀어보는 생활불교' 강좌를 운영한다. 강의는 국제선센터 총무국장 도일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체화하도록 돕는 실참 프로그램이다. 참가비 5만원. (02)2650-2200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어르신 취업 원하면 불교 복지관 찾으세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현황

현재 노인의 3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취업노인의 12.9%가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6월 21일 발표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많다. 그러나 막상 새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인근 불교계 노인복지기관을 찾아가보자. 노인일자리 · 재취업사업과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지역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어르신들은 6~7개월간 참여해 월평균 20~3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주로 급식도우미, 도시락배달, 환경미화도우미, 경로당 강의활동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주묵)은 동화구연가, 노인학대예방캠페인교육,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인안심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형일자리 사업인 동화구연가 일자리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파견돼 일을 하는 것으로 업무 만족도가 높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스쿨존교통지원, 영유아보육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불교계 노인복지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 재취업사업과 취업훈련을 지원한다. 왼쪽부터 ①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노인취업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취업아카데미 ②서울노인복지센터 북카페 '삼가연정'에 취업한 실버바리스타 ③안양시니어클럽의 국수전문점 '잔치하는날' ④종로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재마루프로그램 '동화구연반'

일자리사업, 매월 20만원 소득
시장형, 수익 따라 소득 분배
단순노동직 편중은 문제 있어
고학력층 위한 직종 개발 절실

어르신들이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거나 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북카페 삼가연정, 노인용품점 은빛행복가게, 설문조사기관 탑리서치를 운영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센터내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실버바리스타, 설문조사원, 광고모델, 경비주차원 등 직종훈련을 받은 뒤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설문조사원 사업인 '탑리서치(Top research)'는 어르신이 국가진행설문조사 등 사회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편이다.

이밖에 복지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 경비원, 주차 · 건물관리원, 운전원, 상품배달원 등 직종으로의 취업을 돕고 있다.

이렇듯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취업 욕구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만 일자리 절반 이상이 단순노동직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직종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임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과장은 "2010년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 7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노동직 보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고 자기발전과 여가활용이 가능한 일을 선호할 것"이라며 "현재 구인직종의 절반 이상이 단순노동직에 편중돼 있는데 고령자취업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배우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취미로 난(蘭)을 키운 어르신을 풍욱란 전문가로 양성 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지만 재취업 희망자들도 눈을 낮추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일이나 직위만 생각하다보면 재취업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주임 과장은 "서비스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서비스직을 찾거나 경비 · 주차관리업무를 관리직으로 착각하고 입주자들과 다투는 분들을 봤다"며 "직종에 필요한 소양과 적성을 파악한 뒤 그 직업이 자신과 잘 맞는지 고려해 선택해야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기 관 명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원 서비스 내용	전 화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적응 및 직무교육	(02)735-1919
종로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02)3210-0237
강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02)996-9963
광진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02)462-7770
성북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02)924-9433
은평고령자취업알선센터	상담 및 취업알선	(02)385-8715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스쿨존교통지원사업, 영유아보육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	(02)742-9501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내거리환경조성, 교통질서계도, 노인학대예방캠페인 실시 등	(02)581-7992
남양주시노인복지관(경기)	문화공연팀(수화공연, 민요공연, 하모니카), 그루터기(도서관지원팀), 학교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031)573-6598
남양주시니어클럽(경기)	전통제과제조판매,재활용사업, 두부제조판매사업 등	(031)575-6080
서호노인복지관(경기)	1,3세대 교육(구연동화, 스포츠댄스, 한자 등) 지원 등	(031)291-0911
낙산사복지재단(강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	(033)672-7303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충북)	단양문화재 지킴이사업, 복지도우미 파견, 실버도우미파견 등	(043)423-2828
대전서구노인복지관(대전)	여가활동지도 강사파견, 문화해설가 파견 등	(043)488-6297
금강노인종합복지관(경북)	강사파견사업, 학습도우미 사업	(055)221-8445
개금종합사회복지관(부산)	IT지킴이, 교육강사, 노인웃음지킴이, 재가노인지킴이, 어린이 유희환경 지킴이	(051)893-5034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	복지관 내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화단가꾸기 등	(055)636-0303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전북)	학교지킴이 활동 및 환경미화도우미, 경로당 및 노인여가시설 강의활동, 정서서비스, 외출 행정업무 대행등 서비스 제공	(063)563-1111
의성군노인복지관(경북)	민원업무대행, 말벗지원, 병원동행서비스지원 등	(054)861-1377
중구노인복지관(울산)	교육강사파견사업, 독거노인돌봄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052)707-0770

노인취업준비요령 10가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자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과거에 집착해 대접받기를 바라지말자
연장자로서 매사에 모범을 보이자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자
대화로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자
권위의식을 내세우기 보다는 이해하고 협조하는 지혜로움을 보이자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갖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제공)

우리복지관 주력사업은 이것 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만남 프로젝트 '최고의 사랑'

짝도 만나고 재능도 기부하세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은 포크댄스를 배우며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공연을 하는 재능기부도 펼친다.

본지는 복지관 이용자들과 종사자들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자 불교계 복지관을 한 곳씩 선정해 그곳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발굴 소개하는 '지금 우리복지관은 이것이 뜬다'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매주 금요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에는 잘 차려 입은 어르신들로 붐빈다.

복지관 세미나실에서 60세 이상의 남 · 녀 어르신 각 15명씩 30명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레크리에이션과 게임을 즐기고 매주 포크댄스를 배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안에서 어른으로 지켜왔던 점잖음은 잠시 접어둔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신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사회가 점점 개방되고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이성교제 문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문제로 자리잡았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문제 현상에 관심을 기울여 4월 6일~6월 29일 13주간 '착한만남 프로젝트 최고의 사랑'을 진행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최고의 사랑'은 한(single) 어르신을 위한 건전한 이성교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재능기부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정서적 ·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프로그램은 △관계형성 △환상의 궁합 △실버 미팅 △포크댄스 △한 사랑을 위한 마음여행(남이섬) 등으로 구성된다. 관계형성 프로그램시간에 어르신들은 개인유형검사(MBTI)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과 맞는 짝을 찾아보고 커플매니저를 통해 실버미팅도 한다. 또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성(性)교육, 에티켓, 이미지메이킹 교육도 받는다.

참여 어르신들이 매주 포크댄스를 배우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해 포크댄스 장기자랑을 선보인다.

건전한 만남의 장 '인기'
포크댄스로 재능기부
8월 24일까지 2기 모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싱글미팅때 결혼한 커플이 생길 정도로 호응이 좋아 프로그램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이 생길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최고의 사랑' 2기 어르신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75세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상 독거노인이며, 모집인원은 남녀 각 15명, 모두 30명이다. 모집기간은 7월 9일~8월 24일이다. (02)466-6242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진행

10일, '불교적 영성과 복지' 주제로 복지포럼 열어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13~27일 '미운정 고운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진행한다.

결혼한 부부 불자 및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2~6시 전법회관 6층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관계 위기 극복 방법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는 여행 △소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는 한가족 △불교관점에서 바라본 부모-자녀 관계 △건강가정 헌법 만들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재단은 7월 10일 오후 3~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불교적 영성과 복지'를 주제로 2012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과)가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을, 권경임 대표(복지영성연구소)가 '불교적 관점에서의 영성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23-5011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4일 조계종 국제회의장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자살과 관련한 세미나가 마련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의헌 연세로뎀 정신과 원장이 '자살의 정신의학적 측면'을, 강이영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위기상담 특별위원장이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을, 이영의 강원대 교수가 '자살의 인문철학적 측면'을,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위험 평가 및 개입'을 발표한다.

일면 스님은 "우리나라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3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2012년 동산불교대학 41기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끝없는 열정
신행·교육·포교의 전문도량 동산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30년 역사와 그 바탕으로 21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토요반(매주 토요일 오후6시) / 목요반(매주 목요일 오후2시) / 통신반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무진장 대종사(본대학 학장)
김상현 교수 김형준 교수
김호귀 교수 묘 주 스님
박 종 교수 보 각 스님
윤열수 교수 정병조 교수
정 엄 스님 종 석 스님
주명철 교수 차차석 교수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활 안 스님

모집인원(불교학과) 180명(토요반·목요반·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2012년 7월 2일(월) ~ 2012년 8월 11일(토)

입학일시(불교학과) 8월11일(토)오후 5시(동산불교회관)개강

9월 개강학과

• **불 교 다 도 학 과** (3년) _ **9월 4일**(매주-화, 오후 2시) **박희준 교수**
•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2시) **정산 스님**
• **불 교 미 술 학 과** (3년) _ **9월 6일**(매주-목, 오전 10시 30분) **법인 스님**
• **불 교 한 문 학 과** (2년)(정규,통신) _ **9월 6일**(매주-목, 오후 7시) **만춘 스님**
• **동산의식범패반** (2년) _ **9월 5일**(매주-수, 오후 3시) **인각 스님**
• **동산한글의식반** (2년) _ **9월 8일**(매주-토, 오후 2시) **문종순 법사, 만춘 스님**

원서교부처·본대학 사무처 | ☎ 02)732-1206~8 전송 02)732-1207

※ **특전사항** : ①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를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②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하사관, 장교)는 전액면제교육
③ 일반군인 입학금 면제, 수업료 50% 할인함.

불교교육 전범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

“삶의 고통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

BBS, ‘행복한 미소’ 진행자 성전 스님

대한불교진흥원이 6월 27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다보법회를 열었다. 이번 법회는 BBS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 진행자 성전 스님이 강연에 나서 ‘나눔,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강연했다. 성전 스님은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지 못해서이다”라며 “자비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이 6월 27일 진행한 다보법회에서 성전 스님은 “자비심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작은 실천들이 삶을 변화시켜
큰 것만 이루려하면 안돼
잘 사는 것은 현재가 행복한 것

삶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현상
화를 깃털처럼 날려버려야
지금 사랑하며, 삶의 주인되자

행복의 출발은 작은 변화서부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되면 내일하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무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각자 쓰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습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작물을 기르면, 그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내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큰 것을 이루기는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행복하다고 10번 말하기, 집 앞 쓸기,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조금씩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삶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은 큰 일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실천하다보면 삶이 물 흘러가듯 재밌어 집니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굉장히 큰 것만 말하려 합니다. 눈에 띠는 것만 이루고 살려하면 당연히 삶은 고달프게 됩니다.

삶은 힘든 삶, 편안한 삶이 따로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삶이고,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든 삶입니다. 사는 게 재밌지 않으면 삶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자비심 갖고 지혜롭게 살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자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자비심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금방 지칩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한 성전 스님의 강연에 열중하고 있는 청중들의 분위기가 자못 진지하다.

자비는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일체 분별이 끊어진 겁니다. 지혜는 자비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하나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삶이 훨씬 의미 있고 편안해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는 순간이 모두 장애처럼 느껴집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삶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실을 받아들으면 고통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고통이 내 안에서 해소되면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질병, 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병이 찾아오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신의 병을 알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병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병에 마음의 병을 얹지 말아야 합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면 그 병을 마음으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병이 찾아와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중 피할 수 없는 문제가 70~80% 정도입니다. 특히 비난, 비판 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는 내 마음에 비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라만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싱겁고 인간적 풍미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풍미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이뤄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궁핍합니다.” “맞습니다. 소유물은 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이뤄져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하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육체 · 정신 · 언어적 악을 저지르지 말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늘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는 교묘한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일단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대변합니다. 화를 내면 얼굴도 못생겨집니다.

삶에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건성으로 살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말에 조심성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도공입니다. 정성스럽게 예쁜 마음의 그릇을 빚어야 합니다. 삶을 정성껏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발심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화가 태산처럼 밀려와도 깃털처럼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잠이 들면 그 다음날도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삶에 생기가 없어지면 짜증과 권태감이 밀려옵니다. 인간관계에도 엉망이 됩니다. 항상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여러면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화로 상대방을 제압하면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웃고 인자한 마음을 내면 세상은 극락이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사랑해라

세 번째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헤어짐을 겪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만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친구, 연인이 영원히 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잘해 줘야지’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유리는 깨어지고, 물을 흐르고, 바람은 부는 것이 속성입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나면 죽습니다. 본인이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다워 집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집을 사면 행복하겠다’ ‘저 차를 사면 행복하겠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숨을 참으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이 커다란 행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머무르게 하십시오. 고통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닌 우 그냥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것이 행복이다.

삶의 고통은 언제든지 온다.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머물게 하라. 고통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보통의 가치는 놀라운 가치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행복이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이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멋진 주인공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붓다북과 인터넷 서점에서 법화경 사경을 사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으로 붓펜을 드립니다.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지퍼: 2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가죽〉 〈가죽·지퍼〉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도서, 음반, 용품 전문쇼핑몰



6월 23일 열린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사진아래 가운데)의 제1주제 발표 장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오른쪽)과 중앙승가대교수 미산 스님(왼쪽)이 해주 스님과 함께 선교통섭의 가르침을 설했다. 사진 위쪽은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공안선의 근원 인도 교설 쇄신서 발전

동국대 종학연구소,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서 선과 교학 관계 조명

동서양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과 불교교학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가 주최한 '간화선과 불교교학' 국제학술대회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교리 안에 담겨진 간화선의 요소와 간화선 안의 다른 불교교학적 요소를 탐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며 간화선으로 대변되는 선과 불교교학과의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국내외 30여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의 활로, 간화선에 있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수불 스님은 "스마트 시대 권위와 신비주의로는 대중들의 신망을 얻기 힘들다"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행법은 끝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현재 불교계의 수행풍토를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선지식이 화두를 걸어 주고 의단이 타파되는 시스템만 갖추면 간화선으로 불교 대중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학자들은 불교교학과 간화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간화선과 교학 수행은 불일부이(不一不二)

학술대회에서 국내 학자들은 불교학의 실천행이 간화선 화두참구의 실천행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화엄학을 전공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은 "간화선의 화두참구와 화엄수행의 보현관행이 유사함을 보인다"며 "해탈법문이 공안이라면 보현관행은 활구화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은 어떤 일이든 화두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보현관행은 내면의 깨달음과 외부의 발현이 함께, 하나여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화두가 참구되는 경지와 관행이 이뤄지는 경지가 무애자재한 부처행으로 이 경지는 선과 교가 불일부이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식학을 전공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간화선을 통해 마음 본래자리를 직시함은 일상 속에서 우리 의식이 마음 표층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의 아뢰야식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선을 전공한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는 "중국불교의 특징이 불성과 반야의 조화"라며 "조사선의 핵심이 바로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천태학과 간화선의 구조적인 연관성에 대해 "화두가 실상을 바로보고 천태가 중도를 깨닫게 함을 이끄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중관학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간화선이 불교적인 수행이 되기 위해선 지혜가 수반돼야 하고 그 지혜는 공의 지혜, 해체의 지혜, 중도의 지혜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학자들 공안수행 새 시각 제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모레이 비앤대학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의 발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는 1714년 72책으로 완성된 중국의 〈종감법림(宗鑑法林)〉에서 1700공안으로 통용되던 기존의 공안이 2720개로 크게 늘어 편찬됐음을 공개했다.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는 "이같은 사실은 당송 이후에도 공안이 고착되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졌음을 반증한다"며 "동시에 지금도 새로운 공안이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태국 마하출라랑콘자위달라야대학 프라마하 노파돌 사수타 스님도 '상좌부 불교에서의 공안에 대한 견해'를 통해 중국 임제종의 공안수행법에 해당하는 수행법이 초기경전, 주석서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사수타 스님은 빨리어로 된 〈행복경(大吉祥經)〉에 기록된 상호작용에서 지혜로서의 공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대 태국 스님 중 일부가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먹는다' 등의 공안 수행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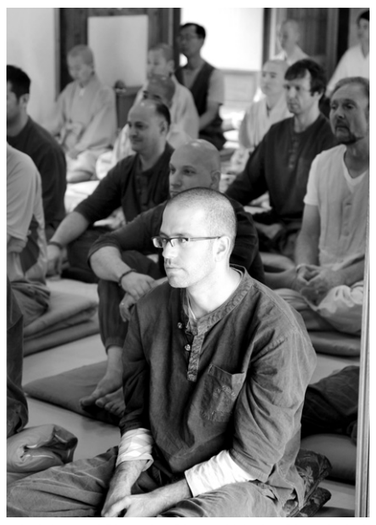
상좌부불교를 전공한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태국 스님들의 수행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수행법이어 공안수행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이와모토 아케미 스즈키박물관 주임연구원은 4세기 인도대승불교 초기유가행파 문헌인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분석을 통해 공안선의 근원이 인도불교에 있음을 밝혔다.

아케미 연구원은 "대승불교에서는 전통적인 교설을 쇄신하기 위해 공안선과 같이 궁극의 지혜를 중시한 수행법을 발전시켰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 명예원장은 "한국에서 간화선과 교학은 괴리돼 있었다. 교의 가르침을 방법론상에서 선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은 "항상 깨어있음이 간화선의 핵심으로 그 경지에서 교학과 선은 통섭한다"고 말했다.



세계 불교석학들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마곡사에서 간화선을 실참했다.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실참현장

"숨셔야지 하며 숨쉬는 바보 없듯이 화두 참구도 깜깜함에서 한발을…"

세계 각지의 불교 석학들이 태화산 자락 마곡사에서 화두 삼매에 빠져들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마곡사 무쌍선원에서 개최한 간화선 실참수행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석학 30여 명과 국제불교학교 스님 50여명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권위자들은 간화선 실참을 통해 한국의 간화선을 체험하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일주일 간의 선수행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이들을 지도했다. 매일 아침 9시 간화선 화두법문을 시작으로 수행은 철저한 조사어록에 의해 진행됐다. 방선(放禪) 시간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오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각자의 간화선 수행이 진행됐다. 매일 저녁에는 소참법문이 내려져 각 경계에서의 극복방법과 화두타파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돼기도 했다.

6월 27일 수불 스님은 화두법문에서 타협함과 물러남 없는 매진을 강조했다. 수불 스님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는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손가락을 팅기며 법문을 시작했다.

수불 스님은 "내가 하는 것과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며 손가락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음입니까?"라고 대중에게 물음을 던졌다.

스님은 "숨셔야지 숨셔야지 하며 숨쉬는 바보는 세상에 없다"며 "화두참구도 마찬가지다. 한번 보고 듣고 느끼면 됐다. 생각할 것 없이 깜깜함에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냥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저런 생각을 갖는 순간을 넘어 화두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스승의 말이었다. 수불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석 대중은 화두참구에 들어갔다. 오전 큰 방에서 모여 참선한 대중들은 오후 각자의 방과 마루 등에서 자유로이 수행정진했다.

간화선 실참 과정에 늘어난 참가자들이 보여주듯 간화선 실참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에지 슈하라(Eiji Suhara) 박사(미국 피츠버그대)는 "한국에서 5년 가량 공부하고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선과 일본선의 관계에 대해 공부했지만 간화선을 실참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에지 슈하라 박사는 "일본 공안은 스승과 제자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반면 간화선의 화두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국사와 일본 도겐선사의 12·13세기 중국선 수용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에지 슈하라 박사는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게 웃었다.

일본불교통사를 공부하고 있는 마크 슈마쳐 박사(Mark schumacher)도 "보리달마로 시작된 선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이후 발전된 차이를 발견했다"며 "어렵지만 간화선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 만의 특색을 이해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마곡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영문 홈페이지 수준 미달"

국보 범종을 천연기념물로…최희섭 교수 지적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해 2만 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불교를 알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영문 홈페이지 대부분이 템플스테이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용어조차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희섭 한국번역학회장(전주대 교수)은 7월 2일 양양 휴휴암에서 열린 2012 하기 교수불자대회 '불교문화유산의 영어 번역 오류' 논문을 통해 "조계종 교구본사 25곳과 직영사찰 6곳 중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밝힌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 교구본사 사찰은 용주사, 수덕사, 직지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 백양사, 송광사, 관음사, 선운사 등 12개다. 이외 교구본사는 영어 안내가 전무하다.

최 교수는 "대부분 무늬만 영어 홈페이지이거나 아니면 템플스테이에 관한 내용뿐"이라며 "그나마 운영 중인 조계종의 종단 영어 홈페이지조차 최상위 메뉴부터 번역 오류가 있는 등 외국인이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덕사 영문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요구하는데 약관이 한글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실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종특별교구도 영어 홈페이지는 있으나 접속이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이러한 오류가 불교문화재 안내판 및 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불교문화재의 경우도 원천텍스트가 아예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국보가 3점 있는 법주사의 불교문화재 안내판 등 일부 사찰의 불교문화재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도 하다"고 각 사찰 별 문화재 1점 씩을 예를 들었다.

최 교수가 예로 든 문화재 중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의 경우 'Natural Monument' 즉 '천연기념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유산 영어번역도 직역을 함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불교문화 이해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국보 제212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youjebosalmanhaengsuneungeomgyeong'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한글 경전 이름도 띄어쓰기를 해야 이해가 갈 정도인데 영문은 외국인이 이해는 커녕 읽기조차 힘들 정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주석에도 능엄경인 'Suramagma sutra'로 설명했는데 이는 어떤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외국인이 불경인지 알 수 없다. 불교 경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포교의 대상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교문화유산의 바른 번역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불교계와 관련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동국대 HK연구단 연구성과 발표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이 첫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HK연구단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고유성의 탐색'을 주제로 오는 7월 5일 1단계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인석 HK연구교수의 '도륜(道倫)의유식(唯識) 오종성설(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 이종수 HK연구교수의 '조선시대 연등회의 존폐와 그 문화적 전승', 김영진 HK연구교수의 '무량수경 신라주석에 보이는 하늘관념의 변용과 업설', 이자랑 HK연구교수의 '제정일치적 천륭(天降)관념의 신라적 변용', 김기종 HK연구교수의 '신라시대 불교금석문에 나타난 변체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 고승학 HK연구교수의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원력(願力)의 의미'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편, 동국대 HK연구단은 2011년 8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 선정 이후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주제로 2014년 8월까지 1단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제61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최근 '불교학보' 제61집을 펴냈다.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사상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논문집에는 △승랑과 승조-생애와 사상, 영향과 극복에 대한 재조명(김성철)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식 법상의 지형도-원측 유식과 규기 유식의 동처와 부동처(고영섭) △동아시아 화엄사상에서 의상과 법장의 위상(김천학) △제국에 맞서기: 니시다와 만해(허우성) 등 논문이 실렸다.

또 '불교교학' 분야 논문으로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유형 연구-빠알리니까야를 중심으로(정준영) △'아비달마디파'에서의 비유자와 경량부(2)(권오민) △김시습의 '잡저(雜著)' 연구(이대형) 등이 실렸으며, '불교사학' 분야 논문으로 △석가탑 발견 묵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최연식)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31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31호를 펴냈다. 이번호에는 발표논문으로 △불교의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양승규) △고려에 전래된 '개보장(開寶藏)'에 관한 연구(유부현) △시체를 매장했던 승려들(김성순) 등 3편이 실려 있다.

또 투고 논문으로는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한지연) △'종경록'의 관심석(박인석) △한·중 선승의 산거시(山居詩) 비교(김상일) △한국 전통가사의 장식과 '일월오악도'의 관계성 고찰(자현 스님) △생존지속 욕망에 대한 불교적 검토(조준호) △오온설과 사상체질론을 통해 본 인간 이해(박서연·박성식) 등 7편이 실려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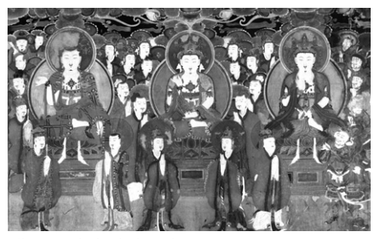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6월 29일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등 8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불교 관련 문화재는 5건이다.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는 천장(天藏)보살, 지지(持地)보살, 지장보살의 세 보살을 표현한 의식용 불화다. 화기에서는 대시주가 18세기 초 대표적인 화승인 의균 스님임을 말하고 있다. 당시 동화사 불화 외에 경주나 창녕 등 타지역의 불화가 함께 제작됐으며 이를 통해 동화사가 인근 화사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는 1728년(영조 4) 동화사 대웅전에 모실 삼단불화를 조성할 때 삼장보살도와 함께 중단불화로 조성됐다. 화기에서는 1728년(영조 4)에 의균, 명찰 스님 등이 불화를 조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진실주집(眞實珠集)'은 1462년(세조 8)에 목판으로 새긴 간경도감판을 10년 뒤인 1472년(성종 3) 6월에 후쇄(後刷)한 것이다. 진실주집에는 승하한 세조·예종의 명복과 정희대왕대비·성종·공혜왕후의 장수를 빌기 위한 것으로 발문 등을 통해 조선 초기 목판인쇄기술의 발달과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왕실의 불교신앙을 알 수 있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세조~성종 연간(1455~1494)에 을해자(乙亥字) 중자(中字)와 소자(小字)를 사용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15세기 왕실을 중심으로 간행된 불경 표지 장황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장승법수(藏乘法數)'는 대장경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차례로 배열해 찾기 편하고 이해가 쉽도록 편찬한 일종의 불교학 사전이다. 원나라 간본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에 번각한 것으로 불교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이밖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불랑기자포(佛狼機子砲)'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등 총 8건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기초과정 강좌 개설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용)은 7월 둘째 주부터 종로구 익선동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초보자를 위한 불교기초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기초과정 강좌는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11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30분~8시까지 진행되는 수요일반은 한국불교연구원 상임이사인 임동주 박사가 지도하며, 7월 13일부터 1년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5시까지 진행되는 금요일반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종화 박사가 담당한다.

교재는 불연 이기영 박사가 저술한 〈불교개론 강의〉로 월 3만원이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광주 어등산, 16개 사찰 있던 불교성지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발간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어등산 서봉리에 있는 서봉사 절터를 마을주민 김수상(75)씨가 가리키고 있다.

광주지역 도심이전과 함께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을 앞둔 광주 어등산 일대가 16개의 사찰이 존재했던 불교성지로 밝혀졌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의 연구로, 광주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거대한 사찰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선암사지를 비롯한 16개 절터와 불교전설, 불교지명에 대한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이중표, 류복현, 정의행)'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선암동 3층 석탑이 있는 선암사지를 비롯해, 여둔사지, 천운사지, 보광사지, 운수사지, 서봉사지 등 마음이름과 사찰이름이 같이 있는 절터를 확인하고, 절터로 추정되는 박호리 절터, 등림리 절터, 장수리 절터에 대한 답사내용과 스님, 마을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발표했다.

또한 어등산 일대의 불교신앙과 불교지명, 불교문화와 옛 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었다.

조사를 담당한 류복현(향토사가)씨는 "어등산의 불교유적 가운데 현존하는 전통사찰은 천운사, 보광사, 정광사, 법륜사가 있지만 대부분 외지로 모두 옮겨지거나 없어졌다"며 "어등산을 떠난 절터에는 주춧돌이나 석축 그리고 노거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그나마 최근 어등산 개발로 흔적마저 없어지고 있어 아쉬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정의행(시민의 소리 스토리텔링사업단 기획단장)씨도 "어등산은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의 명산이다. 어등산에는 영둔사, 선암사터의 석탑이 남아 있어, 일찍이 불교문화의 산실이었다"라고 밝혔다.

어등산은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를 대표하는 산으로, 그 주변에 황룡강과 극락강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어등산에는 많은 사찰과 절터, 유무형의 문화재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도 마을 이름이 절골 또는 사동(寺洞)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어등산 일대는 오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400억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골프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낸 지용현 신도회장은 "어등산의 규모 있는 절골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등산은 그 자체가 '불교 덩어리'"라며 "지금 어등산은 찢기고 헤어져 유서 깊은 문화적 원형들이 사라지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화원형을 지키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발간 의미를 말했다. 지용현 회장은 이어 "광주는 유래 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 어등산 일대를 잘 정리하여 광주를 대표할 만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악 배우니, 한국 더 좋아져"



해뜨는다문화복지센터는 6월 23일 5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한국 및 각 나라의 전통문화 공연을 펼쳤다.

광주지역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전통문화공연을 펼쳐 큰 관심을 모았다.

광주지역 불교 다문화단체인 사단법인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스님, 대광사 주지)는 지난 6월 23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50여 명의 다문화가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각 나라의 전통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다문화가족 회원들은 60분에 걸쳐 태국 전통노래와 춤, 태권무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아시아문화체험공간인 '아시아, 10cm 더'로,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토요 상설 공연이다.

행사를 준비한 총괄국장 동원 스님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생활을 하니, 훨씬 더 빠르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화관무를 선보인 룽파(태국, 39)씨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배우면서 한국문화의 오랜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광주지역 많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단체들이 신청하여 4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유일하게 불교단체로 선정되어 이날 공연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골 잔치 한마당

6월 28일 생태공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화합을 다지는 장이 마련됐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와 선운골 공동체는 6월 28일 선운사 유스호스텔 앞 생태공원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의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한마당 잔치에는 선운사 산내암자인 도솔암, 석상암, 동운암, 승가대학원의 스님들과 선운사 인근의 삼인마을과 석상마을,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협, 우체국, 파출소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선운골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일체감 조성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잔치 한마당은 족구,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던지기, 농구공 넣기, 림보, 2인3각, 과자따먹기등 초등학교 운동회를 연상하는 게임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푸짐한 음식과 함께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속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아래 상호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법만 스님은 "살기 좋고 편안한 선운골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 화엄사 스님들 통일쌀 모내기

화엄사 스님 20여 명과 기아자동차, 구례농민회 공동으로 통일쌀 재배 시작

스님과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모아 통일쌀 재배를 시작했다.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지난 6월 22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일대 농토에서 구례농민회(회장 김종옥)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배재정)과 함께 '통일쌀 보내기' 행사의 모내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엄사 우범 스님을 비롯해 스님 20여 명과 기아자동차 노조원 100여 명, 구례농민회, 구례여성농민회 회원 등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300여 평의 농지에서 직접 모심기 행사를 벌였다.

2007년부터 시작한 통일쌀 보내기는 화엄사에서 통일쌀 재배를 위한 농토 2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스님과 노동자, 농민들이 공동으로 '통일경작단'을 조직해 공동으로 경작 하고있다. 수확한 쌀 이익금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에게 보내고 있다.

화엄사는 지난 2007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상당의 통일쌀을 농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지원해 왔다. 2011년부터는 남북관계의 단절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일대에서 구례농민회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회원 등 200여 명이 '통일쌀 보내기' 행사의 모내기를 진행했다.

우범 스님은 "스님들이 지역의 농민들과 노동자들과 힘을 모아 공동경작을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쌀이 북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통일경작단은 이날 모내기 행사에 이어 가을에 벼베기 행사, 통일쌀을 화엄사 동안거 공양올리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 희묵 대사 추모 다례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내장사 의승병들과 유생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추모다례재가 6월 23일 정읍 내장사(주지 진서)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손홍록 선생 후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으로 이안해 큰 공을 세운 희묵 대사의 추모다례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선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일어선 의승군을 거론할 때는 물론이고 조선왕조실록의 수호와 보존을 이야기 할 때 희묵 스님의 행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희묵 스님의 역할과 의미를 선양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대중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법어에서 "희묵 스님은 오늘날의 내장사의 면모를 갖추게 하신분이다"며 "앞으로 희묵 대사와 충의사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좋은우리절, 신도교육기관 인가

전주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학장 회일)이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됐다.

6월 18일자로 정식 인가를 받은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은 "학습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를 모토로 지난 2006년 6개월 과정인 기초반으로 문을 연후 그동안 28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회일 스님은 "이번 인가를 계기로 지식으로써의 불법이 아니라 생활 속의 불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불자를 육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다"며 지역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전북도내에는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무주 불교대학에 이어 6번째로 불교대학이 문을 열었다.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에서는 1년 정규과정과 별도로 오는 9월 5일부터 원각경강설과 위빠사나, 사띠수행 특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KNN 부산 경남방송 '범어사 보제루' 왜곡방송 공식 사과

"범어사 보제루 불법공사 관련 KNN은 왜곡방송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라!"

KNN부산경남방송이 6월 23일 불자들의 공식항의를 받고 KNN 8시 뉴스아이에서 보도한 '범어사 보제루 재시공 불법공사'에 대해 왜곡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KNN이 보제루 공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공사"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부산 범어사 신도를 비롯한 부산 불교계 500여 명은 6월 25일 KNN을 방문해 이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前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은 KNN 사장실에서 이만수 사장, 김석환 부사장, 김병근 방송본부 보도국장과 만나 1시간가량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범어사 측은 "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건물 철거와 신축이 금지되어있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절차도 어겼다면, 어떻게 문화재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불이문 철거부분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있어 문화재청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동 설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수불 스님은 KNN정문 앞에서 신도들에게 "왜곡없는 공정 보도를 약속을 받았다. 사태수습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제루 공사 관계를 진행했던 정여 스님은 "범어사의 보제루 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공정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이 잘못된 제보에 있어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회의 내내 정문 밖에서 '화엄성중'을 외우며 결과를 기다리던 불자들은 환호로 답하며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자진 해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모두 함께 군포교 진흥"

전국의 군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정지계와 수행포교를 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6월 26일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에서 포살법회를 시작으로 3일간 하계수련회를 진행했다.

하계수련회는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입재식에 이어 포살법회로 진행됐다. 포살법회는 교구장 자광 스님, 부교구장 선일・심산 스님을 비롯해 전국 130여 명의 군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참군승들은 〈범망경〉을 낭송하며 자광 스님과 일문일답했다.

자광 스님은 "군부대 일선에서 포교활동을 하느냐 하안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오늘 포살을 하게 됐다. 오늘의 공덕을 바탕으로 허물을 벗어내고, 항상 청정함을 지키며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법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이후 해운대에 위치한 그린나래콘도에서는 수련회가 열렸다. 수련회에서는 육・해・공군별 모임으로 부대간 사찰운영 정보 교류 등이 진행됐으며 저녁에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27일에는 동백섬 산행 및 단결활동, 각 군별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음악회 통해 온정 나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원장 원범)는 6월 27일 화상전문 하나병원 1층 로비에서 '제 6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북 퍼포먼스와 장기자랑 등 환자와 병원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생명나눔의 이번 행사에서는 중증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을 위한 조직기증을 홍보하는 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장애인 회원과 선유도 나들이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는 6월 22일 직원을 포함한 장애인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전북 군산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철새조망대와 선유도를 여행하며 친목도모와 재활의지를 다졌다.

이번 나들이는 외부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 중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금강철새조망대 및 선유도 유람선 관람 등이 진행됐다.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이번 나들이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교육

6월 23일 부산불교회관 5층 교육관에서 한국사회복지회가 주최하고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여)가 주관한 제6회 지역주민사회복지교육이 열렸다.

협의회 회장 정여 스님은 "자원봉사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사상으로 우리의 이웃, 사회, 국가를 초월한 우주적인 사랑"이라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때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모 봉사 모습이 바로 자녀교육"

여만숙 여여선원 회장



"1992년 부루나포교원에서 불교경전 공부를 할 때, 보살은 보현행을 실천해야 된다는 스님 말씀을 듣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복지단체 성우원에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성우원 장애우들의 밝은 모습에 봉사의 참뜻을 느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 7개 불교계 봉사단체를 10년 넘게 이끌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여만숙 여여선원 회장〈사진〉이다.

여 회장은 "2003년 장애우들의 합창공연에 세 남매를 데리고 갔었는데 처음에는 장애우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순간 진정한 자녀교육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 회장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 여여선원에서 실시한 6개월 과정의 '호스피스 간병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면서 부터다. 여 회장은 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가장 바람직한 불자는 부처님 법 공부를 하고 복지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다음, 사회를 위해 행을 베푸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천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면서 느낀 점은 법공부를 한 신도들은 봉사함에 있어 그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 회장은, 회장 취임으로 더욱 바빠진 요즘 결혼한 큰 딸이 업무를 도와줘 든든하다며 웃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현대불교신문사 · 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길가에 도열한 부처님

불상은 간다라와 마투라 두 곳에서 그 형태적 기원을 보이지만 어느 것이나 깨달은 이가 가져야 할 초자연적인 모습과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애로운 스승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불교조각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32개의 특징(相)과 80개의 작은 특징(好)으로 설명된다. 불상은 스투파와 더불어 불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작용하였으며, 불교가 전파되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 형식적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사찰은 형식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 그것은 스투파가 중심이 되던 공간의 구조가 부처님을 모신 불전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A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진입로 변에 도열한 불상들은 분명 파격이다. 불상은 전각에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난 시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상이 꼭 건물 안에만 모셔지는 것은 아니다. 마애불도 있고 노천에 세운 불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상을 길가에 도열한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부처님이야 삼라만상에 상주해계시는데, 장소가 중요할 일이 무엇이냐고 할 수도 있고, 절에 오는 불자들을 맞이하는 불상들로 인해 절에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귀의례를 모시는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보는 분명 예경의 대상이며,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불상을 길가에 도열해 놓은 행위는 삼보에 대한 불경이며, 훼손이다.

이 절의 불상들이 길가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대만 카오슝의 불광사의 경우를 단순히 흉내낸 것도 문제이고, 예술성 없이 일정한 틀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불상의 제작과정도 문제이다. 불교의 전파경로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모(佛母)들의 예술성과 신앙심이 드러난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토함산 석굴암 부처님이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겠는가?

일정한 틀에서 찍어낸 불상
신심 · 예술성 찾아 볼 수 없어

사찰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이 절의 본래적 의도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역발상이 불교교리와 신앙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 변화는 있으되 그 변화가 사찰환경의 발전적 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한국사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더욱 분명히 하여 한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경상북도 A사찰의 진입로변에 도열된 불상



대만 불광상사의 도로변에 도열된 불상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초파일법문 “오늘은 당신네 생신”… 인간 사랑 가르침



성철 스님이 20대에 한 철 정진을 했다는 범어사 내원암 전경. 이곳에서 스님은 용성 스님을 만나기도 했다. 성철 큰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순례단의 순례객들은 6월 23일 범어사를 찾아 법회를 열고 내원암을 둘러보며 성철 스님의 자취를 느꼈다.

④ 부산 범어사

찜통더위가 내려 쬐는 6월 23일의 여름날, 백련문화재단과 불교인재원이 주최하는 ‘성철큰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순례단’이 부산 범어사를 향했다. 새벽 6시 30분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5시간을 달려 범어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대 성철 스님의 자취를 만날 수 있었다.

범어사는 화엄종(華嚴宗) 10찰 중 하나이며 일제강점기에는 31교구 본산의 하나였다. 〈삼국유사〉에는 678년(문무왕 18)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신승동국여지승〉에 의하면 금빛 나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정산(金井山)으로 이름 짓고 그곳에 사찰을 지어 범어사(梵魚寺)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보물 제4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 3층석탑(보물 250호), 당간지주(幢竿支柱), 일주문, 석등(石燈), 동·서 3층 석탑 등의 지방문화재가 있으며 이밖에 많은 전각·암자(庵子)·누(樓)·문 등이 있다. 의상대사를 비롯해 표훈(表訓)·낙안(樂安)·영원(靈源) 스님 등이 거쳐 갔다는 이곳에는 20대 성철 스님이 있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온 순례단 3백여명이 점심 공양 후 범어사 설법전에 앉았다. 이번 순례에는 범어사에 주석하고 있는 무비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스님이 강연을 맡은 데에는 성철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해인사 강원 시절 성철 스님이 백련암에서 내려오실 때면 시자 소임을 맡았다는 무비 스님. 사숙이기도 한 성철 스님을 모시며 각별한 인연을 유지했던 스님은 최근, 디스크 수술의 휴유증으로 4~5년 간 병석에 머물면서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테이프를 들었다.

성철 스님의 법문에 대해 최근까지 가장 깊이 공부한 스님이 선택한 법문은 ‘생신을 축하합니다’ 1986년 초파일 종정 법어다.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생략)’

무비 스님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인불사상에 근거해 ‘생신을 축하합니다’ 법문을 설명했다. “이 모두가 인불사상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존중하면서 살자는 뜻이며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는 뜻이 이 짧은 법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나갈 게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무비 스님 ‘생신을…’ 법문
‘사람이 부처다’ 강조
중생 눈높이 설법 탁월
용성스님과 일화도 흥미로워

무비 스님은 성철 스님이 중생의 근기 따라 법문하는 탁월한 설법가였다고 전한다. “스님께서는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에 맞게 말씀하시고 중년 장년 노년을 만나면 그 수준과 근기에 맞게 각각 법문하셨습니다. 근기 따라 상황 따라 인연 따라 다양한 가르침을 펼치셨지요. 성철 스님이 평생 ‘중도’를 설하셨다 또 연기를 말씀하셨다 혹은 공을 말씀하셨다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 짧은 법문에 스님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증명법사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용성 스님과 만난 인연을 얘기해 주었다. “일제시대였던 당시 용성 스님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난 후 범어사 내원암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내원암 선방에서 안거에 들었다고 합니다. 용성 스님은 그 무렵 누구를 보아도 스님이라 하지 않고 ‘선생’이라 불렀는데 손자인 성철 스님에게만은 ‘성철 수좌, 성철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용성 스님은 서울 대각사로 옮겨 가실 때 꼭 스님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스님은 부산역까지만 배웅하고 그 길로 금강산 마하연으로 급히 떠나버렸다고 한다. 원택 스님은 “스님은 당시 큰 스님을 시봉하는 것보다는 즉심즉불에 관심이 많았던 거 같다. 그래서 그 길로 금강산 마하연으로 정진을 하러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순례단은 스님이 한 철 정진했다는 범어사 내원암으로 향했다. 새롭게 불사를 거듭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일선원(第一 禪院)이라는 현판이 붙은 미륵전은 예전 선방 자리라고 하니 성철 스님은 아마도 이곳에서 공부했으리라 추측해 본다. 그렇게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했을 20대 스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

순례객들 역시 참배를 마치고 제일선원 주변을 걸어보기도 툇마루에 앉아 스님의 발자취를 느끼는 듯 조용히 눈을 감기도 하고 하늘을 보기도 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제 각각 스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그렇게 피 끓는 청춘에 구도의 길에 들어선 스님의 그 칼날 같은 기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사람이 곧 부처다…’ 그렇다. 세상은 물질에 휩싸이고 인심(人心)은 야박하기 그지없는 이 물질 문명이 만연한 세상 한 가운데 그 한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지고 여여해지지 않을까? ‘사람이 곧 부처다’ 법문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품어본다.

부산 범어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범어사 일주문



설법전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순례자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6)

기원정사에 세워진 2개의 아쇼까 석주

답사일행을 태운 버스는 부처님이 교화를 펼쳤던 꼬살라국의 수도 쉬라바스티로 향해서 달리고 있다. 쉬라바스티의 옛 이름은 사왓티이고 한역으로는 사위성이다. 그런가 하면 현장은 쉬라바스티를 실라벌실저국(室羅伐悉底國)이라고 음역했고, 고 이기영박사는 '실라벌'을 신라의 국호와 연관시켜 보기도 했다. 운전수에게 쉬라바스티 도착시간을 물어보니 밤 9시쯤이라고 말한다. 나는 일행을 위해 차내 마이크를 잡는다. 순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되고, 아쇼까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였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팔상록〉을 참고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다.

강의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조는 사람이 생긴다. 차창은 어느 새 캄캄하다. 시골길을 간간히 달리는 차들의 불빛만 지나치곤 할 뿐이다. 나는 고지식하게 강의를 계속한다. 그래도 양덕춘 교수는 녹음기를 들고 있고, 범선거사 부부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다. 강의하는 동안 문득 경봉 큰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큰스님께서는 진리의 말이 귀에 스치기만 해도 여래장에 들어가 결국에는 깨달음의 꽃을 피운다고 말씀했던 것이다. 2시간 동안 강의하고 나니 버스는 예상시각보다 빠르게 쉬라바스티 부근에 들어서고 있다. 1시간 정도 단축한 시간이다. 답사는 또 다시 내일 아침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할 것이다. 인도에 와서 가장 먼저 친숙해진 것이 있다면 안개와 먼지다. 그것들과 동행하면서 답사와 순례를 나섰다가 컴컴한 밤이 되면 숙소에 들곤 했던 것이다.

진리의 법륜상과 소 형상의 아쇼까왕 석주

현장이 순례를 왔을 때 사위성은 이미 황폐한 상태였던 것 같다. 〈대당서역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실라벌실저국은 주위가 6천여 리인데 성은 황폐하고 경계 또한 분명치 않다. 20여 리 되는 궁성 건물의 유적은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성 안에 주민은 살고 있다. 농작이 풍성하고 기후가 좋다. 풍속은 순박하고 학예에 열심이며 복업 짓는 데 힘쓰고 있다. 가람은 수백 채 있으나 무너진 곳이 대단히 많다. 승도는 적으며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天祠)는 1백여 군데이고 외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외도란 바라문교일 것이다. 가람이 수백 채이나 무너진 곳이 많다고 한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사위성에서의 불교는 벌써 기울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분제도를 불문율로 삼는 바라문교가 남녀평등과 신분타파를 주장하는 불교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왕도(王道)와 법도(法道)의 균형이 깨진 셈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왕도와 법도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두 길의 갈등은 여전한 것 같다. 전제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상생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쉬라바스티의 아쇼까왕 석주는 기원정사 동문 좌우에 있었다고 한다. 동문 좌우에 세운 독특한 형식은 인도 전역에 있어서 유일한 듯하다. 역시 〈대당서역기〉의 기록이다.

'동문 좌우에는 각기 높이 7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왼쪽 기둥은 그 끝에 고리모양이, 오른쪽 기둥 끝에는 소 형상이 조각돼 있다. 모두 아쇼까왕이 세운 것이다. 정사들은 붕괴된 채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인데 다만 한 벽돌건물만이 견고하게 홀로 남아 있다. 그 안에 불상이 있는데 여래가 33천에 올라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승군왕(勝軍王; 쁘라세나짓왕)이 조성한 것이다.'

동문 왼쪽에 세웠다는 석주의 형식이 특이하다. 고리모양이란 법륜상(法輪相)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같은 법륜상이 단순화되어 일원상으로 변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오른쪽의 석주 상단의 소 형상도 관심을 갖게 한다. 룸비니는 말, 사르나트와 바이샬리는 사자, 라즈기르는 코끼리를 조각하여 석주 상단에 얹혔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행은 기원정사로 간다. 예상한 대로 안개가 일행을 포근하게 맞이해 준다. 일행은 기원정사 유적지의 남서쪽에 난 문을 통해서 입장한다. 아쇼까왕이 동문 좌우에 석주를 세운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동문이 가장 규모가 큰 정문이었던 것 같다.

아쇼까왕 참배한 아난다 보리수와 천불화현 터

일행은 아난다 보리수 앞에서 참배를 한다. 아난다 보리수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허락을 받고 심은 보리수이기 때문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부처님은 우안거(雨安居)를 보내고 나면 반드시 영축산이나 꼬삼비, 바이샬리 등으로 떠나 설법을 했다. 이에 꼬살라국의 왕과 백성들이 아난다를 통해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무엇을 보고 참배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보드가야의 보리수도 그 하나라고 말씀했다. 당신이 사용하는 발우, 정각을 이뤘던 보드가야의 보리수, 당신의 사리를 봉안한 탑, 등상불(等像佛) 등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에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가지를 가져왔고 아난다의 주관 아래 쁘라세나짓왕과 많은 신도들이 참여하여 성대한 식수 행사를 열었던 것이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기원정사에 계실 때는 아난다 보리수 밑에서 선정에 들곤 했다고 전해진다. 이른 아침이지만 아난다 보리수 앞에는 인도 수행자와 신자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거나 경전을 읽고 있다. 흰옷을 입은 동남아 신자도 보인다. 인도 수행자나 신자들은 아난다 보리수를 부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기원정사에 들른 아쇼까왕도 아난다 보리수를 부처님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아난다 보리수 옆에서 발굴된 2개의 스투파는 흔적만 남아 있어 아쇼까왕이 직접 조성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아쇼까왕이 부처님의 이적을 보인 것을 기려 조성한 천불화현탑. 그러나 부처님은 방편으로 신통을 보이신 것일 뿐 이성적 사유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문 좌우 석주, 인도 유일 양식
기원정사 최초 건물터 간다쿠티
아쇼까 스투파들 흔적만 아쉬워
부처님 이적 기린 '천불화현탑'
신통은 방편… 이성적 사유해야

일행은 수닷타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 건립한 간다쿠티(Gandhakuti; 香殿)로 향한다. 간다쿠티가 기원정사의 최초 건물이었을 터이다. 간다쿠티에도 수행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5세기 초(407년 무렵)쯤 기원정사에 왔던 법현의 기록을 보면 간다쿠티는 원래 7층 건물이었는데 화재로 소실됐다고 한다. 그런데 큰 화재에도 불구하고 쁘라세나짓왕이 조성한 전단나무 불상은 무사하여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2층 벽돌건물을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앞에서 소개한 현장의 증언대로다.

간다쿠티 앞에는 우물이 있다. 현장이 '여래가 재세 중에 물을 긷던 곳이다'라고 기록한 바로 그 우물이다. 그리고 우물 옆에는 아쇼까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한 스투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스투파의 흔적이 여러 개나 돼 어느 것이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인지 불분명한 게 아쉽다. 지금은 흔적도 없는 아쇼까왕 석주와 동문은 부처님 우물 쪽 방향에 건립됐을 것 같다. 사위성을 오가는데 있어서 직선거리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일행은 간다쿠티 뒤쪽 부처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보리수 그늘에서 좌선삼매에 든다. 현장은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에 부처님 사리가 봉안돼 있어 '명계(冥界)의 신이 경위하고 신비로운 조짐이 가끔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고 신묘한 향기가 나는 일도 있어 큰 복덕의 징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행은 기원정사 참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뒤, 국내에 일이 생긴 대요스님과 작별하고 오후에는 기원정사에서 2km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옛 사위성 터로 답사를 나간다. 가는 도중에 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곳에 조성한 스투파와 수닷타 장자 집터에 벽돌로 쌓은 스투파를 둘러본다. 두 개의 스투파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스투파의 주인공인 앙굴리마라와 쁘라세나짓왕의 아들 제타(Jeta)태자에게 동산을 사들인 뒤 간다쿠티를 지어 무주상보시한 수닷타 장자의 얘기는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온갖 종교가 난무하는 오늘 앙굴리마라를 통해서 정법이 무엇인지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바라문이 젊은 청년제자인 앙굴리마라가 자신의 아내와 치정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는 100명을 살인하도록 지시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한 반면에 부처님은 어리석음을 참회케 하고 '그대가 바로 부처이다'라는 여래장(如來藏)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앙굴리마라를 아라한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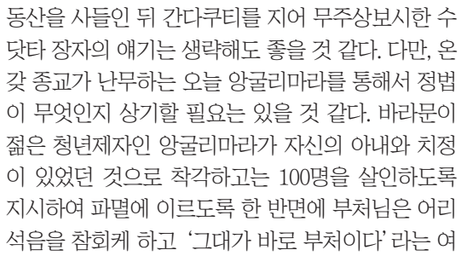
일행은 벽돌 조각들이 뒹구는 옛 사위성 터를 둘러보고 나서 사탕수수밭이 펼쳐진 들판을 가로질러 아쇼까왕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불화현탑으로 이동한다. 그러고 보니 오후 시간 내내 옛 사위성 터를 답사했던 모양이다. 석양이 벌써 천불화현탑 너머로 지고 있다. 잘 알다시피 천불화현(千佛化現)이란 자이나교를 비롯한 이교도들의 텃세가 심해지자, 부처님이 제자들의 간청에 따라 마지못해 이적을 보이신 내용이다. 사위성의 쁘라세나짓왕과 이교도들이 모인 망고동산에서 부처님이 동산지기에게 받은 망고를 잡수신 뒤 그 씨를 땅에 심어 순식간에 망고나무가 솟아오르게 했고, 부처님 몸에서 천분의 부처가 나투는 신통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런 뒤 부처님께서는 홀연히 도리천으로 올라가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잠시 이적을 보이셨을 뿐 이성적인 사유를 강조하셨으므로 신통에 현혹돼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보드가야에서 가져온 아난다 보리수. 그 앞에 티베트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답사단이 황폐한 사위성 터를 살펴보고 있다.



답사단이 부처님이 머무셨던 간다쿠티 뒤쪽에서 좌선하고 있다.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모집

불교의식 가운데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불교무용인 작법무는 진리를 춤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문화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능화스님을 모시고 불교무용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무용 마스터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특강
※특강일시 _ 2기 : 2012년 7월 9일~7월 25일
3기 : 2013년 7월 8일~7월 24일
※강의시간 _ 매주 월 · 화 · 수요일 14:00~18:00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기당 12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예능보유자), 인화스님, 전경화, 박은하
※교육대상 _ 제한없음, 무용전공자, 스님
※교 재 명 _ 능화 『한국의 불교무용』, 『다게나비춤』, 『천수바라춤』
※강의내용 _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특 전 _ 수료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시험 응시자격부여 (응시자 전원 가산점 부여)

불교무용 및 불교실용의식
※개강일시 _ 2012년 9월 3일(월) 14:00, 16:00 (서울)
2012년 9월 6일(목) 14:00, 16:00 (일산)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교 수 진 _ 능화스님, 인화스님, 전경화

한국전통무용
※개강일시 _ 2012년 9월 4일(화) 13:00 (입문반)
2102년 9월 4일(화) 15:00 (전문반)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 강 료 _ 1학기 40만원
※강의내용 _ 한국무용기초, 입춤, 태평무, 장고춤
※강 사 _ 박은하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dongguk.edu
서울 T. 02-2260-3728~3730
일산 T. 031-961-5322~3

범패와작법무보존회
http://www.nunghwa.org
T. 032-884-8904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산업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드디어 길을 찾았다” 두 소년 죽림정사로

① 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상〉스승을 만나다

앗사지 만나 “당신의 스승 누구인가”
두 소년, 250명 수행자와 붓다에 귀의
부처님 “진리 닦아 괴로움 벗어나라”

언제부터인지 인류는 ‘생각’을 넘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고민’의 영역은 ‘괴로움’이었다. 인류에게 괴로움이 생긴 것이다. 괴로움은 어디서 온 것이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마침내 길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부처님이다. 2500년 전의 그 일은 ‘가르침’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불교(佛敎)라 부르고 있다. 그 가르침이 잊히지 않고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르침을 지극하게 생각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부처님의 십대제자’다. 그들의 수행 또한 부처님과 함께 한 위대한 삶이기에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림 · 김홍인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 제자는 수 없이 많았다. 많은 제자 중에는 열 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었다. 십대제자, 혹은 석가십성이라고도 한다. 이들 열 명의 제자는 교단을 운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등 불교 교단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 십대제자 가운데 첫 번째는 상수제자인 사리불이다. 〈증일아함경〉 3권 제자품에는 "지혜가 무궁하여 모든 의혹을 푸는 데에는 바로 사리불 비구가 제일이다."고 적고 있다. 사리자(舍利子라)고도 불리는 그를 일러 ‘지혜제일 사리불’이라 부른다.

소년 우빠띳사와 꼴리따, 붓다와 같은 고민

라자가하(왕사성)는 축제로 시끌벅적했다. 광장마다 흥겨운 노래 소리가 넘치고, 모든 길은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축제 때만큼은 신분과 계급의 장벽을 넘어 함께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축제의 뒤편엔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 “저 화려한 축제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축제 때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축제가 끝이 나듯 저 사람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우빠띳사와 꼴리따 두 소년은 축제를 뒤로 하고 한적한 들녘을 걸었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죽음이 있듯 죽지 않는 법도 있지 않을까? 꼴리따, 죽지 않을 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우리 한 번 찾아보자.” 우빠띳사는 사리불이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 이름이고, 꼴리따는 역시 목건련의 본래 이름이다. 우빠띳사는 바라문(브라만)으로 태어나 바라문교의 가르침 속에서 유년을 보냈고, 꼴리따와 함께 16살의 어린 나이에 바라문교의 미래로 떠오르며 주목 받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우빠띳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교의 모순된 교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공부가 깊어갈수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 의문을 풀어줄 스승을 찾아 나선 우빠띳사는 꼴리따와 함께 당시 육사외도로 불리는 신흥종교의 지도자 중의 하나인 산자야 문하로 들어간다. 하지만 우빠띳사는 산자야의 가르침에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깊은 좌절에 빠진다. 산자야를 만나기 전 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스승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며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스승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다짐과 약속을 하곤 했었다. “불사(不死)의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카필라국 태자의 출궁

카필라국의 태자였던 부처님은 소년 시절에 들녘을 산책하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농부가 밭이랑을 고르고 있었고, 아름다운 산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다. 그 때 태자의 눈에 뜨인 것은 농부의 연장에 찍혀 몸부림치며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습이었다. 그 때 순식간에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벌레를 물고 날아갔고, 순간 독수리가 날아와 새를 물고 날아갔다. 태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궁으로 돌아온 태자는 생각했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걸까.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는 걸까? 태자는 그 날 이후로 생사의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기 시작한다. 우빠띳사와 꼴리따가 생사의 문제로 고민하기 이미 오래 전에 또 한 소년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년은 스물아홉 되던 해에 태자의 신분을 미련 없이 버리고 궁을 나선다.

부처님의 출현과 첫 설법

“수행자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꼰단냐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꼰단냐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고 부처님이 물었다. “법을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꼰단냐에 이어 왑빠와 밧디야, 마하나마와 앗사지가 대답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오라, 비구여.”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한 다섯 명의 비구가 탄생했다. 소년 시절 품었던 생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 궁을 나섰던 카필라국의 태자는 6년의 고행을 마친 후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생사의 의문을 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전한 것이다. 첫 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다섯 명의 비구와 함께 빔비사라국왕이 부처님께 바친 최초의 도량 죽림정사로 향한다.

앗사지와의 만남

앗사지가 길을 걷고 있었다. 우빠띳사와 앗사지가 마주친다. 우빠띳사는 앗사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서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낀다. “사문이여, 당신의 얼굴은 너무 밝게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앗사지가 말했다. “벗이여, 사꺄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앗사지입니다.” 우빠띳사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앗사지의 발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저는 우빠띳사입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저에게도 그 법을 설해주십시오,” 앗사지는 우빠띳사를 바라보고 게송을 읊는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 여래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우빠띳사의 눈동자가 빛났다. “우리들의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림정사에 계십니다.” 우빠띳사는 앗사지의 발아래 거듭 머리를 조아린 다음 급히 떠난다. 그에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산자야의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던 도반 꼴리따가 우빠띳사를 반갑게 맞는다. “벗이여, 오늘은 그대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 구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기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네.” 그리고 우빠띳사는 앗사지에게 들은 게송을 꼴리따에게 들려준다. 꼴리따 역시 게송을 듣는 순간 소리친다. “드디어 길을 찾았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스승 산자야를 찾아갔다. “스승님, 드디어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았습니다.” 산자야는 기쁘지 않았다. 뛰어난 두 제자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자야의 수도원을 나온다. 250명의 수행자가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부처님을 만나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우빠띳사와 꼴리따는 250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죽림정사로 들어섰다.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주어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오고 있다.” 두 사람은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한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라까 촌장 방깐따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루빠사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저는 꼴리따 촌장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갈리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를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사리뿟다(사리불)와 마하목갈라나(목건련)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1년이 흐른 뒤였다. 부처님이 소년 시절 품었던 생사의 의문을 또 다른 두 소년이 품었고, 그 의문을 쫓던 그 들은 그렇게 만났다.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난 부처님과 그 벗어남의 가르침을 간절히 바라던 두 소년이 만난 것이다. 법회가 끝나고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건련의 머리를 손수 잘라준 후 법회에 모인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사리불과 목건련은 너희들의 상수(上首)다.”

〈다음호에 계속〉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리불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상수제자로 지혜가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칭송된다. 산스크리트의 샤리푸트라, 빠알리어(語) 샤리푸타(Sāriputta)의 음역(音譯)이며,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원래 이름은 우빠띳사다. 인도 중부의 마가다왕국 수도 라자가하(왕사성) 근처의 나라다 마을에서 부유한 바라문의 여덟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여 이른 나이에 바라문교의 성전인 네 가지 베다를 익혀 그 뜻을 통달했고, 예술에도 재능이 출중하여 친구인 목건련과 함께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 목건련과 함께 바라문교의 축제를 구경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선다. 산자야의 문하로 들어가 수행하지만 길을 찾지 못한다. 스승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5비구 중의 한 사람인 앗사지를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 주로 교화에 힘썼던 그는 교단을 다스리고 부처님을 모셨던 제일제자다.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사리불 판화)**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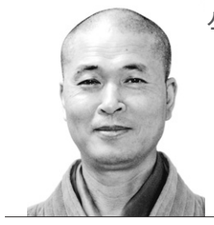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매수 : 14장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입니다.



미소달마(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사람이 곧 우주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의 뜻과 교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출가하여 계도 받지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대는군."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云 纔出家未受戒 到處問人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 성품을 보면 곧 부처를 이룬다' 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 재세시에 출가자들이 석존 교설을 단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음을 얻었던 가풍을 그대로 잇는 것이다. 석존 열반 후에는 한동안, 반드시 수행해서 때를 제거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설, 즉 소승불교가 확장되었으나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중생이 곧 부처' 라는 사상이 높이 부각되었고, 선불교에서는 '깨달으면 곧 부처' 라는 재세시의 가풍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부처님의 초기 설법이 수행에 역점을 둔 불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시 경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다 앞에서 깨달아 얻었던 성문 4과의 경지는 무시되고, 수행의 측면만을 강조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많은 세월 동안 계속 되었고, 지금 한국 불교도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 당나라 조주 스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선사는 간단한 한 마디로 초학자의 허접한 망상을 잘라버린다. 도가 높을수록 질문이 없어진다. 질문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망상이 일어난 것이다. 질문이 일어나면 잘라버려라. 도가 높아지면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성인(聖)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범부(凡)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범부(凡)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성인(聖)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선승(禪僧)이다."

問 如何是聖 師云不凡 云如何是凡 師云不聖 云不凡不聖時如何 師云 好箇禪僧

성인에 대해서 묻는가? 그렇다면 성인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 성인은 깨끗함 그 자체다. 진리로 돌아간 사람, 감정에 흐르지 않고 고요한 세계를 체득한 사람, 범죄를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 24시간 마음이 항상 맑은 사람, 누가 뭐라 하던 중도(中道)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인인데 그에 대해서 어찌 언설로 표현을 한단 말인가? 언설로 표현해서 정해 놓으면 그은 성인이 아니다. 조주 선사는 성인에 대해 범부가 아니라고만 설명했다. 그것으로 성인을 알 것이지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진정한 장소, 진정한 경지,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심성은 이미 부처이다. 자신이 참 부처이지만, 아직 진정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범부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하니 범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한다. 조주 선사는 다만 '성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그것으로 범부를 알라는 말이다. 짧지만 가능한 진실을 담고 있는 선적 표현이다.

그런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조주 선사는 '그는 훌륭한 선승'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선사들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평범한 인간 그 자체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족하다. 사람을 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모독이고, 또한 사람을 사람보다 높은 성인으로 표현해도 그것은 사실 망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존귀하다. 사람은 우주의 자식이다. 곧 사람이 우주이다. 곧 사람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어찌 사람을 범부, 혹은 성인으로 치부할 것인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라면 그야말로 그는 정말 훌륭한 선승(禪僧)이 아닌가.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20〉

삼학-③ 혜학(慧學)

최고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혜학은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지혜의 실천을 말한다. 여기서 '진실의 파악' 은 사성제의 실천과 연기(緣起)의 자각,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의 파악을 의미한다.

삼학의 학(學)은 산스크리트어 쉬크샤(śikṣa)를 번역한 말로 '배움', '연구'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쉬크샤는 단순히 '배우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 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학(學)은 훈련의 반복을 통해 몸에 습관을 들인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을 통해 생활 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계학(戒學)을 수행함으로써 정학(定學)에 들어서게 되고, 정학을 수행함으로써 혜학에 이르게 된다.

불교 최후의 목적은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초보적인 깨달음의 지혜, 성문아라한(聲聞阿羅漢)의 지혜, 벽지불(辟支佛; 緣覺)의 지혜, 보살의 지혜, 부처님 최고의 지혜 등이 그것이다. 또 지혜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도 존재한다. 지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만 대략 20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용어는 쁘라즈냐(prajñā)와 즈냐나(jñāna)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혜로 번역되지만 당나라 시대 현장(玄?; 602~664)은 쁘라즈냐를 혜(慧)로, 즈냐나를 지(智)로 번역했다. 즉 이 두 가지는 지혜를 뜻하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먼저 혜는 넓은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아비달마(阿毘達磨)〉에 의하면 선(善)·악(惡)·무기(無記)의 모든 지적인 작용을 포함해 범부의 낮은 지혜[劣慧]부터 깨달음을 얻은 각자(覺者)의 최고 지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기란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智)는 주로 깨달음의 지혜에 사용된다. 사성제를 체득한 지혜[盡智]와 사성제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 체득할 필요가 없다고 아는 지혜[無生智], 모든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지혜[正智] 등은 모두 아라한의 지혜이고, 십바라밀의 하나인 지바라밀(智波羅蜜)은 가장 높은 단계의 보살의 지혜이며, 네 가지 지혜[四智], 즉 성소작지(成所作智)·묘관찰지(妙觀察智)·평등성지(平等性智)·대원경지(大圓鏡智)와 이것에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를 더한 오지(五智)는 모두 보살의 깨달음의 지혜이다. 이밖에 성문, 연각의 지혜인 일체지(一切智), 보살의 지혜인 도종지(道種智), 부처님만의 지혜인 일체종지(一切種智)도 깨달음의 지혜에 속한다.

이러한 지혜는 크게 유분별지(有分別智)와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나뉜다. 유분별지는 그 지혜가 그 대상을 의식하고, 대상을 차별해 사유 및 판단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무분별지는 그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과 일체가 돼 있는 경우이며,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불교의 이상은 일체법이 무아(無我)이며 무자성(無自性)이라는 도리를 이론적으로 바르게 알고, '무아무자성' 의 이치에 따라 '무소득무집착' 의 태도를 가짐으로서 무애자재(無碍自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며, 대지(大智)라고 한다. 반야바라밀도 바로 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부처와 보살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갖고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행한다. 이때 그 지혜는 대상으로서의 중생을 의식하는 유분별지가 된다. 하지만 이 지혜는 최고의 무분별지를 얻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분별지와 구별해서 유분별후득지(有分別後得智)라고 한다. 이처럼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의 지혜 활동을 구비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목적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㉕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법구경〉

그때 내가 들고 다닌 여행 가이드북에는, 그 두꺼운 부피만큼이나 많은 성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다. 한 분 한 분, 다 나름의 깨침과 나름의 자비를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의 깨침을 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도여행이 그런 것이고, 순례자의 길이 그런 것이리라.

그런데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문안으로도 들어간 일이 없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노크한 일도 없었다. 그럴진대 왜 그 무거운 가이드북을 들고 다녔던 것일까? 의아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어느 때 한 길벗이 그런 질문을 내게 제기하였다. 왜 당신은 성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였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우물 속에 빠져 있다고 하자.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 어떤 성자든, 어떤 수행자든 찾아뵙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가 우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달랑 들어올려서 우물 밖으로 건져내줄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주리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겨우 우물 속에서 우물 밖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몇 마디 해주는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이다. 어떻게 수행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정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익히 아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미 아는 만큼이라도 실천해 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답은 나 밖의 다른 어떤 성자에게도, 어떤 수행자에게도, 어떤 스승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내게 있는 것이다. 우물 속에서 벗어나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만 있다면 그 길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승을 찾는 데에서 출발할 일이다.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 자기를 조복(調伏)받은 자 /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주인을 찾은 것이다."(등하 옮김, 〈법구경〉, 법공양, 13쪽)

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삶에 주춧돌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그러니, 그분이 진정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 자기야말로 자신이 돌아가 의지할 품 / 그러니, 너의 고삐를 네가 잡아라 / 말 주인이 말의 고삐를 잡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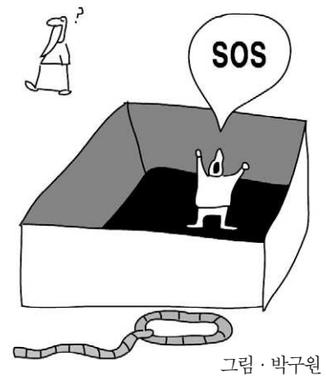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이라 말하는 대신, "스승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라"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같다. 더욱이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내가 최고의 스승이라" 고 말한다면, 위험하기조차 한 일이다. 믿음이 그러한 사실을 보증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넣어도 좋을 주인이라 보증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가 지뢰인 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주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고, 해답 역시 스승이나 주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것이기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꽃과 나비

원기둥나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행자 생활하는 지금 그 첫마음 잃지 말라”

지묵 스님

불일암 다실 ‘수류화개실’로 명명
‘수류화개’ … 스님 정취 드러난 화두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던 스님.
이야기 들을수록 인간미 넘쳐

“불일암佛日庵 마루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법정 스님이 ‘어이, 초상권 있어 함부로 찍지마!’ 그러셨는데, 말이나 행동이 모셨던 어르신들을 따라가요. 이곳 당호를 불일암으로 한 까닭도 어른 스님 영향이지요. 좋은 이름이에요.” 보림사 뒤 자그마한 불일암 법당에 앉자마자 카메라부터 꺼내드는 사진작가에게 지묵 스님이 차부터 한 잔 하라며 던진 말씀이다.

출가 전, 법정 스님 글을 보고 ‘스님들도 글을 쓰시는구나.’ 생각했던 지묵 스님, 송광사로 출가했다. 송광사에서는 보름마다 삭발하고 목욕도 하고 별식으로 찰밥을 하는데, 도반 행자들과 암자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찰밥을 가져다드리면서 법정 스님과 처음 현품대조를 했다. “미역국하고 찰밥은 음식궁합이 잘 맞아요. 내가 국을 끓이는 소임을 맡았는데, 솥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불린 미역을 살짝 볶다가 끓이면 담박하면서도 구수해요. 인사를 올렸더니 ‘행자 생활하는 지금 첫 마음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셨어요.” 그 날 지묵 스님 눈길을 끈 것은 벽에 걸린 고졸古拙한 추사 선생 족자였다.

‘靜坐處 茶半香初정좌처 다반향초 妙用時 水流花開묘용시 수류화개’

‘고요한 선방, 차는 반 모금, 향은 첫 향기. 어우렁더우렁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불일암 다실을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이라 하고, 말년을 보냈던 강원도 토굴을 수류산방(水流山房)이라고 할 만큼 수류화개는 무소유 못지않게 스님 정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살아있는 화두다.

“처음 뵈었을 때 눈매가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얘기를 들을수록 도타운 인간미가 느껴졌어요. 벽장에서 속옷과 양말을 꺼내주시는데, 지금은 물자가 흔하지만 그때는 뭐든지 모자랄 때라 설날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 효봉 스님 추모재 날 계를 받고 나서 도반들과 불일암에 올라가 인사드렸다. “무거운 가사장삼을 끌고 절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별말씀을 안 하시더니 내게 ‘법명이 뭐라고 했어?’ 물으셔서 지묵입니다. 그랬더니 ‘종이하고 먹이 평생 안 떨어질 사람이네.’ 그래서 스님, 지필묵하고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두고 봐!’ 그러셨는데 참말, 종이하고 먹은 떨어지지 않네.”


은사인 법흥 스님의 부탁으로 법정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은 지묵 스님에게 법정 스님은 항상 일등후원자 였다. 사진은 법정 스님을 그리며 당호를 ‘佛日庵’이라 붙인 보림사 뒤 불일암 법당 앞에 서 있는 지묵 스님.

행자 생활을 마치고 비구계를 받은 지묵 스님은 불국사 선방에 다니다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이 원효암에 계실 때 장좌불와를 하고 달마어록과 선문촬요(禪門撮要)를 배웠다. “선문촬요(禪門撮要) 전권을 공부했어요. 달마어록이나 웬만한 것은 책에 잘못된 곳까지 짚어주셨어요.”

공부마치고 광주민주항쟁이 나던 해, 법정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니 서장(書狀)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끝을 다 맺지 못했어요. 광주 5월 항쟁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좋은 스승들에게 공부하는 영예를 누리고 고마워요.”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한테 세 가지는 못 당하겠다고 했다. “첫째는 수제비, 내가 일러드린 대로 한껏 솜씨를 내봐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여. 둘째 돌담 쌓기, 조계산 돌을 주어다가 불일암 올라가는 돌계단을 쌓았는데, 구산 스님이 ‘다른 데는 이번 태풍에 길이 패고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는 괜찮네’ 그러시니까. 법정 스님이 ‘지묵 수좌가 특수 공법으로 정성껏 쌓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셋째 전각, 법정 스님 낙관은 석정 스님, 무용 거사, 수안 스님 그리고 내가 판 20여 과(顆)를 더해 백여 과가 됩니다. 글씨는 스님이 쓰고 나는 칼질만을 했어요. 깎아서 보여드리면

‘〈춘향전〉 등 고전 읽고 〈지장경〉
독송 좋게 번역 하라’ 법정 스님 지시
車 못사게 하시더니 가방에 수표를…
장흥사에선 신도들이 시식 · 재 집전

‘조금 힘이 빠졌어, 다시’, ‘좋군. 균형이 잡혔어. 약간 옆으로 삐쳐서 멋있지 않아?’, ‘날 일日 자는 그냥 해를 그려서 원 안에 점만 찍어봐’ 그러시는데 디자인 감각이 있으셨어요. 스님은 목수 일을 잘하시고 나는 돌 일과 전각을 잘하니까 취미에 따라 일을 했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법정 스님과 지묵 스님 인연은 법흥 스님이 다리를 놓았다. “아무래도 내 상좌 지묵이가 스님을 좋아하는 것 같소.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스님이 좀 가르쳐주시오. 심각하게 그러고 가셨다는 거여. 그러면서 은사스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잘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법정 스님은 내가 해외여행을 할 때 대개 왕복 비행기표 끊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일등후원자였어요.”

지묵 스님이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불일암에 인사드리러 올라갔을 때 법정 스님은 다락에서 당신 손때 묻은 〈신채호 전집〉 상하권을 꺼내주면서 ‘어디 가더라도 한국을 잊지 마라. 어머니가 문둥이여도 버려서는 안 되듯이, 내 나라가 아무리 썩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했다. 법정 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큰 절로 내려와 은사 법흥 스님을 찾은 지묵 스님, 짐짓 목소리를 깔면서 말했다. “스님! 제가 미국에 갈랍니다. 도가 있으면 도를 보여 주십시오. 도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보여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스님이 ‘야, 옛다. 천불이다. 아이고, 천불난다. 천불!’ 하면서 천 달러를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얘기는 쓰지 말고.” 불교 종단에 이렇듯 해학이 넘치고 정감어린 사제가 또 어디 있으랴. 더구나 상좌가 다른 스님을 좋아한다고 당신이 직접 찾아가 부탁하는 일은 보통 도량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 자리가 아니면 도타운 스승과 제자 정을 어디에 담을까 싶어 지묵 스님 당부를 어기고 말았다.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내면서 법정 스님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했을 때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을 데리고 갔다. “어른 뵌다고 법정 스님이랑 둘이 가사 장삼을 다리미질을 해서 깨끗하게 입고 올라갔더니, 성철 스님이 입던 옷을 벗어주면서 ‘요걸 입고 보면 잘 보일 것이여.’ 그러셔서 병풍 뒤에서 법정 스님과 내가 새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었어요.” 당신 체취가 묻은 옷을 입고 뜻을 잘 헤아려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경봉 스님 책도 그렇게 냈어요. 명정 스님이 부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사들이고 큰 스님들 책 가운데 법정 스님 손을 거치지 않은 거의 책이 없어요.”

얼마 뒤 법정 스님이 누가 번역해 달라고 부탁한 지장경을 지묵 스님에게 건네면서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우리고전을 읽어보고 되도록이면 독송하기도 좋게 번역을 하라고 일렀다. “그때 고전을 한참 소리 내서 읽고는 했다니까. 스님 덕분에 운율을 맞추는 걸 알았어요.” 법정 스님 지시로 오관게도 다듬은 지묵 스님. ‘계공다소량피래처(計功多少量彼來處), 촌기덕행전결응공(村己德行全缺應供), 방심이과탐등위종(防心離過貪等爲宗), 정사양약위료형고(正思良藥爲療形枯), 위성도업응수차식(爲成道業膺受此食)’을 운율을 살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론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고 풀었다. 특히 첫 구절을 직역하면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성이 서려 있는지 떠올리며’ 인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라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려는 깊은 법정 스님 정情이 담긴 번역이다.

법정 스님 말씀을 따라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 간 지묵 스님, 한국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차를 한 대 사달라고 말씀드렸다. 법정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이 차있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법정 스님이 귀국하실 때 드골공항 게이트 지나면서 손짓을 했다. ‘뭘 빠뜨리셨나?’ 다가가는 지묵 스님에게 ‘가방 좀 잘 봐봐!’ 했다.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가지 않은 지묵 스님은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를 잘하라는 말씀으로 무심히 흘려들었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저자 성범 스님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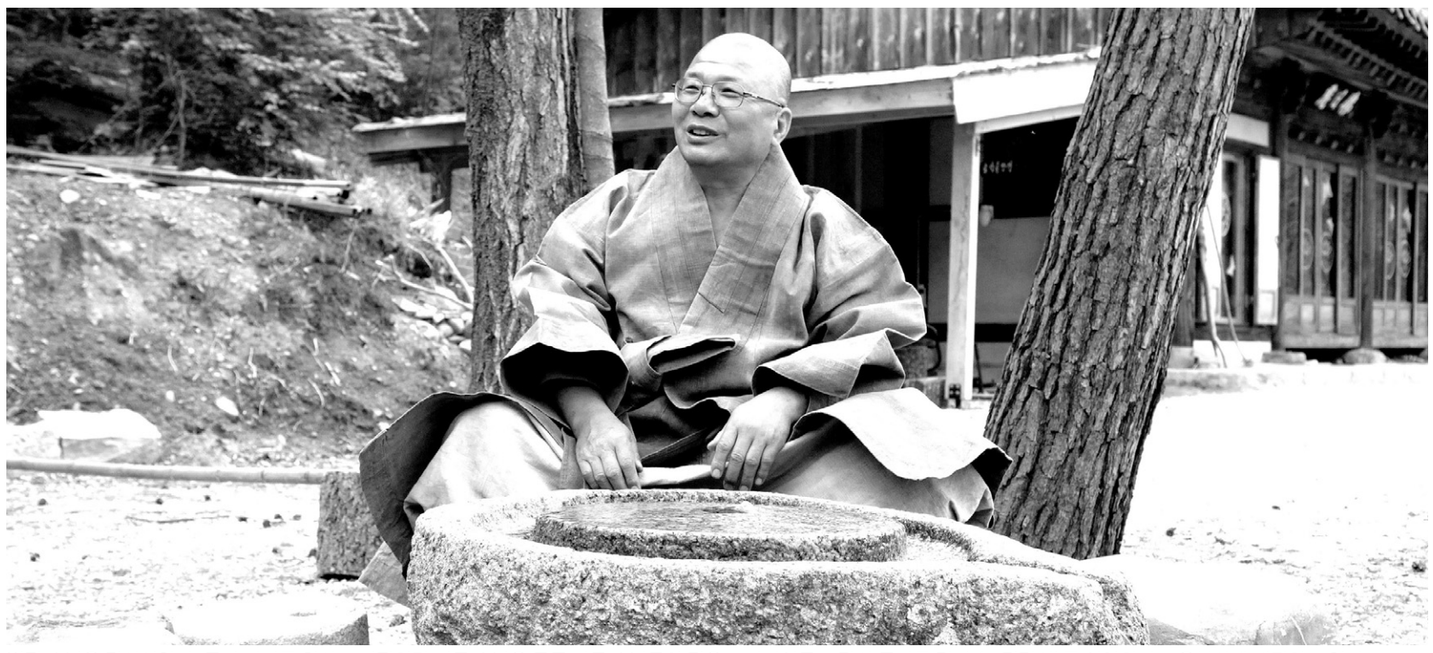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법정 스님을 닮아서일까, 주지 자리를 한사코 거절하던 지묵 스님은 문중 어른 스님들의 권유로 가지선문 보림사 주지를 맡아 '보림결사'를 선언하며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다. 몇 해 동안 유럽을 두루 다니고, 중국이며, 인도로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도 한참을 지난 뒤에 시골농가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아란야 선원을 할 때 낡은 여행 가방을 버리려다 앞에 붙은 바스켓을 탈탈 터는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다. 봉투 안에서 차를 사서 조심해서 타고 다니라는 법정 스님 당부 말씀과 수표가 나왔다. "자동차 사라고 넣어두신 돈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장에다 그 연기(緣起)를 써놨어요. 어르신이 자동차 산다고 그러니까 꾸짖기만 하고 가시더니 떠나면서 가방에다가 봉투를 넣어놓고 가셨는데, 나중에 버리려다가 보니까 큰돈이 나와서 이 부처님을 모시노라고." 지금은 보림사 불일암에 앉아계시는 부처님이야기다. 짐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다가 수레에 싣고 타고 가니 편했을 사람들이, 삶속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편리하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담아 법륜이라 했다던가. 자동차가 부처님으로 나투어 법륜을 굴리다.

"어르신이 불일암으로 부르셔서 길상사 주지를 하라고 하셨을 때도 싫다고 했듯이, 송광사에서 내 나이에 주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주지를 하기 싫어했어요. 주지 자리가 비면 늘 나한테 물어요." 문중 어른 등살에 떠밀려 보림사 주지를 맡은 지묵 스님은 보림결사를 선언한다. 첫째, 염불을 비롯한 모든 의식을 한글로 한다. 둘째, 음력불교를 청산하고 양력불교를 한다. 셋째, 집 짓는 불사는 하지 않고 교육불사를 하겠다. "한문불교를 청산하고,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지장재일 · 관음재일 따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사 방향을 집짓는 데서 교육으로 돌렸어요."

그렇게 세운 장흥불교대학. 3년을 마치고 졸업한 서른일곱 사람은 염불을 다 외우고, 시식(施食)을 진행할 만큼 불교의식에 능하다. "스님은 나 혼자지만 신도들이 종을 치고 예불도 하곤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은 나갔다 들어오니까, 재(齋)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장을 봐다가 천도재를 지냈대요. 의식을 스님들 전용이라는 생각은 부처님이 부정했던 카스트 제도에서 바라문들이 하던 낡은 관습이에요." 법정 스님도 중국 사례를 들면서 출가불자는 수행에 보다 전념하고 시다림을 비롯한 의식을 재가불자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중국 조주 스님 절에 가니까. 펼침막이 걸렸더군요. 어떤 보살님이 법문한다고. 해인사나 송광사, 통도사에서 거사님이 법문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보살님은." 지묵 스님은 여성 불자가 포교사가 되자 바로 상당법어(上堂法語)를 시켰다. "시켜야 해요. 해인사나 운문사에서 강원을 졸업 때가 되면 법문 연습을 합니다. 신도들도 시켜야 해요. 법제자, 법통 호적에 효봉 스님이 78대에요. 우리 스승들이 79대고, 내가 80대에요. 그래서 장흥불교대학 앨범에 석문 제 81대 손이라고 해놨어요. 손이니까 법문을 해야지. 4박 5일 단기 출가도 여름에 한 번씩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심이 두텁고 실제로 자원봉사 많이 하고 열성이 대단해요. 절 살림을 돕는 종무소 보살이나 공양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단기출가한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사람만 삭발을 하라고 했는데 승복을 입고 대부분 삭발을 했어요." 법정 스님도 배웠으면 반드시 갚아야한다고 일렀다. 재가제자들을 빗쟁이로 만들지 않으려는 지묵 스님 정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부임하고 보니 빚이 9천 7백만 원에다 자동차는 압류 당했고. 오느니 빚쟁이, 전화를 받으면 빚 독촉이었다. 공양주와 종무소 총무 한 사람 월급주면 수입, 지출이 똑 떨어져 셈이 나오지 않는데, 자동차도 찾고 빚도 다 갚았다. "지내놓고 보니까 참 희한하데요. 나는 뭘 구하는 기도 따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옛날 스님을 하다가 환속한 분이 느닷없이 아들, 딸들이 남은여생을 살 돈과 수의 마련할 돈, 장례비를 만들어줬는데, 지묵스님이 고생을 하니 수의 입은 것으로 하겠다면서 전액을 들고 왔어요. 염치없이 받아서 전기세야 뭐야 자잘하고 급한 불부터 먼저 껐어요. 그 고마움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거예요." 송광사하고 군청에 구호요청을 했다. 부임만 시켜놓고 자동차 운행도 못하게 하면 어쩌느냐? 다리를 풀어줘야 일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송광사에선 분담금을 한 해 동안 안 받겠다고 했다. 군청에서도 보림사는 장흥 얼굴이니 지원을 하겠다고 손을 잡아줬다. "빚도 갚아야 하고, 어찌 살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어찌어찌해서 그 큰돈을 다 갚았으니,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부도나지 않으려고 산에 있는 나무고 돌이고 땅이고 뭐이고 돈 될 만한 것이 있나 눈에 불을 키고 경중경중 뛰어다녔어요.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하하. 앞산 뒷산, 뺑 둘러서 산밖에 없는데 참나, 빚쟁이는 와 쌓고. 나중에는 배짱이 생기더라니까요.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뚫리고 풀리기도 하겠지 하는. 1원 한 잎도 미결이 없이 다 해결해버렸어요. 세상일이 셈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구먼요." 법정 스님을 닮아서인가. 주지를 하지 않으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지묵 스님. 인연 따라 가지선문 천년 고찰 보림사를 맡아 홀로 일궜다.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峯).

스님이라고는 주지 밖에 없는 보림사에서 돈 걱정을 비롯해 법문하랴. 화장실 청소하랴. 회보도 만들랴. 차밭을 일구랴. 덖은 차도 팔랴. 불교대학장에서부터 강사까지 지치는 줄도 모르고 해낸 용광로 같은 지묵 스님.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수명이 길어지는데 벌써 뒤로 물러나면 여생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는 물음에. "자유롭게 살랍니다. 법정 스님이 오래 전에 '주지가 다방 마담이네.' 그러셨어요. 그 뜻을 몰랐는데. 바빠서 미처 차 대접을 못 하면 차 한 잔도 안줬다고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건방지다고 하니까 바깥나들이하다가도 누가 온다고 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요. 자유로움이 출가자 본분이고, 출가가 자기 수행도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인데, 자리에 충실해도 이타가 되고 이타에 충실해도 자리가 되는 것이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을 보세요. 자리自利에 충실하셔서 더 큰 이타를 이루셨잖아. 하하" 자신에 충실한 자유로운 삶이 이타행이란 말씀에 빙긋 웃었더니 세상이 웃더라.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세 한 삼 우



동국대 명예교수

오늘도 폭염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쉬 사람의 심사를 건드리기 십상이다. 불쾌지수가 오르다보면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여 다툼이 일기도 한다.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했던가. 산을 즐기려 해도 수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 즐길 산이 왜소해져 가고 초목에 눈길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안쓰럽기까지 하다. 요수 또한 그렇다. 물이 있어야 즐기련만 계곡에는 물이 마른지 오래되었다. 그러다 보니 계곡물을 받아쓰는 연못은 개점휴업인 업소마냥 텅 빈 공간이 마치 큰 그릇 마냥 놓여있다.

이따금 먹구름이 모습을 우련하게 드러내고 있으면 합장 발원을 하게 된다.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수럭수럭 비를 내려 주소서. 모내기조차 못하고 있는 농심을 살피시고, 산야의 초목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니 속히 감로의 단비를 산하대지에 흡족하게 내려 주소서.'

이렇게 삼복더위가 연일 심술을 부리고 있으면 그리운 벗이 생각난다. 세한삼우(歲寒三友)이다. 소나무 · 매화나무 · 대나무이다.

소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숭고하고 단정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서재에서 고개만 들면 싱그러운 소나무의 기상을 볼 수 있다. 도량에 나가기만 해도 노송을 만나게 된다. 소나무에 갖추어진 노대(老大)한 품격과 마주하게 되면 그 품격은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 철따라 변하는 사물의 순환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 온갖 풍상을 이기고 고고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고색창연함 때문에 각별한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립옹(李笠翁)이 복숭아 · 오얏 · 버들의 과수원에 있더라도 한 그루의 소나무가 없다면 젊은 자녀 가운데 앉아서 우러러 볼 만 한 준엄한 선비가 없음과 같다고 말했다.

매화나무는 가지의 모습이 낭만적인데 있다. 그 냄새가 맑고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화나무는 동지가 지나고 이른 봄에 다른 꽃들 보다 앞서 핌으로 화괴(花魁)라 불린다. 모란은 물질적이고 매화는 정신적이라는 말도 선비의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연유한 듯하다. 또한 매화는 청고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북송시대 은둔 시인 임화정(林和靖)은 매화를 사랑하고 학을 좋아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절강성 항주, 그가 살았던 고산(孤山)에는 문인 순례지가 되어 있다. 이 시인의 산원소매(山園小梅)라는 시에 매화의 향기와 그 모습의 풍취가 잘 묘사 되어있다.

소영횡사수청천 疎影橫斜水淸淺
암향부동월황혼 暗香浮動月黃昏

얕고 맑은 물에 희미한 그림자 빗겨 드리우고
황혼의 달빛 아래 그윽한 향기 은은히 떠도는 구나

대나무는 가늘고, 유순하고, 잎의 화사함이 대나무 풍취의 으뜸으로 지목된다. 메마른 대지에 죽순은 높이 솟구쳐 올랐다.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사전에나 나오는 말인 듯하다. 이 가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용을 뽐내고 있다니. 가늘고 유순하다고만 치부할 일이 아닌듯하다. 인고의 세월을 감내할 줄 아는 대나무. 삭풍에도 거역할 줄 모르고 순응하며 본분을 잃지 않는 대나무가 아니던가. 도량 어느 언저리 바위 뒤켠에 자리 잡은 대나무는 인내와 절조, 순응을 가르쳐준다.

금년 여름에 유독 세한삼우가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더위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더위만 생각한다면야 피서지로 떠나면 그만이리라. 인간의 생각은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속성이 있다. 산에 있을 때의 생각과 시장에서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듯. 그 뿐인가. 성인도 성장기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 때문에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 때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도 교육 환경이 좋다는데 연유하였다.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의 열정을 누가 탓하랴만 지나친 면면이 사회의 이목을 끌기도 한 적이 있다. 경쟁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황폐화 시키고 만다.

소나무, 숭고하고 단정한 기운 강해
매화는 맑고 청고함의 대표적 상징
대나무는 인내, 절조, 순응 가르쳐
세한삼우 보며 '정도(正道)'의 길 걷자

인간관계의 황폐화는 무서울 정도이다. 마치 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되어 거북등과 같이 쩍쩍 갈라져 시루떡을 한 켜 한 켜 들어 올리는 것 보다 더 심각하다. 현대인은 첩경에 연연하여 매여 살고 있다. 첩경이 지름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속탈일 만 생기기 마련일 것이다. 반면에 정도를 고집한 사람은 속도감이 떨어지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겠지. 세한삼우를 보고 누가 미련하다고 외면하던가. 미련의 대변자는 인간의 야누스적인 심사일 뿐이다.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맹파명리 중국 단건업 선생 초 청 특 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건업 선생의 강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건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강의시간 : 오전 10시~1시, 중식:1시~3시, 3시~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연 락 처 : 031)918-7550, 011-1743-0543

학 산 맹 파 명 리 연 구 원

英, 불자경찰지원회 결성

"명상 수행 돕고 법당 만들 것"





최근 영국에서 불자경찰에게 불교교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명상 수행을 돕는 불자경찰지원회가 설립됐다. 오른쪽 그림은 불자경찰지원회(The Buddhist Police Support Network)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

영국 불자경찰지원회가 조직돼 경찰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국 온라인 일간신문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현지시각으로 6월 25일 "영국 불자경찰지원회가 조직돼 새로운 방식으로 치안활동을 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 남서쪽에 위치한 데번(Devon) 콘웰(Cornwall)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게리 왓츠(Gary Watts · 사진)가 불자경찰지원회(The Buddhist Police Support Network)를 조직한 주인공이다.

그는 "데번 · 콘웰 경찰서내 40명의 경찰들이 불자연합회에 소속돼 있다"며 "우리는 영국 전 지역 경찰서에 많은 불자들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범죄근절을 위해 경찰은 무력(武力)을 쓸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비폭력과 불살생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무력 행위에 대해 왓츠 경사는 "불교의 자비와 관용이 치안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왓츠 경사는 "경찰봉은 국민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어떻게 불자경찰이 무력을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비폭력(non-violence)을 불가침(non-aggression)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노와 보복을 위해 상대를 죽이고 해를 입히는 것은 비폭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범죄자로부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가 무력을 쓴다면 그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오해하기 십상이며 이러한 문제는 빈번히 생겨날 수 있는 딜레마이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불자연합회 소속원 대부분은 외근직보다 내근직이 많다"며 의문을 잠재웠다.

왓츠 경사가 불자경찰지원회를 조직하는데는 4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불자인 그는 당시 명상수행을 하는 등 열심히 불교생활을 했지만 혼자서 해오던 터라 고립감을 느끼던 상태였다.

이때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경찰청 내 인트라넷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 글을 올린 이후 그에게는 많은 답변들이 쇄도했다.

왓츠 경사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경찰들 사이에서 내 종교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다른 동료불자들은 그들이 매우 소수라고 느껴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외부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교를 선호하는 잠재적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경험이 많다"며 "불자경찰지원회는 이들에게 불교교리와 불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왓츠 경사는 "간단하게 말해 불자회 소속 경찰들이 업무 성과를 낸다면 불자회 창립은 성공한 것"이라며 "불자경찰지원회는 불교로 개종을 생각하는 경찰들의 의견을 듣고 경찰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명상 수행도 가르치고 경찰서내 조그마한 불교 법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는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종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찰 모임이 있으며 불자경찰지원회는 가장 최근에 조직됐다.

불자경찰지원회는 가장 늦게 결성됐지만 회원들은 교도소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불자가 늘어날 수록 재소자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는 영국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신도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재소자들 중 226명이 불자였으나 2008에는 17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전체 8만여 재소자들 중 2%를 차지했으며 2012년 현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가율은 11년간 3681명에서 9785명으로 늘어난 이슬람교도의 증가 비율을 넘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도소의 불교수감자들은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은 후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개종한다"며 "그 이유는 수감생활동안 명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관심을 기울여 성찰하고 이 같은 수행은 재범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는 15만명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참 자연과 정신적인 지식과 성찰을 추구하고 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영국 전체 인구의 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원시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23)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美 하와이대 명예교수



일반인과 서양불교연구자들은 불교를 형이상학적 종교로 이해한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종교라든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등 학문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칼루파하나(79 · David J. Kalupahana) 美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불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서양의 모든 불교 연구는 부처의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고있다"고 말한다.

칼루파하나 교수는 원시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초기 불교경전을 비롯해 불교사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시불교 핵심사상이 반(反) 형이상학에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그는 "본래 붓다의 세계관은 비실체론 반형이상학적 이었으나 실체론적이고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지닌 전통 인도종교철학의 영향에 의해 또는 여러 후기 불교학파들이 스스로 구성한 실체론적 불교이론들에 의해 왜곡돼왔다"고 주장한다.

스리랑카 실론대에서 학사(1959)와 석사(1961)학위를 받을 때 까지 그는 스리랑카의 전통적 불교관에 충실한 학도였다.

그리고 영국 런던대 동양 · 아프리카학대학에서 중국어와 티베트어를, 1966년 빨리 〈나카야〉와 한역 〈아함경〉에서의 연기(緣起)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때까지만해도 테라바다(Theravada)전통의 불교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전통적 견해는 1971년 하와이대 방문교수로 초빙돼 1972년 정식 교원이 될 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동서 비교철학의 중심지에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접하게 된 그가 자신의 불교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칼루파하나 교수는 "용수(龍樹, Nagarjuna)와 세친(世親, Vasubandhu)의 철학 분석이 불교관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며 "초기불교의 정신이 두 사람(용수, 세친)에게서 회복됨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용수: 중도의 철학(1986)〉와 〈불교심리학의 원리(1987)〉에서 설명한 칼루파하나 교수는 〈불교철학사: 연속과 불연속(1992)〉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서술한 불교철학사를 펴냈다.

〈불교철학사〉에서 그는 붓다에서 목갈리풋타, 팃사, 용수, 세친을 통해 복원되는 초기불교의 철학적 통찰력, 즉 무아(無我)와 연기(緣起)의 본래 의미를 분석했다.

그는 책에서 "불교철학사는 끈질긴 인간의 실체론적 · 형이상학적 사고 경향이 끊임없이 붓다 본래의 이론을 왜곡시켜 나가는 역사"라며 "가끔씩 나타나는 위와 같은 천재들에 의해 붓다의 철학적 통찰력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형이상학에 반대했을까. 칼루파하나 교수는 "어떤 입장이든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형이상학이 된다. 부처가 깨달은 '중도'란 바로 이런 극단적 사유로부터 벗어난 삶의 태도를 말한다"며 "형이상학은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실체에 기댈 수 있게 해준다. 형이상학을 포기하면 의지할 절대자가 사라지므로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기 경전에 부합하는 해석에 몰두
'불교는 反형이상학적 종교' 주장
"한국 간화선 반형이상학적"

그리고 칼루파하나 교수는 다양한 불교종파 가운데 임제선의 전통이 강한 한국 선불교가 반형이상학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불교는 지극히 형이상학적이다. 정토종은 아미타불에 의존하는 의타력 신앙으로 전락했고, 천태종은 부처를 신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임제종을 잇는 한국 선불교는 반형이상학이라는 점에서 원시불교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승불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승과 대승이라는 구별은 부의미하다. '소승'이란 말은 당시 논쟁에 참가했던 한 일파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모든 일파를 지칭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칼루파하나는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제자 자야틸레케(K. N. Jayatilleke)에게서 배웠다. 인식론과 언어이론에 주된 관심을 가진 그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불교의 철학 문헌을 검토, 초기경전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는 소승불교의 신도와 학자들에게 후대의 대승 경전의 가치를 좀더 이해하고 그 적통성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반대로 대승불교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이나은 기자

호주,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호주 통계청 "아시아인 유입 큰 이유"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줄어든 반면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행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통계청은 "기독교는 여전히 국가의 지배적인 종교로 간주되고 있지만 동양 종교가 빠르게 성장하며 그 뒤를 따라잡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전체 호주인구 2300만 여명 중 2150만 명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중 61.1%가 교회를 가거나 기도를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조사한 63.9%보다 약 3% 떨어진 수치다.

호주 불자 수는 1986~2006년에 비해 5배로 늘어났으며, 힌두교도들은 7배로 늘어났다. 무종교인들은 2006년 18.7%의 비율에서 22.3%로 증가했다.

2006년 인구조사에서 5만 5000명은 '스타워즈(감독 조지 루카스)'에서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상의 조직 제다이(Jedi)를 기타 답변으로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호주의 기독교 쇠퇴화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의 유입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이민자들의 증가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 통계청장 앤드류 헨더슨(Andrew Henderson)은 "호주 인구의 1/4는 해외출생자들이며 43.1%의 부모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며 "이는 기존의 호주문화에 여러나라의 문화가 섞이는 '컬처럴 믹스'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中, 티베트 경제 활성화 위해 관광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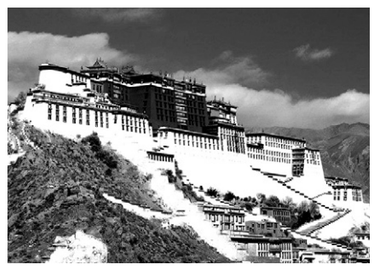
英언론, "외국인 여행 금지령 직후 발표된 일"

중국이 티베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동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지역인 티베트 린즈지구(Nyingchi, 林芝)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 약 4000만 파운드(한화 약 710억)을 투자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20여 개 마을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이 티베트 자치지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린즈지구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티베트 소수민족들이 호텔, 숙박업에 종사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계획은 티베트인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텔레그래프는 "중국의 사업계획 발표는 최근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티베트 접근 금지령을 내린 직후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일부 언론들은 티베트 관광당국과 중국 내 여행사에 확인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지령을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이나은 기자

당신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기치유란?
치유사의 치유 에너지를
환자에게 넣어주어
병을 치유하는 기법이다.
62기 기치유 양성반 개강!
개 강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오후 7 : 00 ~ 9 : 20
기 간 8주 과정(주1회)
장 소 윤·기치유명상 수련원(교대역 4번출구)
수련지도 윤한흥 전)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진실과 거짓
문 의 한국기치유연구회 02-3482-5032, 5065
(서초동 단우빌딩 3층 윤기치유명상수련원)
기치유센터 서울 교대(본원):02-3482-5032, 5065
대구 : 053-652-2202 / 구미 : 010-3233-4994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www.gihealing.com / Daum 카페 : 기치유와기공수련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을
다시한번 소개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겸용의식집으로 염불과 경전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는 스님들과 법사님들 불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과 다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겸용의식집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기존염불(漢文念佛)과 한글염불(경전내용)을 염불 순서대로 구성하므로 한문과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2. 경전의 뜻으로 염불을 구성하므로 수지독송을 하면 경전공부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염불에 불편이 없도록 운운은 없게하고 초심자도 다른 부분을 넘길 필요없이 한권의 책으로 순서대로 염불하면 된다.
4. 6권으로 분류하여 실용화하고 염불할 때에 책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염불에 추가책이 필요없게 하였다. (1 예경,각청 / 2 천도, 시식 / 3 수계, 방생 / 4 장의 / 5 점안 / 6 독송집)
5. 기본염불의 한글화나 경전내용 공부는 한국불교의 과제인데 방법으로 염불의 한 부분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 (삼보통청)에서 삼청을 하는 청사를 ②청은(漢文念佛)로 ①청은(한글염불)로 한다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경전공부와 한글염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화주문 : 054)974-1345. 011-277-8024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묵스님께 출가하여 스님이나 법사님 또는 전문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금불 장엄사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803-1
주지 성묵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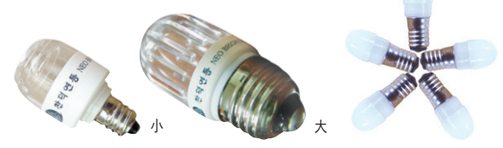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小 大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끌벅적한
마음이여
지금,
잠시,
쉬었다
가거라.

행복한 마음 휴식...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복잡하고 빠르게 뛰는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석지현 지음 | 424쪽 | 15,000원
양장(146×185mm)

민족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중생들에게 '실행력' 귀감 되길

경전 속 코끼리 소견(所見)


불치사리를 이운하는 페라헤라 축제의 코끼리

가장 불교적인 동물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코끼리를 일순위로 뽑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상아(象牙)가 여섯이나 되는 코끼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하며 수많은 경전에서 코끼리의 덕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는 범천의 세계창조 때 범천이 주문을 외어 만들어 냈다고 한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천사나 새들처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들이 하늘을 날다가 2만년이 넘은 커다란 고목의 가지를 부러뜨렸는데 그 밑에서 공부하던 신선(神仙)의 제자들이 몇 명 그 나뭇가지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러자 노한 신선은 신들에게 요청해서 코끼리의 날개를 없애버리도록 하였다고 한다.

불교의 수호신들 중에 환희천이라는 신은 시바신과 파르파티여신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가네샤라는 코끼리 머

보현보살 코끼리 타고 등장
세상에 회향하는 모습 보여줘

리를 지닌 신이다. 자신의 위력으로 불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없애기도 하고 지혜의 신으로 불리우며 재화(財貨)와 화합(和合)을 담당하는 신이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 분의 보살들은 모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이 있다. 지혜의 대명사인 문수보살은 항상 그 설화를 보면 사자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바다의 신인 관세음보살은 동양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낙산사에서도 해수관음의 모습으로 나투셨는데, 동해바다의 용왕인 교룡(蛟龍)을 타고 다니시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신다. 용의 머리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룡관음의 모습을 그린 탱화들이 상당수 있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일체 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지만 특히 유명한 두 가지 형상은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많은데, 연화대의 좌정모습은 주로 진언밀교계통에서 많이 사용했다. 화엄경에 의하면 보현보살은 일찍이 비로자나불 아래서 보살행을 닦은 보살들의 대표로 구도자들에게 법계를 보여주는 사실상의 화엄경 설교자이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근거해서 중생을 이익케하는 10가지 원을 세워 그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 ·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며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며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현보살은 왜 코끼리를 타고 다닐까?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동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실행력(實行力)의 귀감(龜鑑)이 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자의 왕도 코끼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용상의 대덕을 지닌 훌륭한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잘 이끄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무기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코끼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곳엔 여우가 자취를 감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깊어가는 밤을 지킨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연꽃으로 승화시킨 그리움 선율로

6집 앨범 낸 도신 스님



이토록 사무치는 그리움은 처음이에요. 보고 싶어 울어버린 그리움은 처음이에요(중략) 가슴 깊이 스며오는 이별보다 더한 슬픔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활짝 펴도록 웃을 거에요. 활짝 피도록 웃을 거에요.

노래하는 행자 도신 스님의 '처음이에요'는 오랜 그리움을 연꽃으로 승화 시킨 찬불가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진리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세상에 울려퍼진다. 도신 스님 6집 '너의 아픔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으리'가 나왔다. 이번 신보에는 '처음이에요' '망자의 노래' '홀로 우는 밤' '그리움의 불꽃'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12곡이 담겼다.

"어느덧 음성포교를 해온지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생의 아픔과 함께 하고자 끊임없이 노래를 했건만 어쩐 된 것인지 중생의 아픔은 더욱 더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번 음반은 '너의 아픔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으리라'는 타이틀처럼 감히 보살심의 마음을 내어 보았습니다. 단 한 중생이라도 아파하는 중생이 있다면 저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원력을 담았습니다"

속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엄마'도 주목할 만하다. '나도 갈래 엄마 따라 갈래 엄마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시작되는 곡은 8살에 동진 출가한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한 때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기도 원망도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죠. 출가 이후 한 번도 어머니를 뵌 적은 없지만 세월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도 있다. 조용필의 '그리움의 불꽃'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등을 스님 특유의 음성으로 표현했다. 가요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평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담아봤어요. 찬불가 대중가요가 따로 있나요? 스님이 부르면 찬불가지"라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스님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앨범 자켓의 일러스트도 흥미롭다. 기타를 맨 동자승, 강렬한 색채의 하트, 산 위에 뜬 태양 등 스님의 낙관이 들어간 그림은 가사와 어우러져 흥미롭다.

스님은 1981년 가수 故이남이 씨와 의형제를 맺고 본격적으로 기타 드럼 작곡법 노래 등을 배웠고 한국 록의 황제 신중현과도 인연을 맺어 록 음악의 매력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행자가 대중음악에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은사 스님인 故 법장 스님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도신 스님이 6집 '너의 아픔이 다하는…'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앞으로 후배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처음이에요' 등 12곡 수록
노래도 좋은 포교 교재죠
찬불가 보급에 앞장 설 터

"제가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하니 어느날은 당신 앞에서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어요. 노래 부르며 스님 표정을 살피면 매우 흐뭇해 하셨지요. 그런데 노래가 끝나면 불호령이 떨어지면서 기타를 부러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진 기타만 7개에요. 회초리로 맞기도 했죠."

하지만 도신 스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노래를 멈출 수 가 없었어요. 스님을 3개월 동안 찾아 뵙지 않기도 했죠. 그렇게 겨우 허락을 받아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행사무대에 서기로 했는데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른 노래를 부르고 줄행랑을 치기도 했죠"

이제 스님은 6장의 앨범을 냈고 연 50~60회의 공연을 다니며 음성포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자리잡았다.

도신 스님은 "책 한 권 보다 노래 한 곡이 포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찬불가의 현실은 열악하다. 후배 양성은 물론 재정 마련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불가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능화스님, 불교무용 마스터과정 특강

7월 9일부터 동국대 평생교육원서


동대서 여름특강을 하는 능화 스님의 '법고춤'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능화스님(겸임교수, 예능보유자)의 불교무용 마스터과정 여름특강을 개최한다.

강좌는 7월 9~ 25일까지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36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일산 동국대병원 뒤편 강의동 무용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무용인 작법무 가운데 ▷바라춤 5종 ▷나비춤 4종 ▷법고춤과 불교무용이론 등이 진행된다. 능화스님은 "불가 비전으로 내려오는 교습법으로 ▷명인명무전 ▷현충재 ▷장충재 ▷월미헌화 등 2천 700여 회의 공연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수료자 전원에게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응시자 전원에게 가산점도 부여한다.

능화스님은 "불교무용은 다라니 수행을 통한 신업공양과 같다. 불자들이 기도를 겸해 심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를 맛볼 수 있다"고 전했다. (031)961-5322~3

정혜숙 기자

"청춘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하고자"

신궁 'We're…' 싱글 앨범 발표

인디밴드 그룹 온더스팟의 리더 신궁이 8월 싱글 앨범 'We're still young'을 발표한다. 신보에는 이 시대 청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아 눈길을 끈다.

신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불교 명상과 108배를 통해 길러온 긍정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노래 가사에 담았다.

"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작정 캐나다로 떠났고 거기서 서광사, 정토회 등을 다니며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토회 불교대 경전반 등에서 공부하고 꾸준히 수행 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제 음악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어요"

이후 그는 사회적 메시지와 환경 ·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콘서트1'의 오프닝 공연에서 음성공양을 펼치며 이 시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번 신곡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전해주고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들에게 제 노래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We're still young' 앨범 내는 신궁

정혜숙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불교문화, 이젠 스마트폰으로 즐겨요

반야심경에서 108배까지 교계 어플 한 자리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 연말이면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모바일 포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법화경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하면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해 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년 새 교계에서도 다양한 어플이 출시되면서 불자들의 신행문화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불교계 인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경 반야심경

조계종 포교원과 (주)리토스가 함께 제작한 조계종 최초 어플리케이션이다. 2011년 1월 무료로 출시돼 현재 다운로드 수 13만(2012년 3월 기준)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문 및 한글 독경 듣기와 전문을 볼 수 있으며 재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유저들 대부분은 독경반야심경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비불자들도 이 어플을 통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아이디 Hee***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자도 아닌데 진짜 좋아요"라며 반야심경을 통해 얻은 효과를 이야기 한다.

헬로달마스쿨

조계종 포교원에서 출간한 어린이 영어 교재 '헬로 달마 스쿨'을 기반으로 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쉬운 영어 문장과 다채로운 삽화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로 불교 핵심 교리와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과 핵심 교리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유저들은 '예쁘고 깔끔하다' '예쁜 그림이 아주 좋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사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전국 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무료 어플이다. 사찰의 기도 · 법회 · 교육 · 불사 · 행사 · 템플스테이 등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사찰 주변의 맛집 및 숙박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자들에겐 필수아이템' '다른 종교이신 분들도 여행 자료로 활용하셔도 될듯' 등 유저들은 대부분 매우 유용한 어플이라고 칭찬한다.

'독경…' 다운로드 수 3만 건 넘어
'야단법석' 사찰 정보 제공 '인기'
신행 문화 흐름에도 변화 가져와

템플스테이 '앱북'

템플스테이 '앱북'은 국내외인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알리고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제작됐다. 태블릿 PC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앱북에는 산사의 멋, 산사체험 1박2일,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 등 한국 사찰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사찰예절과 절 속에 깃든 의미 등 불교문화를 화면에 담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구현해 이해를 돕고, 자연풍경과 더불어 법고 범종 등 불교사물의 웅장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불교 어플들이 대중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독경반야심경, 야단법석, 헬로달마스쿨, 템플스테이 앱북.

108배 도우미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에 맞춰서 절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료 어플이다.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을 통해 108배 수행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표 횟수와 속도 설정은 물론, 매일 수행을 기록할 수 있다.

너무나 깊숙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스마트폰. 이제 우리 신행 문화도 불교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스마트해져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불교계도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 대표하는 佛 공예품 '풍성'

제32회 전통공예명품전' …7월 10일까지 전수회관서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이사장 신응수)가 주최하는 '제32회 전통공예명품전'이 7월 10일까지 삼성동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지자체지정 시 · 도 무형문화재, 노동부선정 대한민국 명장 등의 전승자들과 각 종목별 우리나라 전통공예를 대표하는 공예 작가 116명이 참여한다.

전통공예 명품전에는 다양한 불교 관련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철장 원광식의 '천륜사종' 불화장 임석환의 '모란도'를 비롯 최문정의 '만다라' 김경미의 '순금니지장보살본원경' 김석곤의 '독성도' 김종우의 '수월관음' 김창순의 '모란도' 송갑호의 '비천상' 조영희의 '쌍룡도' 한민정의 '아비타삼존도'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원광식의 '천륜사종'은 고려 전기종(前期鍾)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단정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돋보인다. 여의주를 문 용과, 천판(天板) 위에는 연화문좌(蓮花紋座)와 운문좌(雲紋座)가 새겨져 있다.

작가 원광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로 2005년 신지식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2012년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개관했으며 현재 진천 종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있다.

최문정 작가의 '만다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단청 줄기 사이를 연화, 주화, 모란 등이 장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석채 위에 수정알과 유리 가루를 덮어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빛을 발한다.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구슬을 붙인 점도 흥미롭다. 최문정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이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417호로 인정받았다.

송갑호 작가의 비천상은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을 밑그림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무지개 은사를 이용해 휘날리는 천의에 하늘거림을 살리고 구름에 수선은 몽실몽실한 느낌을 일깨운다. 연화대에 앉아 공양물을 든 천인의 표정은 징금수법으로 표현해 소박함을 강조했다. 송갑호 작가는 2007년 제32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수상, 2008년 한모시민 특별전(경인미술관), 2009년 제3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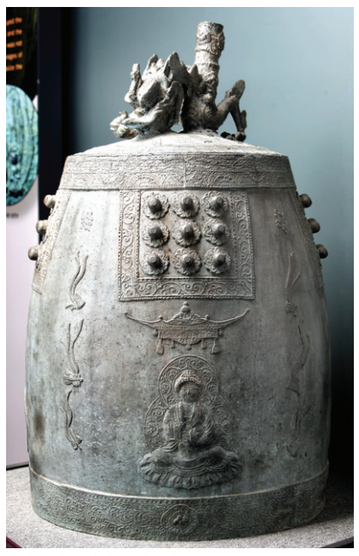
주철장 원광식의 '천륜사종' 등
공예 작가 116명 참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김용우 작가의 '비봉동자도'는 동자승이 봉황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을 표현했다. 아교접착제를 사용했으며 전통불화 기법으로 작업했다.

전정남 작가의 황옥육각사리함은 사리장엄구 일괄을 은제도금했으며 황옥원석을 재단해 받침은 연꽃모양으로 입체조각하여 연화무늬로 조각했다.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신응수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미래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453-1685 정혜숙 기자


김종우의 '수월관음도'


원광식의 '천륜사 종'

"새는 온몸으로 날아 세상을 깨운다"

이철수 작가 대구 기획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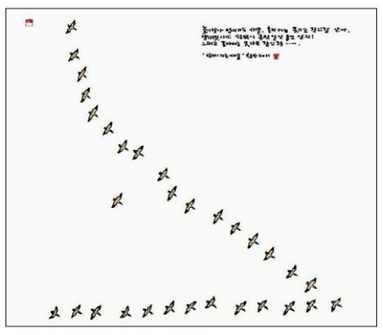
"새는 좌우의 날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온전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새가 그러하고 사람이 그러하고 세계가 그러하다. 죽음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기서 이미 죽음에 이른 사람들까지, 온 몸으로 살고 온 몸으로 죽는다. 그러니 부디, 생명에 가혹해지지 말자" -이철수 작가의 글 中에서-

이철수 작가의 대구 기획초대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가 7월 18~29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동화사, (사)예술마당솔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30여 년 간 작업해온 작가의 작품 120여 점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과 만나서' '먼 길 가는 새들' '함께 가는 새들' '백장 법문' '백장 이후' 등 최근작은 물론 초창기 작품인 '바람찬 날에 꽃이여 꽃이여' '장사의 꿈 1' '태백산맥' '밥이 하늘입니다'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예술마당솔은 "2005년 전시회 이후 제작한 신작 55점은 물론 1981~2005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 58점을 다시 선보인다. 구작 선정 기준은 그동안 사람들이 특히 많이 기억하는 작품들, 작가 자신이 마음이 가는 작품들을 담았다"고 전한다.

작가 이철수는 충북 제천 작업실에서의 작업을 통해 세상의 가장 깊은 속살을 건드린다. 그의 작품은 마치 졸고 있는 우리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듯이 스스로를 참회하게 하는 힘이 있다. 미술평론가 이주헌은 "그가 지금껏 그림을 그려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미술이니 문학이니, 민중미술이니 선禪 미술이니 구분하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장르와 범주를 초월해 그저 이야기를 한다"며 이철수의 예술세계의 존재적 근원을 설명한다.

목판화가 이철수 작가는 1981년 첫 개인전을 열었다. 민중 미술을 표방하던 그의 작품은 1988년 무렵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기 시작한다. 이후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선가의 언어방식을 끌어온 촌철살인의 화제들 혹은, 시정이 넘치는 짧은 글로 글과 어우러진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고 있다. (010)3540-5070 정혜숙 기자


이철수 作 '함께가는 새들'

민중 미술에서 禪의 세계까지
30여년 작업한 120여 점 선봬
대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

대한민국 상위 0.1% 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명품을 99%의 모든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의 향기
SINCE 1920
松剛堂 송강당


송강 경옥보

◎ 한의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왜 공진보를 권하는가? (수험생의 필수품)
수험생들의 피로회복, 뇌세포활성화, 집중력과 암기력을 강화해주며 밤을 새워도 피로가 없다.
강남에서 고3 수험생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2~3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공진보 복용 후 15분이 지나면 바로 생기를 찾는다.

◎ 공진보를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다?
간기능저하로 인한 질환(지방간, 간경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진다. 간이 좋으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발육,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 개선
만성피로, 기력회복, 폐결핵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효능이 매우 탁월함
◎ 당뇨, 갑상선, 간이 허약하신 분 복용 후 그 효능에 놀라실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입점
주문 전화 019-590-0009

송강/대명 공진보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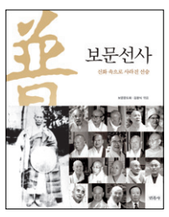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봉암결사 이끈 보문선사 생애 조명

보문선사-신화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도회, 김광식 엮음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책은 구전으로만 회자되던 보문 스님의 이야기다.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지인 22명의 회고를 모아 엮었다.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사가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불교에서 잊혀진 큰스님이다. 선방의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보문 선사다. 스님은 성철 스님, 향곡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결사을 함께 이끌었다. 일화를 통해 그려지는 스님의 모습은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보문 스님을 회고하는 스님들 중 여러 큰스님들은 "보문 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을 것이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탁발하여 수행처를 직접 일구고, 최소한의 돈 외에는 모두 거리의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탁발도 시장터의 길거리에서만 했는데, 보문 스님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발우를 들고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보시를 하고 예를 갖췄다고 한다. 발우에 담긴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도 절대 줍거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거지들이 스님의 주위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지폐를 주어갔다고 한다. 이렇듯 스님은 철저하게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저자는 "보문 선사는 현대불교사에서 잊혀진 스님이었다. 선사가 이 땅을 떠난 지 어언 55년이 되었다. 지난 세월 동안, 선사의 출가 본사였던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스님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지 못하였다. 비석을 세우거나, 책자를 내는 등 일체의 선양작업을 하지 말라는 엄한 당부의 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도의 스님들은 큰스님의 유언에 메여 큰스님을 알리는 일체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유언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는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월정사에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보문 스님의 행적을 찾아 나섰지만 더 이상 보문 스님의 실체를 알려 주는 기록들이 없었다. 보문 선사는 글 하나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보문 스님은 자신의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서문에서 밝히면서 힘겹게 찾아낸 스님의 생애를 조명했다. 보문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국보 사랑한 또 하나의 국보 이야기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이충렬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8천원



우리나라 박물관사와 문화사의 전설이 된 혜곡 최순우(1916~1984)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이 땅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간송 전형필〉의 작가 이충렬이다. 그의 한국문화예술인물사 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개성박물관 말단 서기에서 시작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순직하기까지 평생을 바쳐 우리 문화유산과 국보의 아름다움을 찾아 알리며, 박물관을 지켜온 최순우의 삶을 그리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의 귀한 보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큰 호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특히 장관의 성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1962년 1월 29일, 파리 세르누치박물관. 한국 국보전이 열리고 있었다. 한국 국립박물관 최순우 미술과장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프랑스 문화부장관인 앙드레 말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말로의 관심은 각별했다. 신라 금관, 금귀고리, 기마인물형토기,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을 차분히 관람한 말로는 마지막 전시실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볍게 턱을 괸 채 고요히 앉은 불상 앞에 선 말로는 20분이 넘도록 불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 국보 이야기다. 아니 혜곡 최순우 이야기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친 그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그는 선조의 문화와 이 땅의 유산이 모여 있는 박물관의 중요성을 알고 일생을 바쳐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켰고 발전시켰다.

버려진 석탑에서 천년의 역사를 추적하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백자항아리에서 미학을 발견하고, 비가 새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바라보며 배흘림기둥의 아름다움에 눈물 흘리던 혜곡 최순우, 그는 어떻게 우리 국보와 보물을 발견하고 탐구했을까. 세계를 감동시키고 매혹시킨 한국의 미는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복원해 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자료를 찾았다. 그가 발표한 문화재 해설 280편, 미술에세이 205편, 논문 41편, 사료해제 86편 등 모두 600여 편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그의 발자국 소리, 선조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왜 자랑스럽고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던 그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최순우의 삶은 외로웠다. 지금은 문화유산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 일제강점의 휴유증인 식민사관과 해방 이후를 휩쓴 서구우월주의에 맞서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우리 선조의 것을 사랑하고 지켰던 최순우야말로 진정한 '국보'가 아닐까. 우리 국보와 그 국보를 사랑했던 또 다른 '국보' 이야기가 잔잔한 교양을 선물한다.

박재완 기자

서재탐방 |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불교는 새 시대 흐름 이끌 사상

집안 구석구석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70)의 서재. 그곳은 시간을 잡아둔 광대한 공간이었다. 반지하의 서가에서부터 1층의 작업실, 20평 남짓한 다락방 서고까지 책들은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래된 토종소나무를 켜서 생긴 대로 조립한 겹겹의 서가는 손때로 반들거리고 송진의 향기가 짙었다.

허흥식 교수는 13권의 단독저술과 210여 논문을 발표한 한국사학계의 산증인이다. 그의 저술 절반 이상이 불교사인 만큼 불교가 중심이다. 서재에는 10가지 분야로 나눠 분류된 그의 저술과 관련 서적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국내 책들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고서들이 눈에 들어 왔다. 어떤 책은 등이 낡아 천이나 누런 종이가 덧대어 있었다.

책을 집필하는 작업실에는 주 전공인 불교와 역사책들이 중요도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다락방 형태의 2층은 다양한 인문학의 창고일 정도로 다양한 책들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가 각축을 벌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윈난성의 민족관계 서적이 많았다. 그는 민족불교학에 관심을 가지고 북전불교와 남전불교의 교섭을 민족학과 결부시켜 풀이하려는 저술을 집필 중이라고 귀띔했다.

작업실 한편에는 동아시아 문학 주석서들이 눈길을 끌었다. 허 교수는 "고려 중기 문인인 임유정의 〈백가의시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된 서적"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가늠케 했다. 불교사를 민족학과 문학, 사회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해 온 허 교수는 "동아시아의 중세사회는 불교와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말했다.

성실함이 학문 발달 이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문을 구상합니다."

그는 "서재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메모 해두었다가 책을 구상할 때 다시 꺼내서 글을 쓰곤 한다"며 "사유에 잠길 때 그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고려과거제도사연구〉(1981), 〈고려불교사연구〉(1986), 〈한국중세불교사연구〉(1994), 〈진정국사와 호산록〉(1995),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지공선현〉(1997),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2004), 〈한국신령의 고향을 찾아서〉(2006),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몽산 덕이〉(2008), 〈고려의 동아시아시문학〉(2011) 등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가 쓴 책들은 하나 같이 두툼하다. 사료부터 새로 찾고 판독한 토대를 사용했다. 안을 펴보면 내지 여백을 많이 두는 최근 경향과는 다른 빽빽한 글들이 눈길을 끈다. 비록 요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가벼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의 책들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내용의 충실함은 새로운 사료의 활용을 의미한다. 허 교수의 저술은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저술은 〈고려불교사연구〉와 〈고려



북전 불교와 남전 불교의 교섭을 민족학과 결부시킨 저술을 집필중인 허흥식 교수

한국불교사 낡은 이론 새 체계로 바꿔야
몽산덕이 연구·남방불교 전래설 돋보여
13권의 단독 저술과 210여 논문 집필

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몽산 덕이〉다. 허 교수는 15년간 몽산덕이에 관심을 기울였다. 허 교수는 이 책에서 보조지눌(1158 ~1210)이 〈육조단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서문을 썼음에도 조계수선사 11조 만항(1259~1319)이 몽산덕이가 쓴 〈육조단경〉을 유포한 점을 들어 새로운 주장을 펼쳤었다. 보조지눌의 서문이 담긴 〈육조단경〉이 몽산덕이의 〈육조단경〉이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중국 고승의 인가가 필요했던 만항이 보조의 서문이 담긴 육조단경을 휴휴암 몽산에게 전달했고, 이에 몽산은 이 판본이 그 어떤 다른 육조단경보다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허 교수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중 '비파사가 먼저 이르고 마하연이 후에 전래됐다(毗婆娑先至…摩訶衍後來)'는 구절을 통해 남방불교전래설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인도 날란다대학이 11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사라졌다는 학설에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 묘향산 보현사 자료를 토대로 〈삼국유사〉의 단군설화 이외에도 백호가 등장하는 또 다른 건국설화가 있음을 밝히고 고려말 나옹 스님을 중심으로 한 법통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허 교수가 학계에서 기존의 통념을 깨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주장이 아닌 그의 묵묵한 사료발굴을 통한 성실한 논리전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 교수는 앞으로 연구해온 과제들을 보완해 새롭게 엮어내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사와 한국사, 새로운 체계로 무장해야

"이 시대는 정설과 정예를 내세운 브리태니카 시대에서 시론을 중심으로 자료의 등록과 활용이 함께 가는 위키피디아 패러다임으로 변화한지 오래입니다."

학계에서는 통신의 발달로 쌍방 소통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허 교수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의 연구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그가 연구한 자료를 전산화한 일종의 사이버 박물관이다.

그는 "검색체계가 발전하면서 학문연구에도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도서관과 박물관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전서와 속수사고전서, 한국문집총간과 고전종합목록, 한국역사자료 종합, 중국기본고적고, 그리고 저작권이 지난 저술을 텍스트 화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그가 소장한 책은 2만 여권,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디지털 서적은 400만 권 분량에 달한다. 여기에 동영상과 음성, 도록 등을 포함하면 50배 규모로 늘어난다.

허 교수는 "불교야 말로 책, 그림, 조각, 동영상, 소리 등이 결합된 새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구현할 소재"라며 "한국불교사의 낡은 이론과 체계를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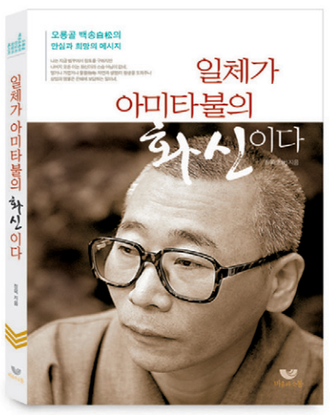
6/20~6/2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출판사
5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출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기쁨
9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10	시간의 선물	성원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불교TV 방송강의中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롱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염불 ·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스님의 일심정토 염불수행법
6월20일~9월26일 매주 수 오전 11시30분 불교TV 공개법회

[법문 일정] 제②강 일체경계는 본래일심. ③강 부처님의 부사의한 업용. ④강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 ⑤강 대승불교의 신행체계. ⑥강 수행문의 선택. ⑦강 정토를 보인 뜻. ⑧강 타방정토, 유심정토, 일심정토. ⑨강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 ⑩강 청명염불. ⑪강 일심정토염불수행의 신행체계. ⑫강 일심정토, 십념으로 아미타. ⑬강 일체가 아미타불 화신. ⑭강 감사 · 보은하는 삶. ⑮강 어두우면 염불하고 밝으면 일한다.

양산 정토원:055-375-5844, 다음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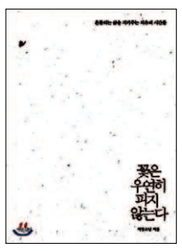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명상은 생활과 함께 해야 효과 크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책읽는 수요일 펴냄

1만4천원

심리 치유 명상 전문가 지장스님이 그동안 바쁘고 고단한 도시인들과 함께 나눈 지혜의 시간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써왔던 글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힘과 누리지 못한 인생의 기쁨을 질문의 시간, 상상의 시간, 휴식의 시간, 침묵의 시간, 공백의 시간, 기도의 시간, 통찰의 시간, 참회의 시간, 숙제의 시간 등을 통해 되찾는다. 그리고 돌아보기, 분별하기, 작별하기, 비우기, 흘러가기, 내버려두기, 지우기, 가꾸기, 사랑하기, 누리기 등 생활 속 작은 원칙들로 더 단단한 인생을 만드는 법을 안내한다.

이 책은, 책을 좋아하는 지장스님 본인이 체험했던 치유의 독서기이도 하다. 〈성경〉과 〈법구경〉에서 오래된 지혜를 익히고, 때로는 장자에게서 때로는 칸트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아주 실용적인 철학으로 삶을 돌아보고, 성자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노래로 허약한 우리들의 행복을 경고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과 삶의 철학자 몽테뉴의 경구도 명상을 위한 요긴한 텍스트이다. 느슨해진 마음을 자극하고 다시 긴장케 한다. 한 마디로 인생의 힘을 만드는 치유의 독서로도 손색이 없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순간, 더 사랑해야 할 때와 이제 그만 사랑을 놓아야 할 때, 책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삶의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전한다. 자존심이 상할 때엔 하심의 지혜를, 부정적인 생각에 맘이 편치 않을 때는 전망 이론을,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는 오근과 오력을 제안한다.

저자 명상하며 치유한 사례 소개
자신 믿음 약해질 때 ‘오근’ 제안
명상하며 기운 나누니 자신 변화
혼자의 힘으로 사는 법 터득 중요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또한 행복의 씨앗을 심고 행복을 경영하는 법에서부터 잊음의 행복과 앎의 행복까지, 정직하지만 튼튼한 행복론도 소개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하려면 왜 삶의 기쁨마저 떠나보내야 하는지 일러준다.

스님은 책의 프롤로그에서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명상 수행을 하며, 여러분들과 삶의 힘을 다시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수행의 힘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명상을 통해 맑은 기운을 나누니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변해하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요즈음 제 원칙은 세 가지이다. 잠 드는 순간을 꼭 알자, 시간을 벌자, 혼자 힘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자 등 이 세 가지이다. 잠 드는 순간을 알고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잠드는 순간까지 명상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시간을 많이 번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혼자 힘으로 지내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처럼 스님이 제안하는 삶의 힘을 만드는 원칙들은 거창하지 않다.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작은 시간들과, 의식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장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조계종 승려로 출가하였다. 이후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수행하면서 남방불교의 전통 명상법을 수련하고 돌아와 지난 2005년 서울 남산 자락에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우리의 차문화(茶文化)와 명상을 접목한 선차(禪茶) 시연을 선보여 현지 언론에게 주목 받았던 스님은 심리 치유 명상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찻잔 위의 클래식’, ‘숲속의 차명상’, ‘차 한 잔의 생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스님은 명상을 연구하며, 대학과 기업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고즈넉한 산중에서 차명상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마음에 이르는 여행〉, 〈마음을 열어주는 행복한 생활명상〉 등이 있다.

10분 명상법 담은 자기계발서



헤드스페이스

앤디퍼디컴 지음

윤상운 옮김

불광 펴냄

1만5천원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한 책을 통해 현대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끝없는 자기 착취의 사회’라고 질타했다. 더욱 생산적이 될 것을 강요받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는 소진되고 마모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피로하고 우울하다는 주장이다.

요즘 서점가에서 불고 있는 스님들의 힐링 에세이 열풍을 보면 현대인들이 이런 무한 경쟁의 성과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얼마나 치유를 갈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끝없는 자기 착취를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할 수 있는 사유 체계로 불교와 불교의 명상에 사람들은 희망을 품어 보는 것은 아닐까? 서구 사회,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국립 임상 연구소(N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는 불교에서 기원한 명상 기법인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의 의료 적용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영국 사회에서 명상은 만성 불안증, 우울증, 분노, 중독, 강박 행동, 불면증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이 책은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명상 컨설턴트인 앤디 퍼디컴이 10여 년간의 승려 생활을 바탕으로 완성한 ‘10분 명상법’을 담은 자기 계발 명상서다.

한때 불교 승려로 1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명상 수행을 한 저자는 2004년 영국으로 돌아와 일반인들에게 명상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려고 헤드스페이스(Headspace)를 설립했다. 영국 〈타임스〉가 “전문가 중의 전문가”, “영국 최고의 명상 구루(guru)”로 극찬한 바가 있는 그는 현재 영국 국회의원과 장관,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인기 배우는 물론 구글과 노무라증권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영국 현지에서 2011년 출간된 〈헤드스페이스〉는 현재까지도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으며 영국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개최된 TED 강연에 앤디 퍼디컴이 강사로 초청되어 큰 인기를 끌면서, 그가 영국 최고의 인기 명상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 수행 3단계(명상에 대한 접근하기, 명상 수행하기, 명상을 삶과 통합하기)를 제시하면서 알아차림(mindfulness) 명상 기법을 활용해 어떻게 요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승려 생활을 하면서 저자가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물론, 훌륭한 스승들에게서 전수받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가득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책 중간 중간 저자가 제시해 놓은 10가지 ‘명상 연습’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책 뒷부분에는 10일간 직접 명상을 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명상 다이어리’가 실려 있어, 10일간의 체험을 통해 명상의 효용을 느껴 볼 기회를 직접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10년 승려 생활 경험 녹여
명상 위해 ‘헤드 스페이스’ 설립
‘알아채림’ 통해 번뇌 제거법 소개
10가지 명상법 쉽게 설명해 놓아

〈10분 명상 따라 해 보기〉

–입문

1. 심호흡을 5회 실시하라.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 다음 눈을 지그시 감아라.
2. 의자에 앉은 몸과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라.
3.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음속으로 훑으면서 어느 부위가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지를 감지하라.

–집중

1. 몸의 어느 부위에서 들숨과 날숨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려라.
2. 숨을 쉴 때마다 각각의 호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리듬을 알아차려라.
3.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호흡을 세어라.
4. 이 단계를 5회에서 10회 정도, 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 번 되풀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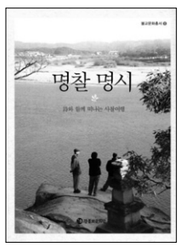
–마무리

1. 초점을 맞춘 대상을 모두 내려놓아라.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20여 초 동안 그대로 두어라.
2. 의자에 앉은 몸과 바닥을 딛고 있는 발의 감각에 다시 주의를 돌려라.
3. 가만히 눈을 뜬 다음, 일어서도 괜찮겠다고 느껴지면 일어서라.

22곳 사찰 역사 시詩로 쉽게 소개

명찰 명시

신대현 지음 | 활불교문화단 | 1만6천원



한국인에게 절이란 참으로 독특한 공간이다. 오랜 문화재가 남아 있고, 불교 의식과 신앙활동이 이뤄지는 종교적 공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우리 뿌리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시대를 축적한 건축이 있고, 공예와 회화가 있으며, 그 것을 노래한 이야기도 숨어 있다. 특히 사찰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인물, 정경 역사 등을 노래한 시는 우리 불교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숨은 소재이다.

사찰과 관련된 시는 대중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 한문으로 한 시라서 쉽게 읽혀지기도 어렵다.

저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천년고찰 22곳을 순례하고 사찰을 소재로 한 80여편의 시를 통해 역사, 가람배치, 전설 등을 이야기 한다.

탈속과 은둔의 사찰 ‘청평사’에서는 고려 중기의 명유이자 문장가인 이자현(1061~1125)의 시를 소개한다.

“임금님 말씀 받들어 패옥이나 짤랑거린다면/ 언제나 벼슬 놓고 속진을 씻어낼까/어찌하면 여기에 함께 은거하며/불사신의 경지를 얻을까나” 은둔의 이미지가 유독 강조돼 있다.

이자현은 흘연히 권세를 버리고 들어와 죽을때까지 여기서 은둔한 것이다. 만일 처음가는 사찰이라도 이 책의 시를 읽고 사찰에 간다면 사찰의 숨은 내력도 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어머니 봉양하며 느낀 효孝의 단상

산승의 어머님 시봉일기

정효 스님 지음 | 율도곡 펴냄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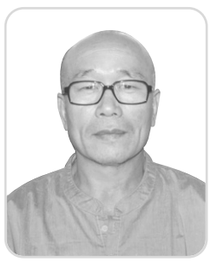
효는 만가지 선의 근본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이가 보살이며, 효심이 곧 불심”이라 설했다.

정읍 해정사 주지 정효 스님은 병환으로 고생하는 속가 모친을 3개월간 시봉한 것을 일기로 꼼꼼히 적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효도는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스님은 아파하고 있다.

출가한 승려로서 어머니께 효도해 드리고 싶은 극진한 마음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빈곤함이 절실해져 모든 것을 올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어 하염없이 운다는 고백은 가슴을 친다. 이제부터라도 알뜰하게 쌓음을 어머님 앞에 다짐 맹서로써 시작하려 한다는 고백을 한다. 이 책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린 일, 입맛 없으신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일 등 정효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효심이 책 곳곳에 녹아 있다. 그리고 스님은 이야기 한다. 어머님과의 소소한 일상의 삶이 큰 행복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말이다.

정효 스님은 “효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근본 사상이자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효를 실천하기란 사실 그리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진정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반성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爭安寺 心靈治癒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건강·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부처님 가피로 치유지도)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자연휴양숲 최절경
상담전화 010-6810-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의해'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신라불교 외연 넓힌 1백여 고승 행장 수록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이 책의 〈의해〉편에는 신라 유학승들의 당시 행적을 자세히 기술돼 있다.

1. '의해'의 함의

〈삼국유사〉 전 9편 가운데 「의해」편은 「탑상」편과 함께 이 책의 불교문화사적 성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의해'에는 경율론교의 사장(四藏)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론을 세운 이들의 '뜻을 풀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불교 이해의 '뜻을 풀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의해」편의 편목은 앞의 '왕력'과 '기이'를 제외하고는 「탑상」편과 함께 가장 많다. 그 분량으로 보면 「흥법」의 7조목, 「탑상」의 30조목, 「의해」의 14조목, 「신주」의 3조목, 「감통」의 10조목, 「피은」의 10조목, 「효선」의 5조목 등 83조목 중 「탑상」과 「의해」가 두 편명이 가장 많다. 「흥법」편에 이은 「탑상」편은 신라불교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의 「의해」편은 신라불교사의 지형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는 고승(13인)과 거사(사복) 및 인도구법승(9인)의 특징적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의해」편은 불교 공인 뒤 진종설과 골품제가 확립된 시대로 진입한 6~7세기 진평왕 대 이래 교학과 신앙 두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고승들의 전기를 집성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서술의 형식과 내용은 양나라 혜교의 〈고승전〉, 당나라 도선의 〈속고승전〉, 송나라 찬녕의 〈송고승전〉 등의 역대 고승전류와는 편목명과 내용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다르다. 찬술자 일연은 종래 여러 고승전들의 편목들

〈의해〉, 신라불교사의 지형 아울러 고승과 거사, 인도구법승 행적 수록

을 참고한 뒤 자신의 체계에 의해 이 편명을 확정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역시도 현재의 편명 배치와 조목 배속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체재상의 고민을 적지 않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중종 임신본의 경우처럼 일연의 제자인 혼구 무극의 추가 부분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행 과정에서 체재상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해」편에 실린 해당 인물의 분량과 내용 등으로 볼 때 전기 자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선 「원광서학」,「보양이목」, 「양지사석」, 「귀축제사」, 「이혜동진」, 「자장정률」, 「원효불기」, 「의상전교」, 「사복불언」, 「진표전간」,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승전촉루」, 「심지계조」, 「현유가해화엄」 등의 편목 중 「귀축제사」와 「관동풍악발연수석기」 2조목을 제외한 나머지 12조목은 승려 이름과 해당 승려의 특징적인 행적으로 조목명을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원광, 보양, 양지, 혜숙, 혜공,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진표, 승전, 심지, 태현, 법해 등의 14인과 아리야발마 · 혜업 · 현태 · 구본 · 현각 · 혜륜 · 현유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명의 법사 등의 인도구법승 9인은 당시 신라불교사를 지탱했던 가장 주요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미루어 앞 시대 각훈의 〈해동고승전〉에 견주어 볼 때 〈삼국유사〉의 전 9편 가운데 「의해」는 고승전류에 가장 부합하는 편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연은 「의해」편에서 고승들의 전기를 모두 종합하여 체계적인 전기를 서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는 고승전이나 행장 등에 실려 있는 내용을 거듭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 행장들에서 '빠진 사실'[遺事]만을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을 뿐이다. 이를테면 「원광서학」조에서 도선의 〈당고승전〉「원광전」을 실으면서도 「관동풍악발연수석기」를 함께 수록하여 다양한 자료의 출입을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료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바로잡기도 했지만 옳고 그름이 쉽지 않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신중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몇몇 기술 태도 등을 통해 일연의 「의해」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 신라불교사의 지형

한반도의 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달리 대륙의 선진 문화가 가장 늦게 들어왔다. 특히 신라는 오랫동안 고목신앙과 산신신앙 등의 고유신앙에 국집해 있던 6부족의 반대에 부딪쳐 불교 공인이 매우 늦었다. 때문에 불교문명과 함께 들어왔던 선진문물과의 접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해서 출가황제가 된 양나라 무제의 소식은 법흥왕에게 상당한 충격과 울림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법흥왕의 출가와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는 서서히 전국토가 불교화 되어갔다. 최초의 승려황제가 된 법흥왕은 최초의 절인 흥륜사에서 집무를 보았고 그의 왕비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진흥왕 역시 말년에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이처럼 신라 왕실이 주체적으로 불교를 선도하자 나라 곳곳에는 사찰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었다. 경주 서라벌에는 많은 사원들이 지어지고 법회가 수시로 열렸다. 백성들은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였으며"[崇信佛法求福], 사찰은 그들에게 "복을 빌고 죄업을 멸하는 곳"[修福滅罪之處]으로 이해되었다. "절과 절들이 별처럼 벌려서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나란히 간다"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신라인들은 불교를 통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며 불교를 통해 삼한 일통을 모색할 수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와 왜와 연합한 금관가야를 먼저 합병하고 뒤이어 백제와 연합한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리고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는 백제를 합병하고 나아가 반도내의 고구려까지 합병하였다. 이러한 합병의 정신적 힘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一心] 불교의 힘이 매우 컸다.

「탑상」편에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사원들의 불탑과 불상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반면 「의해」편에는 이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했던 불교 수행자들의 행장이 담겨 있다. 일연은 이들의 행장을 시인의 안목 위에서 특징적 행적을 적출해 내어 조목명으로 삼았다. 즉 서쪽의 진나라로 구법 유학을 떠난 원광의 '서학'(西學), 원광의 행적에 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양의 '이목'(梨木), 지팡이를 부리며 예술가 집단을 이끈 양지의 '사석'(使錫), 인도로 구법여행을 간 아홉 명의 법사들('諸師'), 티끌세상과 함께 했던 서민불교의 성자 혜숙과 혜공의 '동진'(同塵), 신라의 교단을 정비하

불교는 삼한통일한 가장 큰 원동력 신라 유학승이 동아시아 불교 이끌어

고 계율을 제정한 자장의 '정률'(定律), 일체에 구속받지 않고 살았던 원효의 '불기'(不羈), 화엄종을 전한 의상의 '전교'(傳教), 열 두 살까지 말을 못한 사복의 '불언'(不言), 간자를 전한 진표의 '전간'(傳簡), 사람의 해골을 돌로 만든 형상에게 화엄경을 강론한 승전의 '촉루', 진표 조사의 뒤를 이은 심지의 '계조'(繼祖), '유가'업의 종조인 태현과 '화엄'업의 종종인 법해 등을 담고 있다.

「의해」편이 담고 있는 6~7세기 진평왕 이후 신라 불교사는 불교 공인 약 100여년 만에 기라성같은 고승 대덕들 100여명을 배출시켰다. 이들 학승들은 모두 유가, 여래장, 화엄, 정토, 진언 등의 교학을 통해 신라불교의 내포를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넉넉히 한 불교 지식인들이었다.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 전적들이 번경 삼장들에 의해 번역되자 이들 학승들은 짧은 시일 내에 입수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이들 불교인들은 신라에만 머물지 않고 수당으로 유학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지 순례'와 '불전 입수'를 위해 인도와 서역을 향해 떠났다. 그리하여 본국의 성취를 단시일 내에 흡수하여 더러는 본토인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인 예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성취는 국내로 이어져 크게 빛을 보았으며 일부는 다시 중국(지장, 무루 등)과 서역(원측, 무상 등)과 일본(혜균, 도장, 행기 등) 등지로 전해져 그 나라 불교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3. 신라불교학의 성취

「의해」편에 실린 불교인들은 신라불교학의 대표적인 학장(學匠)들이다. 일부 학승들은 「신주」와 「감통」과 「피은」편에도 실려 있지만 「의해」의 인물들이 대표적인 불학자들이다.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뒤 진흥왕 26년(565)에는 입학승 명관(明觀)이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함께 '석씨경론'(釋氏經論) 1,700여 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진흥왕 37년(575)에는 진(陳)나라로 유학 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유학생 안홍(安弘, 安含)이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 및 불사리를 바쳤다. 이들 북인도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44세), 농가타(農加他,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46세) 등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다. 신라승 담화(曇和)는 이 번역을 한문으로 받아 적으면서 밀교 계통의 경론도 접할 수 있었다.

뒤이어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慈藏)이 돌아오면서 장경 일부(4백여 상자)를 가져왔다. 특히 명관과 자장이 가져온 경론들은 신라불교학의 연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유수한 철학자들은 이들 경론들에 힘입어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확보하여 독창적인 저술들을 간행하였다. 분황원효(芬皇 元曉, 617~676)는 〈금강삼매경론〉 등 100여부 200여권, 부석 의상(浮石 義湘, 625~702)의 〈화엄일승법계도〉 등 9부 10여권, 경흥의 〈무량수경문의술문찬〉 등 40여부,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등 25부, 도증의 〈성유식론요집〉 등 13부, 승장의 〈범망경보살계본술기〉 등 7부, 현일의 〈법화경소〉 등 10부, 둔륜의 〈유가사지론기〉 등 20여부, 태현의 〈성유식론학기〉 등 52부 등은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이들과 같이 많은 철학서를 남긴 저술가 이외에도 소수의 저술을 남긴 사상가들도 적지 않다.

즉 법위의 〈무량수경의소〉 1부, 지인의 〈십일면경소〉 등 5부, 영인의 〈해심밀경소〉 등 3부, 행달의 〈유가론요간〉 등 2부, 순경의 〈법화경요간〉 등 4부, 오진의 〈인명론비궐약초〉 등 3부, 지통의 〈화엄요의문답〉 등 2부, 도신의 〈화엄일승문답〉 1부,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등 2부, 명효의 〈해인삼매론〉 1부, 혜초의 〈왕초천축국전〉 등 3부,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 1부, 연기의 〈화엄경요결〉 등 5부, 대연의 〈대방등여래장경소〉 등 4부, 견등의 〈화엄일승성불묘의〉 등 3부, 월충의 〈석마하연론〉 1부, 진숭의 〈화엄공목기〉 1부, 의융의 〈화엄석경명장〉 1부, 정달의 〈대비바사론소〉 1부, 심상의 〈화엄기신관행법문〉 1부, 범여의 〈화엄경요결〉 1부, 가귀의 〈화엄경의강〉 등 2부, 순지의 〈현법상표〉 등 3부, 단목의 〈범망경기〉 1부, 대비의 〈금강반야경소〉 1부, 법융의 〈법계도기〉 1부 등은 이 시대의 대표적 철학서들이다..

남국인 통일신라 말에도 〈삼국유사〉「탑상」편 '전후소장사리' 조목의 기록처럼 보요(普耀)선사가 오월국에서 두 차례나 대장경을 가져왔으며, 묵화상이 후당으로부터 대장경을 가져왔다. 북국인 대발해(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초반에 불전이 전해지고 후반에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정소(貞素) 등이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하였다. 이처럼 고대 사국은 인도와 티베트 및 중앙아시

한국불교 정체성 신라불교에 의존 〈의해〉에 실린 불교인, 신라불교학 거장

아와 중국 등을 통해 들여온 불전을 한역하거나 한역된 불전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행에 매진하고 교학을 연찬하여 저술들을 널리 유통시켰다. 이 시대 신라 불학자들이 남긴 저술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드높였고 인식틀을 드날렸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성취는 신라불교의 성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의해」는 해당 인물들의 특징적인 행적의 채록을 통해 신라불교의 성취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김영태, 〈한국불교사〉(경서원, 1997).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39, 1982.
최병헌, 「삼국유사의 의해편과 신라불교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제33집(2012)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역주삼국유사〉 V, 2003.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주는 것, 그리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선(善)이다

-사분율-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무장(女)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안산)
도심지 조용한 도량
031)480-2258
010-3778-2257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배 우 자 구 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배 우 자 구 함

남 54세, 철학원 운영,
대학교 철학교수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010-4014-8822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관 상 • 손 금

'질병'을 전문으로 판단한다
개인지도(나이관계 없음),
스님특별지도, 철학관 하실 분,
출장도 가능
010-4014-882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011-770-531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불교대장경 및 고려대장경을 구입하여 소장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383-5077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종식, 타법
기본 - 천도재의식 : 1. 시련, 대령, 관욕, 39위, 2. 봉청짓소리, 대령소(고혼소)복전게, 향화청(장소리), 고아일심귀명정례, 건소리, 불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 다게)
고급 - 생전예수재,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수시모집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010-9467-0340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무지한 욕심으로 고달픈 사바인생 일대사 내려놓고 인연만큼 쉬다가소
남처사 5분, 여보살 5분
자신한번 돌아보소 놀랍기
그지없소 눈앞세상 다 구름꽃인
것을 비슬산 자락에서 농사지어
자급자족 토굴이오
나무아미타불
010-4846-279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조계종 경북권 지장보궁 기도가 합수록 편안하고 힘있는 도량이오니 종파를 초월 자기 기도할 기도처 찾는 비구니스님을 절 보기 겸 국내3대보궁중 제2보궁이오니 기도하시기 바람. 그리고 40~60대 청결한 공양주 조석으로 자기기도하고 후원살림을 맡아 큰스님 공양받들 보살님 속히 구함.
(보시금은 도량 답사후 결정함)
국내제2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 문 여 행 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4평
- 가액 : 3억5천

토 굴 터
- 위치 : 전남 완도
- 부지 : 580평
- 가액 : 3500

※건축허가가능, 앞면 바다 보이고 뒷산 경관 특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토굴 터 (완도)
- 부지 : 600평
- 즉시 건축 가능
- 바닷가 500m 바다 전망 최고
- 포장도로 접, 소나무 뒷산
- 총금액 : 4200만원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대:97평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가액: 3억(전세절충)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법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58-7 [지하철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불 법당만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근교
- 서울 1시간 거리의 60여년 창건역력
- 삼성각, 종각, 대법당
- 2층 종무실, 요사채2동
- 건평 총 146평
- 종교용지 364평, 임야 1,690평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010-9669-13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5천만원

010-4396-77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숲속의 터, 절, 전원주택

- 위치 : 경남 거창군
- 총평수:전,답 1300평
- 지방도로 접해있음
- 정 남향,택지조성 되어있음
- 터주위 3면이 숲으로 형성됨
- 보전관리,경관이 수려함
- 택지상단에 암반우물있음
- 가액:8천3백만원(절충가능)

010-2493-2452

사찰터안내

- 경남 창원골프장 반대편 산등성이
- 전 4000여평중 (골라서 무작위) 1300평, 분할가능
- 평당 110만원(60.5평 이축권포함)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도심속산중사찰

- 위치 : 경기도 파주읍
- 대웅전 24평
- 요사채50평, 방3,큰주방1,욕실1 난방, 심야보일러
- 대로변에서 5분거리 주변은 산
- 보증금 3천만원 월1백만원(조정가능) 시설비(양도도 가능)

010-4517-55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 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 ,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절충가능)

010-2503-077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 융자 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 좋은 명당터에서 자리 (땅주인 따로 있음) .작은 암자 대작불사 하실분, 도통을 원하시는분, 불치병에 걸리신분이 이 터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054)776-2677

아담한 토굴안내

- 강릉시 사천해수욕장 뒤 아담한 토굴
- 큰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 대지 텃밭 합 약 250평 (1년도지 20만원 야채는 자급자족)
- 법당 외 방 4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종1, 집기일체
- 양도 가액 3,970만원(절충불가)

010-2461-3014

포교원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시설비 합 500만원

010-8315-2100

사찰(급)안내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근처
- 대지 224평
- 법당 30평, 산신각, 옥외화장실 2개, 하우스 1동
- 주차장, 텃밭, 천연염색 가능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1-9588-592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3분거리
- 3층 상가 건물중 3층
- 평수: 78평 (옥상사용, 산신각)
- 보증금 : 5천만원/ 월 100만원 (가격절충),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답사하신 후 조정(특A급)

010-9765-7754

전원주택 및 기도처

- 위치: 함양군 서하면 노을정 주변
- 대지 230평
- 건물 하우징 목조주택 20평
- 주변이 화려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
- 전원주택 및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천만원

010-8828-371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일야,밭(약1만3천평)
- 법당 30평,삼존불,산신각 1400년 석탑(문화재지정)
- 교통편의(경주15분,부산40분, 울산,포항 30분거리)
- 가액:전세보증금 8천만원

010-3408-0003
010-2262-00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북구 산격동
- 2층 40평
- 법당,주방, 큰방, 화장실
-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4만원

010-4506-5302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끝자락
- 전, 임야 총 670평
- 가액: 2500만원
- 청정지역, 물 좋고 산세좋음. 1급수
- 양쪽산이 감싸고 있어 공부하신 분께토굴터로 적합

011-424-4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5천만원

010-4396-77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 65평, 방 9개
- 시설비최저가절충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천만원 월세 팔십

031)427-4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경관 좋은 토굴,산방터

- 위치 :경남 합천군 용계리
- 답,임 약 800평
- 남동향,시멘트 포장도로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만대산7~8부 능선,건축가능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900만원

010-9367-1010

서울 남산 포교원

- 위치 : 남대문시장에서 3분거리
- 법당 27평, 요사채 13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5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없음

010-3840-827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양주
- 부지 : 300(+200시유지)평
- 건물 : 건축허가
- 차량진입
- 급양도:5억→2억5천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00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큰절터안내

스님과 불자님께만 해당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참 괜찮은 땅1300평, 남향 뒤쪽과 옆쪽은 솔밭
마을 뒷편 포장도접 건축용형질변경
허가 받았던 길지, 큰스님 절터
감정받은 명당지, 전기가설안료
작은 계곡 접 평당 17만원(부동산 사절)

中山 합장 010-3872-03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 동대구 IC 10분거리
- 건평 : 26평 (1층 공양간, 방1, 화장실/ 2층법당, 방1개)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특징: 법당 아미타불 3졸불
- 인근 아파트 단지

011-502-788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영천시 화남면 죽고1길
- 부지 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삼존불(청동불)후불탱화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가액: 2억 6천만원
- 스님건강상 저렴한 가액으로 급 양도

010-2544-484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입암
- 약수터부근
- 건물 18평, 대지 47평
- 마을 끝 외딴 곳, 남향
- 차진입, 즉시입주가능
- 최저가액 1900만원
- 주인 직거래

010-8899-8899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가는 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 법구경 -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1〉 미망에서 깨어나기

아픔은 현상일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호부터 태국의 여성법사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의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를 게재한다. '병석 명상법'이라는 부제의 이 법문은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며 수관하는 내관명상을 통해 미혹에서 깨어나는 법을 일러준다. 본명이 케나나용(1901~1978)으로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법사였던 필자는 "우리 모두 병자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며 그 미망에서 벗어나는 길안내를 해준다. 〈편집자주〉

우리 모두는 병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만 없으면 병자라 여기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다 그런 식이지요. 활동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이를 정상이라 부르면서 병든 상태와 구별하려 듭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상 상태라는 그것 또한 바로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무너져 내리는 큰 병에 걸려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건강하다느니, 정상적이라느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고 무지한 자만입니까. 그 자만에 빠져 세상사에 몰두하느라 겨를이 없다 보니 자신의 큰 병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병이 들어 누워있는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아무 일 하지 않고 오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만을 바라보고[隨觀: 대상을 간단없이 계속 지켜보기]있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덕분에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쏠리지도 않고 정신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온종일 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드디어는 24시간 내내 고통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신경을 깊은 관찰 · 숙고에 쏟게만 된다면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저절로 스러져 갈 것입니다. 이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아픔을 느낄 틈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세상사에 바빠서 자신의 병을 돌아볼 틈이 없다는 뜻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 휩싸여 다른 생각이 없는 비어있음은 놀이에 팔려 정신이 없는 '비어있음'이요, 그러한 '비어있음'은 진짜 빈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이 때, 바로 당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현상들이 얼마나 속절없고 고통스러우며 그러면서도 막상 거기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만 된다면 이는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아픔을 느끼고 있는 당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속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저 여기에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건들은 사건일 뿐, 그것이 당신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당신 것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진짜 당신의 것, 당신의 소유물이라면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 사건들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들이 당신 것일 수 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 뜻대로 손쓸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몸이 아픈것도 그렇지요. 몸이 아픈데 당신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몸, 내 몸이 아프다' 고만 마음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몸에 어떤 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정작 마음속에 번뇌, 갈애, 집착과 같은 큰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신체적 병에만 신경을 쓰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겁낸 나머지 이를 면해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병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며, 어떤 좋은 약도 병의 진행을 그저 잠시 유예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힘이 넘치던 항우장사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침내는 자신의 육신과 이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관찰 · 숙고해 나가면 당신은 모든 것이 속절없고[無常], 고통스럽고[苦], 실체가 없다는[無我] 명명백백한 사실을 자기 속에서 확연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한걸음 한걸음씩 현상에 대한 미망에서 점차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향숙 판화 '靜觀自得'

병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건
육신에 일어나는 지수화풍 변화
고통을 바라만 보십시오 隨觀

거듭 관찰 숙고, 깨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속절 없고 無常
고통스럽고 苦
실체가 없음을 無我
확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것은 오온의 가합
고락에 끄달리지 않으면 '자유'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가게 놓아버릴 때, 거기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까요? 아파하고 있는 것이 과연 당신일까요? 아니면 아픔이라는 한 현상[dhamma, 法]이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사건 전개일 뿐일까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서 아프고 있는 것이 결코 '당신'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병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병이란 육신에 일어나는 현상이자 지 · 수 · 화 · 풍 사대(四大)의 변화일 뿐입니다. 육체적 현상이나 정신적 사건들은 변화하기 마련이며[無常], 변화 속에서는 긴장될 수 밖에 없으며[苦], 변화와 긴장 속에 자아가 있을 순 없는[無我] 것이지요. 당신은 이런 무상 · 고 · 무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 그것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지켜보아야 하며, 수관(隨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아주 분명해지도록 하십시오. 그 지혜가 분명해지는 경지, 거기가 바로 당신이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온(五蘊)이야 저들 사저엥 따라 일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스러져 가기 마련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테지요.

어떤 사람들은 한창 건강하고 자기만족에 차 있을 때 갑자기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뜻밖의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병상에 누워 고통을 관찰하면서 미혹에서 깨어나고 있는 쪽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 고통이 계속되거든 그런 대로 내버려두십시오. 다만 마음까지 덩달아 고통을 겪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나', '내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가 어떤가 그것만을.

계속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들여다보면 마침내 사물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밖에 자신의 상태나 처지에 대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병이 치유되거나 고통이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지요. 반면에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또한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 '나' 또는 '내 것'에서 벗어났다면 이는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트별한 일이 됩니다. 이미 거기에는 고통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온의 고통 따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누워 병과 더불어 매순간 내관명상(內觀瞑想)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병원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그것이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것은 일체 괘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만 비어있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름 붙이는 일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오온의 가합(假合)입니다. 단지 가합일 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인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든지 '내 것'이라 할 그 무엇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비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있든 저리로 가든 또는 그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되면 육체의 고통도 정신의 억압도 확실히 끝나게 됩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Tan Acharn Kor Khao-suan-luang)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케나나용(Upāsika Kee Nanayon 1901~1978)은 현대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법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분은 몸소 소박한 삶을 살았고 단도직입적인 설법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생전에 라즈부리(Rajburi)근처에 여성을 위한 수행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 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95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교시설안내
•위치 : 광주 오포 신현리
•분당에서 5분
•대지 약 500평, 도로지분 80평 포함
•건물 50평 2동 (합 100평)
•용도: 종교시설, 기도원, 요양원, 회사연수원, 사무실, 주택
•등산로 인접 ,정남향 전망터 최고
•융자가능
•가액: 시세에 절반가격
011-726-4711

사찰안내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부지 500평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주차용이
•가액: 5억 5천만원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010-5262-5545

사찰안내
•위치 : 울진군 북면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대웅전 23평, 산신각 4평, 요사채 방2개, 부엌1
•화장실 남녀 1칸씩, 주차장완비
•채소밭 70평, 각종 과일나무 및 꽃나무 많음
•비닐하우스 2동
•산 깊고 물 좋은 곳, 기도발 잘 받는 곳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별장식암자안내
•위치 : 충북 충주시
•대지 290평
•별장, 요사채 45평
•법당, 조립식 17평
•산자락 위치, 남향
•조경 최상, 교통편리
•자동문 차고
•가액: 3억 5천만원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대지 123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0평
•경치 좋고 기도 작품
•전원생활 적합
•가액: 5천 5백만원
010-8829-3973

포교원(급)안내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하 약 50평
•법당1, 삼존불 모셔있음(법회가능)
•원장실1, 샤워실1, 공양간1, 세탁실1, 창고1, 출입구2
•꼭 필요한분 연락바람
•양도가액: 1억 1천만원
•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10-3391-3538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광면 병산골
•2층 법당 : 아미타불, 지장, 진신사리 봉안, 후불탱화, 신중탱화
•1층 공양간 및 스님방: 냉장고2, 에어컨3, 시수도지하수정수기
•보증금 800만원 월 8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외딴 곳으로 연꽃 연못, 텃밭 문앞까지 포장도로, 기도 도량으로 무상
010-8558-1237

명당절터안내
•큰명당절터 1800평
•평당 20만원
•현재 밭과 대지 남향 •즉시건축가능
•분할 판매도 가능함.
•수도권, 풍광좋고 도로 매우 양호
•지금 준비된분만 연락하세요
•조건에 따라 최고조건 협의가능
010-4880-7890

종교관련시설터
•요양원, 수련원, 선방, 포교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북한산 자락)
•평수 : 400평(대로에서 200m)
•건물 : 약 40평 있음
•특징 : 산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가액 : 15억 (주인직접)
011-372-7744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역 역세권
•3층 건물 중 2층, 평수: 33평
•법당1, 스님방1, 공양간1, 실내화장실1, 샤워실1
•보증금1천만원, 월세 77만원
•부과세 포함, 시설비 3300만원
•상담 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011-778-6670

건물안내
•위치 : 포교원 요양병원 최고의 위치
•부산에서 최고 자리 지하철 역세권
•대지 550평, 건물 900평
•일반상업지역
•가액: 50억
010-8676-2278

대형사찰터안내
• 위치: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 대지 전 합 2만 7천평
• 주택 3동 다수의 농가주택
• 소백산정상구인사반대편 국민봉
• 상월봉신선바위아래청정계곡상류
• 가액: 합 35억
010-3288-1317
서울권 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2499-231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10층 빌딩의 3층
•평수 : 60평
•시설 A급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찰양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경' 이야기 (27)

비구가 된 단미리

약을 받은 왕은 부자를 부처님께 인도

어느 나라에 담마관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 컸다. 그는 매일같이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결국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고 10달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됐다. 담마관질은 자신의 아이에게 단미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단미리는 외모가 뛰어나고 명석한 아이였다.

시간이 흘러, 단미리가 장성하자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됐다. 단미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그때 그 나라 왕자가 병에 걸려 위독했다. 왕은 여러 의원을 불러 자신의 아들을 진찰하게 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병을 낳게 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어느 날 왕에게 한 의원이 찾아왔다. 그 의원이 왕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병은 붉은 찬다나를 바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려라. 붉은 찬다나를 가져 오면 금화 천 냥을 상금으로 주겠다."

소문은 금새 온 나라 안에 퍼졌다. 어떤 사람이 왕을 찾아와 일렀다.

"단미리라는 자를 찾아가면 찬다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길로 바로 단미리를 찾아갔다. 단미리는 자신의 집에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맞이했다. 단미리의 집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고, 금과 은 등 많은 갖가지 보석들로 치장돼 있었다. 왕은 단미리의 집안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때 왕을 본 단미리의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그대는 왜 눈물을 흘리는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왕께서 저희 집을 직접 발걸음 해 주시니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삽화 · 강병호

단미리는 왕에게 대접할 음식들을 준비했다. 단미리가 음식들의 이름을 읊자, 음식들이 왕 앞에 놓여졌다.

"음식이름을 대기만 해도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만 해도 눈 앞에 음식이 저절로 놓입니다."

왕은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단미리가 왕에게 물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떤 일로 저희집까지 왕림하신 것입니까?"

"내 아들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 붉은 찬다나를 써야만 살 수 있다. 자네가 찬다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다. 혹시 찬다나도 음식들처럼 생각만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단미리는 왕을 자신의 창고로 안내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왕은 창고에 가득 쌓인 찬다나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지금도 돈이 넘쳐나니 상금은 필요없을 것 같고, 대신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일러주겠네."

"무엇입니까?"

"지금 라자그리하 숲으로 가면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네. 자네가 그 분을 꼭 만나뵙기를 바라네."

단미리는 왕의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이 단미리를 보고 기뻐하며 환영했다. 그리고 단미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난다가 물었다.

"어째서 저 자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출가하게 된 것입니까?"

옛날 5명의 비구가 살았다. 그들은 함께 산에 들어가 도를 닦기로 했다. 그때 4명의 비구가 한 비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산에 들어가면 탁발하기 힘들 것 같소. 자네가 우리를 위해 공양을 해준다면 큰 복을 받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한 비구는 매일 같이 탁발을 해 나머지 비구들에게 음식을 공양했다. 나머지 비구들이 고마움에 그 비구에게 물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오." "저는 나중에 큰 스승을 만나 법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져 도를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그 비구가 지금의 단미리다. 그는 매일 같이 비구들에게 공양을 하고 항상 남을 존경하며 나를 만나 도를 얻게 된 것이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팔만대장경 속 우화 29

-동물에게서 타락을 배운 왕-

구성-김흥인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대행 스님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바로 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한도반으로서 말씀드려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에 얼마나 쫓고 쫓기며 왔겠습니까. 마음이 진화되니까 몸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비디오 테이프나나 카세트 테이프에 아마 그 말이 실려있으며 또는 회보에도 실려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금방 딴 말을 할 때 벌써 한마디 한 거는 과거로 돌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귀에 매달리고 글자풀이에 매달린다면 이 공부는 천부당만부당하게 돌아가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중세계의 쫓고 쫓기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억겁을 통하고 또는 끝간 데 없이 그 차원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끌려다니고, 정신세계의 노예요 물질세계의 노예로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만 끄달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작 마음의 눈이 없다면 자기가 보고 듣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죽만 보지 속은 못 보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하는 데도 하나도 이익이 없게 되죠. 여러분은 인간의 바른쪽 왼쪽 두뇌는 우리가 물질세계로써 율동하는 것과 모든 거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중도로써 중용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의학박사들도 많겠지만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이고 내는 거기서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을 바로 중심, 중도(中道), '주인공(主人空)'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끄달리고 정신에 끄달리고, 내 인과에 끄달리며 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기초가 든든치 못하면 집을 짓다가도 무너지는 수가 있고 금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육신 속에 그 많은 인과 업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이 뭉쳐서 수도 없이 들고 나는 것, 좋은 거는 잠시 잠깐이고 언짢은 것, 화내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술 먹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 모든 이 일체가 다,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는 그놈들이 어딨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그 몸 속에 다 의식들로 돼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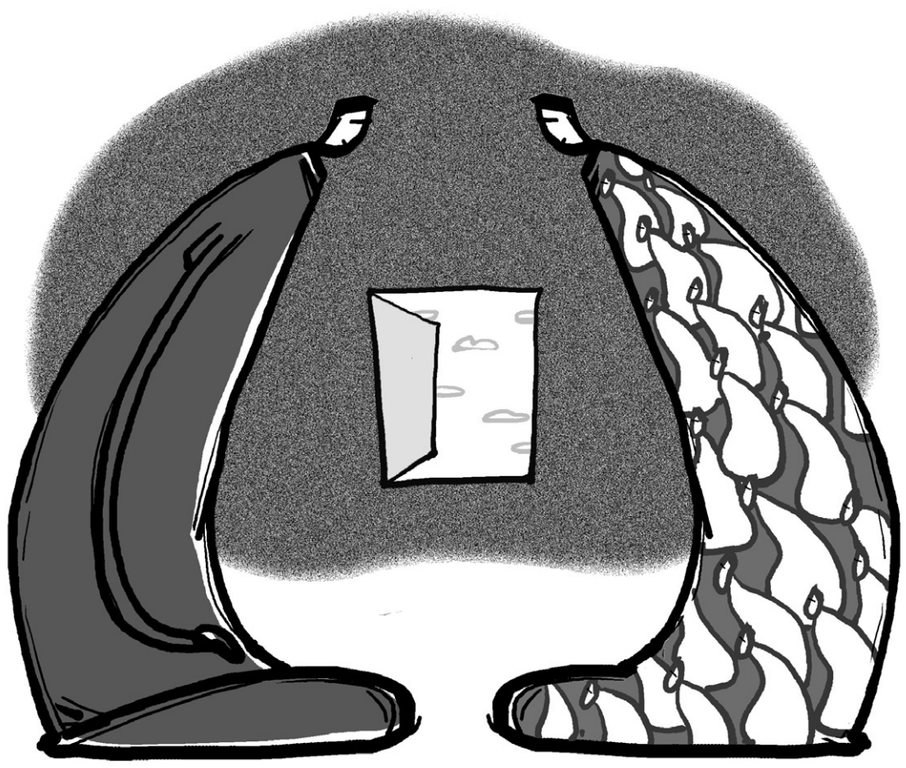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수만 개가 헤아릴 수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바로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三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느냐? 이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그 자체, 악업 선업이 지금 현실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또 여러분이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좋은 일이고 언짢은 일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고를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들이는 것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도 다스려서 낸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그렇게 통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깊이 잠재해있는 그러한 도심이라고 할까, 또 중간에 있는 도심으로 들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들이는 그것을 거기다 맡겨야만이 그렇게 되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라고 시각적이나 감각적으로다가 그냥그냥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고 내일 일이고 자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까? 생각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오게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중심에, 중도(中道)에, 중용에,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누가 되지 않고 모든 점에서 그 중용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뇌, 바른쪽 뇌 이 중심적인 그 표현도 그렇게 두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양가장이로 통신망이 그렇게 돼 있죠. 수없이 귀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 마음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전부 사대(四大)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나간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불제자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이 교(敎)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들은 사이가 없으면서도 들은 건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등은 없다, 일등이라야 한다고 말하듯이 우리 마음공부하는 것도 이등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등을 했을 때는 부처님도, 일체제불도, 일체 중생도 정말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섭류해서 내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때에 바로 그대로,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그 얻는 것조차도 일등으로 이겨서 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모든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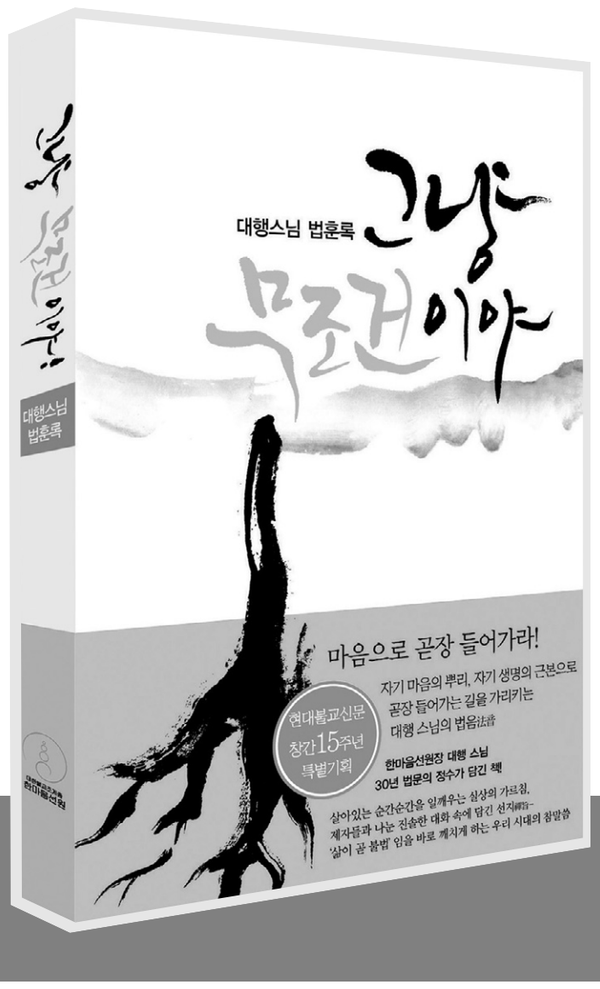
우리가 때에 따라선 한마음을 쓰고, 때에 따라선 뭐, 두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세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원인이 과학적으로 지금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지구도 지키고 인간도 지킨다는 사실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그렇게 간추려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들이는 거를,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인공에서.

'한마음' 하는 거는 여러분 몸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악업 선업이 업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모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세계를 알지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생들을 다 알고 나면 한마음으로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생각해보십시오. 위장, 척수, 척추, 콩팥, 심장,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정신이나 물질세계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모두가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말입니다, 악은 악으로만 나갑니다. 선은 돈을 주고 악으로 하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은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꾸 안되게 하고 자꾸 남을 증오하게 하고 모든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얘깁니다. 남을 때려 죽이고 남을 해롭게만 해서 악이 아닙니다. 남을 둘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둘로 보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대가 생겼으며 세상이 벌어졌을까?'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다면은 이 공부에는 여간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놓는다면, 눈 밝아져서 마음 안의 눈과 육안으로 보는 눈이 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들이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야만이 모두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전부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립니다. 악업 선업이 둘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그 끝간 데 없는 진리지마는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백억화신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응해달라는 대로 약사로도 응해주시고, 관세음으로도 응해 주시고, 지장으로도 응해 주시고, 천만 가지 만만 가지를 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찰나에 응해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가에서 산다고 하지만 스님들도 속가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유마힐 거사처럼 그렇게 부처님과 동등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부터 제도를 해야지 바깥에 끄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항상 이 마음이 충족되고 내가 완전히 그 이치를 알아야, 즉 말하자면은 그 순서도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거니깐요.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고, 다스리는 그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안에서 벌어지는 마음이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라면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했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대장이나 소장에서, 만약 어느 한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대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 어디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와져서 부자 부럽지 않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부자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요 또는 어디고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이 당당한 것이요, 그것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아니라 내가 쓰려면은, 내가 필요한 거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만날 가난하기에 바쁘죠. 그뿐만 아니죠. 가난뿐이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전쟁터에 나가면 이등은 없다, 일등이라야 한다고 말하듯이
> 우리 마음공부 하는 것도 이등이 없습니다.
> 무조건입니다.
> 그래서 일등을 했을 때는
> 일체제불, 일체중생도, 정말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 모든 것을 내가 섭류해서 내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 것이니
> 그때에 바로 부처는 부처요, 중생은 중생이요,
> 풀은 풀이요, 불은 불이요, 산은 산이다
>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곧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를 볼 때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에 너무나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있다가 콤퓨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누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들이는 것도 바로 여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하고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여기다 맡겨서 낼 수 있다면, 지금 레이더망에서 들이고 내면서 책정해서 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삼아서 돼 있다구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모든 것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야!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거기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와야겠다. 그래서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여기서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은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거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듣고 글귀로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모두 한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안 합니다. 한 마디라도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고 본다면 한 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 한 것도 없고 한 행동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도가 있는 거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으로 정신세계의 노예가 되는 건 어떤 거냐? 나를 조금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걸 그대로 듣는다면 그건 정신 노예죠. 또 처음에 이렇게 믿고 거기다 놓고 갈 때 물질을 보고 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바로 물질세계의 노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저 언덕을 넘어서야만이, 그 언덕을 넘어서 만납시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이러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항상 그 생수가 있으니 그걸 없다고는 못 하죠.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 밝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가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마디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큰 독사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또 거위가 지렁이로 변해서 이만하게 (양 팔을 벌려 보이시고) 돼가지고 곤충이나 세균이 전부 나와서 그냥 널비하게 있다고 합시다. 또 저기 들어가면 머릴 풀어 산발한 귀신들이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의식적으로 벌써 '어이쿠!' 하겠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 안기면 맞아죽는다, 또는 귀신한테 말려죽는다 그럴 겁니다. 모두 징그럽게만 보이고 똥통의 구더기는 그냥 여지없이 크게 보이고, 내 이 사대(四大)가 다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도 내가 배우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냥 거길 못 건너가,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건너가지 못하지, 그럼 이차적은 뭐냐? 기독교, 가톨릭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강을 건너 저 언덕에서 우리 같이 한자리를 하고 만납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기가 그냥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니 오백생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내 의식이 저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도저히 배가 오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생각 끄떡하면은 찰나에 갈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추천선물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법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42수진언 족자 (그린)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검색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

불자 세상보기

제로 성장사회를 사는 법



유정길
에코붓다 전 공동대표
평화재단 기획위원

오래전에 우리 단체의 대학생회에서 미래사회의 새로운 방향과 청년들의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스승들을 찾아 다니는 '선재기행'을 다닌 적이 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응용한 것이다. 이 기행중에 일정기간은 훈련삼아 무전여행으로 다녔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전여행중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감사하며,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는 말을 했다.

돈이 많으면 굳이 여러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 차나 기차를 돈을 주면 탈수 있고, 모텔이나 호텔에 돈을 주면 다 이용할 수 있으며, 식당에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면 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결국 거리에서 자동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킹(Hichihiking)을 해야한다. 배가고프면 집이나 식당에 들어가 아쉬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술의 밥을 청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결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 의존해서 생존해야 하며, 당연히 겸손하게 관계를 맺게된다.

부자들은 돈에 의존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결국 사람끼리 서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몇 년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최근에 그리스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가 유럽에 불고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무한정한 성장을 하려는 인류의 탐욕이 오늘날 결국 환경위기로 나타났고,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에 생존방식은 결국 사람과 사람간의 협력과 의존성을 높이는 삶이어야 한다. 서로의 의존성을 높이는 것만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효율은 높지만 비인간적이며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둘다 모두 성장과 생산력주의, 풍요를 진보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오늘의 위기를 만든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뛰어넘는 경제시스템으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1844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인류탐욕으로 환경위기 맞아
사람간의 협력과 의존성 높여야
ICA 가입 협동조합…70만개

이후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에 이어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전력공급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크게 확대되어 발전해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되어진 협동조합수만도 70여만개이고, 90여개국의 10억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대신 주식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이 표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와 다르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개발적이고 성, 인종에 차별없는 문화개방, 둘째, 출자한 사람이 1인 1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셋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이용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고, 넷째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다섯째는 조합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여섯째는 협동조합간의 연대, 일곱째는 지역사회의 기여이다.

작년 2011년 말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12월부터는 5명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와 공공성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많아 지길 기대하며, 불교에도 이러한 많은 조직화 활동이 발흥하길 바란다.

사부대중 발언대

불징계권은 '평등권' 위배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은 종헌 제36조와 38조에 명시된 중앙종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종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있다. 종법에는 이는 오래 전부터 종도들에게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종회는 조계종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 입법기구다.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은 평등권의 위배이다. 이미 종헌 37조에는 '중앙종회의원이 직무 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다. 이는 자신이 종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임할 때 문제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종회에서 '불징계권' 폐지에 대한 의원 스님들의 주장이 더 많았다는 것은 스님들 자신이 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의원 스님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중앙종단의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쉽지만, 종법 안에서 징계를 결의 인원을 축소한 것도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다.

첨언하자면 종회의원 '불징계권'에 대한 종도들의 불신이 쌓인 것은 그간 총무원의 잘못도 없지 않다. 종회의원 징계가 제적의원 2/3 이상의

율장과 윤리 벗어나면
누구라도 징계 받아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징계 사안을 종회에 올리지 않았다. 추상같은 율장과 사회 윤리에 벗어난다면 누구라도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관한 것이 된다.

이번 종회는 쇄신 입법의 골간을 잡는 자리였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종도들의 격려와 조언, 건전한 비판이 중앙종회에 쏟아지길 바란다. 그래야 한국불교가 바로설 수 있다.

과학까지 개신교가 점령하나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법사

'진화론의 패배'. 최근 신문지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이다. 개신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후)는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교과서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고교 융합 과학교과서 7종 중 5종에서 이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논란이 뜨겁다.

교진추의 논리는 이렇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진리가 아닌 가설이다. 창조론을 기반한 지적설계론 역시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공교육 과학 교과서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단체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유수의 과학논문지 〈네이처〉가 한국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퇴조를 우려할 정도가 됐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기하학이 영원한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주에는 여러 우주가 있고, 이 우주들은 우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끊임 없이 진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이다.

특정 종교 주장 관철 문제
창조론 교과서에 못 실어

분명,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자고 말할 수 없다. 교육 사회는 최첨단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수 많은 일선 교사들이 연구와 공부에 매진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백년 전에 있었던 캐캐묵은 소모적 논쟁을 배우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창조론은 교과서에 실릴 수 없다. 나쁜 교육은 나쁜 결과를 낳을 뿐이다.

社說

간화선 학술대회에 온 해외학자들

국내외 석학들이 6월 23~24일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띤 담론을 전개했다. 이들은 공주 마곡사 무쌍선원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지도 하에 1주일간 간화선을 실참하며 그 동안의 선불교에 대한 연구와 실제 수행과의 관계를 스스로 찾았다.

간화선 실참 자리에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 5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에 비해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국제학술대회와 동참자들의 다수는 대학 강단에서 동아시아불교와 선불교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세계학계를 주도하는 대학교수들이 간화선을 체험하는 것은 그 사실 만으로도 큰 의미다.

하지만 간화선과 불교교학을 주제로 열렸음에도 주제에 맞지 않은 논문을 제출한 해외학자들이 상당수 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적어도 행사 주제와 맞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주최 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대회 측 역시 세계학자들에게 간화선을 알리는 자리의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3회를 맞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간화선과 선불교 전반의 영문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한국서 열렸음에도 한국 선불교의 영문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대회까지 간화선 국제세미나와 실참현장에 참여한 학자들은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아직도 간화선은 세계인들에게 낯설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세계 불교학계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화강좌 사찰 포교 좋은 방편

사찰이나 부속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요즘 인기다. 주부들이 댄스, 노래 배우기 등 문화강좌를 통해 다져진 실력을 사찰행사나 봉사활동 시 문화공연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문화강좌에 사람들이 몰리는 큰 이유다. 문화 강좌는 사찰이나 수강생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양측 모두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수강생들은 절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교문화를 복합적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해 지는 심성교화 효과가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일반 문화센터처럼 상업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빡빡하게 짜여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사찰 입장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절을 개방하고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문화강좌를 들으러 왔다가 절과 친숙해져 신도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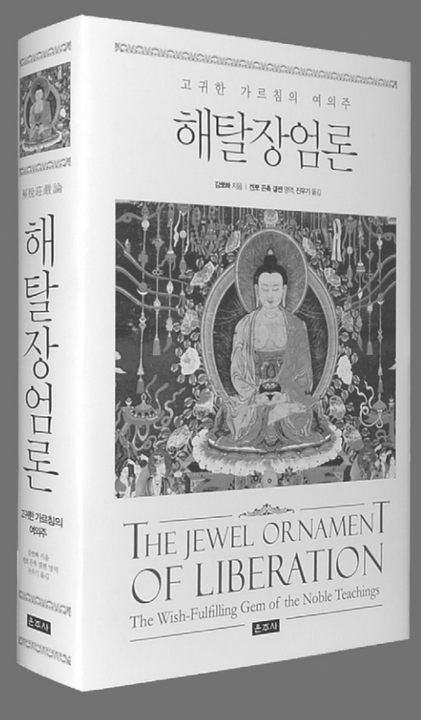
보통 절에 와서 법회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기 마련인데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그만큼 사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에 따르면 3년 정도 되니까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신도가 되는 등 포교와 연결이 됐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이렇게 문화포교의 한 방편이 되는 사찰 문화강좌의 성패는 실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진 섭외에 달려 있다. 여기에 문화적 트렌드가 뭔지 살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단계별 수준에 맞게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강사도 섭외하고 수강생도 모집해야 문화강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근 사찰과 연계한 기획 홍보도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문화의 시대를 맞아 포교의 방법론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 이 문화 강좌만 더 활성화 시켜도 사찰의 좋은 포교 방편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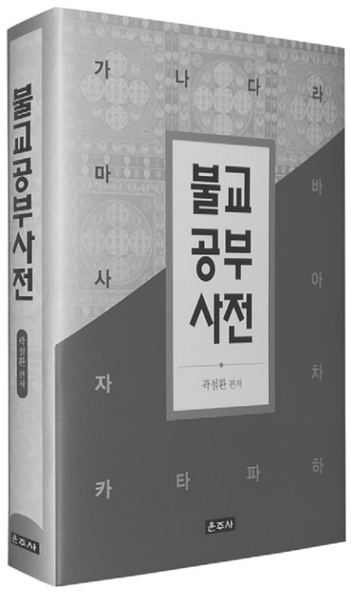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뽀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띠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뽀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곽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불교 공부 사전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